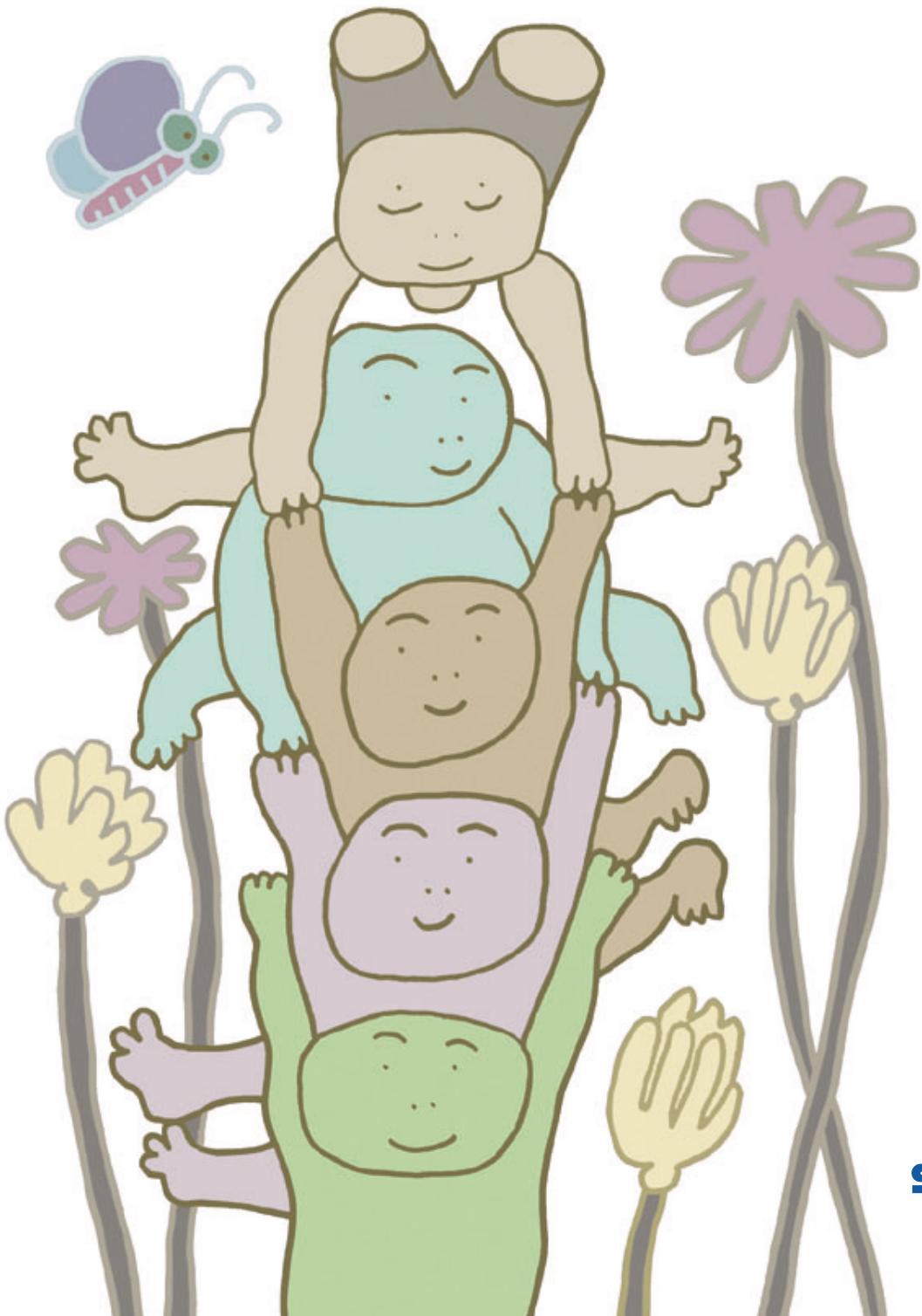


SK Telecom Corporate Philanthropy

2003 사회공헌 활동 백서



SK Telecom

SK Telecom Corporate Philanthropy

2003 사회공헌 활동 백서

2003 사회공헌 활동 백서

축사	04
발간사	06
SK텔레콤 사회공헌 VI	08
전문가 기고	10

1부 | 참여하는 기업문화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의 이념과 방향	36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역사	48

2부 | 함께하는 마음

화보 1 - 사진으로 보는 2003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60
화보 2 - 광고로 보는 SK텔레콤 '행복한 세상 만들기'	72

3부 | 아름다운 실천

2003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개관	78
함께하는 나눔 __ 저소득 가정 지원	84
기정방문 목욕 서비스	86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	94
2003 사랑나눔 캠프	100
함께하는 세상 __ 장애인 지원	104
2003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106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	110

함께하는 실천 _ 구성원 참여 및 지원봉사	116
SK텔레콤 사회봉사단	118
고객 봉사단	132
Junior Achievement 프로그램	136
결연 후원 사업	138
함께하는 네트워크 _ NGO·NPO 연계 사업	1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사업	142
Giving Expo 2003	148
아름다운 바자	150
사회공헌 자문위원회	152
NGO·NPO 후원 및 협찬	154
함께하는 서비스 _ 공의 마케팅	160
아름다운 통화	162
사랑의 자선냄비	164
콜 플러스 사랑플러스	166
어린천사링	168
스포츠 스타와 함께	169
함께하는 내일 _ 해외·교육·문화 지원	172
이라크 평화학교 재건 사업	174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의료 지원	178
메세나 지원	180
2003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주요 연표	182



“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새로운 비전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SK텔레콤을 아껴주시는 여러분!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에도 SK텔레콤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의 발자취를 담아〈2003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은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의 도래 이전부터 정보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그 동안 정보통신 사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CDMA 및 IMT-2000 서비스의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TTL을 출시하여 통신업계 최초로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 이동통신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이동통신기업으로서의 위상도 갖추었습니다. 2004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DMB 위성 ‘한별’을 성공리에 발사하여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성공을 이웃과 같이 나누고자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공헌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21세기 기업은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에 경제적 성과를 되돌려줘야 하고, 이러한 사회환원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한 자선이나 시혜보다는 기업 및 내부 임직원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2003년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외부단체와의 협력 강화’ ‘임직원들의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 구성원들에게 당당한 자립 의지와 능력 개발의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함께 나누겠다는 SK텔레콤의 의지입니다.

SK텔레콤이 걸어온 지난 20년이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역사가 되었듯이,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도 바람직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통신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웃과 함께 열어가는 기업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 대표이사 부회장 조정남

조정남



“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객과 함께 보다 큰 이웃사랑을 펼치겠습니다

”

언제나 저희 SK텔레콤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SK텔레콤이 창립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SK텔레콤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객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이웃 같은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시민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전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은 당당한 참여의 즐거움 속에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 함께 사는 세상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03년 한 해에도 SK텔레콤은 경제적, 환경적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장애 청소년과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가정방문 목욕 및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캠프,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등을 통해 이들이 열린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사회봉사단과 결연 후원 사업 등의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NGO·NPO와 연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많은 고객들이 참여함으로써 SK텔레콤의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의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은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003년은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크게 향상된 한 해였습니다.

이 백서는 지난 한 해 동안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한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이 백서를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SK텔레콤의 정신이 사회 곳곳으로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과 참여를 실천해가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04년에도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SK텔레콤의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의 실천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김신배

Kim Shin-b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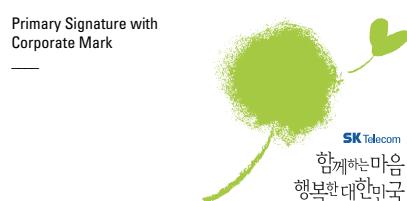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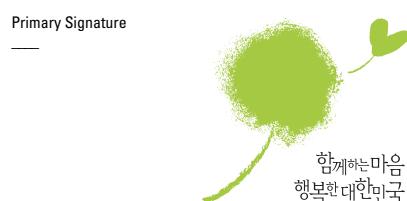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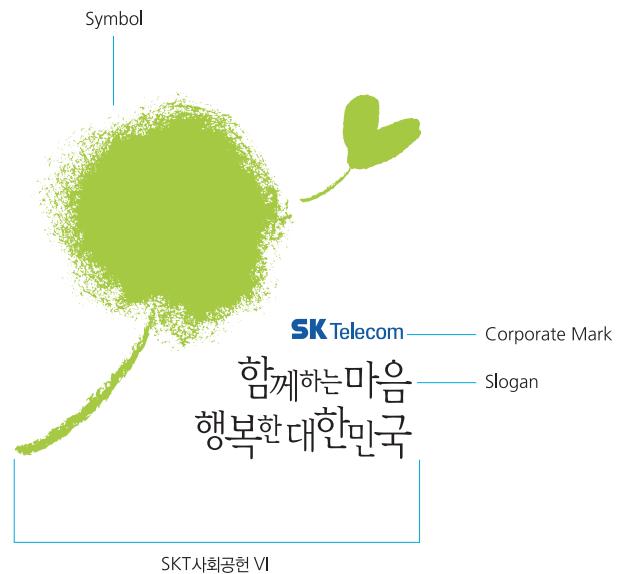


Visual Identity Concept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소박한 꽃 민들레.

SK텔레콤 사회공헌 VI는 꽃을 피운 후 자신의 분신을 멀리 날려 보내듯이 세상
어두운 곳에 사랑과 행복, 희망을 전하는 '민들레 홀씨'를 형상화하였습니다.

민들레 홀씨에 쓰인 녹색은 밝은 햇빛 아래 잔디 위에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평화롭고, 건강하며, 생기발랄함을 느낄 수 있는 희망의
색으로 우리 사회를 밝히고자 하는 SK텔레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 기고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나아갈 길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의 원천

박 원 순 _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SK텔레콤의 돋보이는 사회공헌 활동

〈함께하는 더 큰 세상〉, 〈나눔의 약속 - 아름다운 통화〉, 〈2004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아름다운 바자회〉, 〈함께하는 마음 - 나와 우리를 넘어 하나가 되는 ‘함께’의 가치〉. SK텔레콤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다. 언뜻 보면 기업이 아니라 자선단체나 모금단체의 웹사이트에 들어온 느낌이다.

지난해에 이어 SK텔레콤은 2003년에 들어서도 〈구세군에 사랑의 자선냄비 기부금 전달〉, 〈아름다운 바자회를 통한 기부금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 〈희귀난치병 환자돕기 모금액 전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차 해외연수 실시〉, 〈‘아름다운 통화’를 통해 적립된 기금 전액을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단체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한 바 있다. 특히 아름다운재단과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통화’는 고객이 기부 전화를 하면 회사도 기부액의 100%를 매칭함으로써 ‘고객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고객이 승진·합격·생일 축하 등의 희소식을 이동전화로 접한 경우 그 기쁨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 ‘아름다운 통화’는 실망스럽고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따뜻하고 흐뭇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른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SK텔레콤 사회공헌의 특징

SK텔레콤의 사회공헌 예산은 1999년 173억 원에서부터 2000년 385억 원, 2001년 829억 원, 그리고 2002년에는 997억 원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다. 매출액과 수익이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경영진의 사회공헌 의지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급격한 증액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증액은 IMF 이후 다른 기업들이 사회공헌 예산을 줄이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SK텔레콤의 사회공헌은 무엇보다 다른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2002년의 사회공헌 지원 내역을 보면 정보화 관련 지원이 전체 지원액의 58%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업무내용과 유사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질적인 측면의 빈부 격차는 눈에 드러나는 격차 이지만 정보 분야의 격차는 외형적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정보 분야 격차는 빈부 격차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격차 해소에 집중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비영리 민간단체들과 함께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영리 추구의 전문성을 가지듯 NGO·NPO들은 비영리 공익 활동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기업과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면 훨씬 효율성을 지닐 것이다. 월드비전, 글로벌케어,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시설협의체컨소시엄, 아름다운재단 등과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나눔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실제로 2002년에 타 재단이나 NGO에 지원한 금액이 10%에 이르고 있다.

기업시민이 함께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이미 특정한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거의 유행처럼 사회공헌 활동이 번지고 있다. 사회공헌 담당자와 부서를 만들고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공익적 목적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공익 연계 마케팅이 유행이다. 과거 기업은 마치 이윤과 경쟁의 상징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기업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른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기업의 역할이 당연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기업이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그 수익의 사회 환원과 임직원들의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한때 일본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진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동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던 일본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여러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일본의 어느 기업이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서양문명 수입에 열심이었듯이 일본의 기업들은 사회공헌도 열심히 수입하고 학습하여 더욱 더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아직도 미진한 한국기업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역시 세계적 추세와 조류에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한 발전이고 진전이다. 기업간의 영업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들 가운데 이익의 1%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기업들로 ‘1%클럽’을 조직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 중 50%가량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아직 청찬을 받기에는 이르다. 현재까지는 주로 현금 지원 방식에 의존하고 있거나 소년소녀 가장돕기·장애인 지원 등 지원 영역이 중복되기도 하고, 지원 활동이 지체장애인들의 일손 거들기 등 단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고 다양할수록 그들의 수요에 맞춰 배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배분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사회공헌이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전문성·지속성·형평성 등에 있어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한 경향이 짙다. 지난 1999년 보잉사는 1억 8,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2만 여 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공헌 활동에 5,13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만약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경영의 성과에 좌지우지된다면 그동안 혜택을 받거나 지원을 받던 영역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 기업의 사회공헌

사실 돈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은 역시 기업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익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을 이렇게 이윤창출 동기로만 설명하는 것은 기업의 기능을 충분히 다 설명하지 못한다. 번 돈을 잘 쓰는 것이 소중하다. 기업이 번 돈은 당연히 기업의 기술 발전에 투자되기도 하고 주주에 배당되기도 하며 종업원의 임금 인상과 임원의 성과급 지급에도 사용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고 다양할수록 그들의 수요에 맞춰 배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배포과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탐욕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는 돈을 선행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나 그 수익의 일부가 사회에 사용된다면 기업은 사회 발전에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사회공헌에 사용하는 돈을 모은다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이다. 정부 예산에 못지않은 규모가 될 것이다. 정부가 모든 사회복지의 기능을 다할 수는 없다. 민간영역에 의한 보완이 불가피하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렇게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다.

돈은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한다. 탐욕의 대상이 되면서 또한 선행의 기초가 된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탐욕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는 돈을 선행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기업이 벌이는 사회공헌 활동 조차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바꾸기 위한 비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기부는 선행이라고 본다. 더구나 그 돈을 사회를 위해 쓴다는 것이 의무가 아닌 다음에야 짐작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 - 분명 그 힘의 원천의 하나는 현재 인상적인 사회공헌을 벌이고 있는 SK텔레콤을 비롯한 바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있을 것이다.



새 시대에 맞는 기업의 새로운 책임

박태규 _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비영리조직의 역할과 기능

그동안 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띤 사업은 거의 대부분 정부의 독점적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역할과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다. 기업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에 전념했고, 비영리조직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정부의 보조적 역할을 제한적 범위 안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기업을 비롯한 정부 그리고 비영리조직 등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세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변화를 겪었다. 이 같은 변화는 과거와 같이 세 조직이 구분된 영역에 머물러서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적인 목적을 가진 역할을 정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였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공공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세 영역을 넘나드는 역할과 기능이 필요해졌다.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가속화하고 있는 세계화와 지역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런 변화의 힘들은 기업, 정부 그리고 비영리조직 세 부문에 대해 모

이윤 추구와 부의 축적이라는 전형적인 틀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갖는 모형을 찾아야 한다.

두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생각하고 정립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개선된 역할을 좀더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민간에 대한 간섭을 절제해야 한다는 압력을 민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과거 유지해 왔던 국가 거버넌스(Governance)의 수단과 목적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런 변화를 통해 공공 목적을 위한 민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과거에는 넘볼 수 없었던 정부 영역에서까지 그 역할을 찾게 되었다.

정부와 민간 영역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각 부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영역과 역할, 그리고 각 부문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책임을 요구하게 된 이유

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과거와는 달리 좁은 범위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넓은 범위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을 요구받는 기업들로서는 이윤 추구와 부의 축적이라는 전형적인 틀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목적으로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갖는 모형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세계 곳곳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권위주의적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대안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전에 없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였다.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자원, 노동력, 그리고 시장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경영의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세계화의 구도 속에서는 과거와 달리 단기적인 이윤 추구만을 위한 노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런 세계화를 통한 기업들의 변화는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는 선진국들의 기업들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모든 지역의 기업들에게도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세계화와 더불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인 시민사회 대두는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의 역할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위주의 사회가 붕괴되어 민주적인 정권이 대신하면서 시민사회

역할이 자리잡았고, 민주적 정치가 자리잡았던 사회에서도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해 시민사회가 크게 대두되었다. 우리 사회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빈곤, 경제적 불평등, 경제력의 집중, 인권 침해, 환경파괴, 노동 조건의 악화, 실업, 소비자 권익의 소홀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꾸준히 비대해지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변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이 등장하였고, 이들 민간 단체들은 기업들에게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동참할 것과 사회 발전에 공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정부 또한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민간의 참여와 기여를 인정하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 발전에 중요한 동반자로서 기업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주주들이 그 동안 기업들이 해온 순수한 자선 활동이 그들의 이익이나 의사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틀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기부 활동도 역시 이런 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소수의 최고경영진에 의해 내부적으로 결정되던 기업의 자선 기부 활동이 투자가들에게 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기업 경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지 않는 기부 활동도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순수한 자선 기부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 투자(Social Investment)로 기업의 기부 활동을 발전시켜야 할 내부적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도 스스로 경제 성장, 인적자원의 개발, 사회적 통합,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기업 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이상에서 논의한 대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과거 분명히 구분된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하던 우리 사회의 세 주체인 기업, 정부 그리고 비영리조직 등에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는 동시에 이들간 협력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세계화와 시민사회가 대두된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21세기에는 이들 세 주체들의 영

기업 경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지 않는 기부활동도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알리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 참여는 기업이 가진 금전적 기여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물적 지원과 인적 지원 그리고 기업의 경영적 노하우 등을 망라해서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역 구분이 매우 모호해지고 이를 세 주체간의 협력에 의해서만 당면한 사회·경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이윤을 추구하고 투자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고유한 목적으로 수행해 왔던 기업에도 새로운 변화와 역할이 주어졌다. 기업도 기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발전을 위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와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과거 기업의 순수한 자선 기부 활동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도덕적 의무에서 출발했으며, 소수의 최고경영진들에 의해 그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주로 현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기부활동은 2세대로 발전하면서 기업이 정한 일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조직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런 형태의 기업의 기부 활동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기업재단 등을 통해 이뤄지며, 기업의 경영 전략과 연계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태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포함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투자로 간주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 참여는 과거와는 달리 기업이 가진 금전적 기여뿐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물적 지원과 인적 지원 그리고 기업의 경영적 노하우 등을 망라해서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은 이제 사회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면서 중요한 의사 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적극적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관계와 협력

민간 비영리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주로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때로는 비윤리적인 경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민간 비영리조직과 기업의 관계를 유지해서는 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기업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매우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기업의 사회 참여는 민간 비영리조직과 새로운 관계 정립,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바라보는 비영리조직의 시각도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로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다.

기업의 사회 참여와 사회공헌을 위한 기업-비영리조직 간의 새로운 관계는 두 부문 사이의 재정적 지원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의 형태로, 특정한 사회적 이슈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위한 주제별 연계(Issue Specific Engagement)의 형태로, 그리고 이 두 부문간 서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설적인 대화(Advocacy and Constructive Dialogue)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기업과 비영리조직 간의 협력 관계는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사회 발전의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할 수 있다.

기업과 민간 비영리조직의 협력적 관계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기업의 사회 참여와 사회공헌은 기업 본연의 목적인 투자기들을 위한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O'brien, Dan, "Constructive engagement of the corporate sector: a new approach to corporate philanthropy and social activism" Mission and Market, Independent Sector, Washington D.C.
(http://www.independentsector.org/mission_market/O'Brien_briefing.htm)
- The Three Sector Initiative, "Working Better Together: How Government, Busines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Can Achieve Public Purposes Through Cross-Sector Collaboration, Alliances, and Partnerships" A collaborative project of 7 organizations, 2000.
(http://www.independentsector.org/programs/leadership/3sector_overview.html)
- The Three Sector Initiative, "Changing Roles, Changing Relationships: The New Challenge For Busines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A collaborative project of 7 organizations, 2000.
(http://www.independentsector.org/programs/leadership/3sector_overview.html)



기업 사회공헌 활동 –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실현의 정치’

조 대업 _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특별한 목표의식의 중요성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새로운 기업 활동의 하나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재단의 설립이나 기부행위, 회사원의 자원봉사 활동 등이 개별 기업의 바람직한 사회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소개된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은 이제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중요하고도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하나는 약 8면에 걸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대단히 높아졌다는 점을 가시화한 바 있다. 새로운 사회적 경향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주목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1990년대 중반 NGO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NGO 활동 관련 기사나 연재물을 집중적으로 다루던 때를 떠올리게도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늘어난 규모에 비해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기업의 사정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지만 매출이 크게 늘어나 이익을 많이 남긴 기업은 고객으로서의 시민에

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윤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면, 매출신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시도하거나, 나아가 경쟁기업에서 하니까 이 역시 경쟁적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공헌 활동을 ‘왜’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다만 ‘어떻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만 몰두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의 내용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무질서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부) - 시장(기업) - 시민사회(시민단체)의 관계가 재편되는 거대 구조전환의 국면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요청이리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백화점식 나열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연구·실천 필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학술적 관심 또한 크게 높아졌으나 이 역시 사회공헌 활동의 기술적 측면이나 실질적 효과 등 사회공헌의 활동 방식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환경의 변화나 사회로부터의 신뢰의 필요성 등이 사회공헌 활동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빈번하게 언급되지만 이러한 설명은 통시대적이고 보편적 기업활동과 관련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기업환경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변화해 왔고, 사회의 신뢰 또한 기업에게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요긴한 것이었다. 문제는 왜 우리 시대에 사회공헌 활동이 유례 없이 주목되며 나아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 질문이 제기되는 것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 시대 사회구성의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한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범지구적 차원에서도 국가(정부) - 시장(기업) - 시민사회(시민단체)의 관계가 재편되는 거대 구조전환의 국면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요청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시혜적인 자선 활동이나 매출과 관련된 전략적 요소 등 사회 공헌의 현실적 방법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사회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 구조적 특성에 기초해서 설명될 때 사회공헌 활동은 백화점식 나열을 넘어 좀더 체계적인 전망 속에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투명사회’와 ‘봉인된 사회’

이탈리아의 사회철학자 바티모(Gianni Vattimo)는 현대사회를 ‘투명사회(Transparent Society)’라고 부른다. 바티모는 미디어의 발전에 주목하여 다양한 시청각적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이 통일된 관념과 절대성, 진리 등을 지향하는 통일된 서술에 종말을 고했다고 강조한다. 근대적 가치와 삶의 해체를 미디어의 디원화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근대적인 국가독점과 이데올로기의 시효가 만료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투명사회의 논리를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근대사회는 이성적 질서의

투명성을 지향하면서 출발했다. 그러나 근대적 합리성이 사회의 발전과 통합의 논리로 확대되면서 근대사회는 오히려 ‘불투명성’을 드러냈다. 즉 근대사회는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정치적 억압과 규제로 뒤통인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봉인된 사회’ 였던 것이다. 이 같은 봉인은 고대사회에는 신화와 마법의 우상에 의해서, 중세에는 종교에 의해서, 그리고 근대세계에 와서는 국가·민족 혹은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근대의 불투명하게 봉인된 사회가 투명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깊질을 벗는 일이었다.

20세기 후반 정보통신의 기술혁신은 정보화·세계화를 급속히 확산시킴으로써 소통의 경계를 허물고 범지구적 차원에서 시장주의를 팽창시켰다. 그러한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통해 국가를 위축시키는 한편, 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베일도 걷어내었다. 국가의 한계가 노출되고 이데올로기의 장막이 벗겨진 후 드러난 것은 적나라한 욕망과 사적 이익의 세계뿐이었다. 이것이 투명사회의 단면이다.

이 같은 투명사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와 이데올로기의 봉인이 풀린 사실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봉인이 해체된 후 현대세계는 사회구성 방식에 있어 큰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국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 이와 병행하는 시민사회의 확대가 그것이다. 나이가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확대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에도 시장주의를 팽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사회의 구조적 변화

최근 세계사회의 이러한 구조 변동은 근대 민족국가 중심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이가서는 고대로부터의 국가 중심적 사회운동 원리에 일대 전환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문명사적 전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문제는 투명사회에서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중심성은 해체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각축과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주의의 철저한 경쟁논리에 의해 공동체의 죽음이 예고된다는 사실이다. 이제 공동체의 유지와 사회의 회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NGO는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는 핵심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영역은 공동체 해체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영역이다. 투명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 질서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윤 추구의 시장주의가 사회 해체의 논리가 아니라 공존의 윤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투명사회에서 공동체의 질서 구축을 위한 필연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서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전에는 기업의 기부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특수하게 허

용되는 등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1952년에 미국에서 기업의 자선을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관례가 있은 후 미국의 회사법은 기업의 자선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다. 1960년대 이후 기업의 사회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이득을 주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논리와 함께 기업윤리, 기업시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논의가 다양하게 확산되었다.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공존적 사회공헌'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사회공헌 활동의 발전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보여왔다. 주지하듯 이 한국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에 크게 의존했던 것처럼 기업의 기부 행위 또한 오랜 군부권위주의의 개발독재 기간 동안 억압적 국가에 의해 강요되는 준조세적 성격을 띠었다. 개별 기업주의 자발적 자선활동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기부 행위는 국가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통제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기업의 자율성은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억압적 국가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 한국사회는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속으로 빠르고도 깊숙이 편입되었다.

서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대부분 기업의 이익에 기초해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공헌 활동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선택적 사회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개발독재 기간 동안 한국 기업의 기부 활동은 억압적 국가에 의한 '강제적 사회공헌' 이었으며 기업이 국가의 억압을 모면하려는 '회피적 사회공헌'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서구사회든 한국사회든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탈근대 지향적 투명사회로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범지구적 요구에 봉착하여 투명하고 경쟁적인 기업 경영 환경은 조성되었으나 공동체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다른 어떤 시대에 비해서도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이야말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근대적인 국가 공동체와 공공성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상태에서의 선택적 사회공헌과 강제적·회피적 사회공헌을 넘어서서 설계되어야 한다. 즉 약화되는 공동체 질서를 보장하는 기능을 국가-시민사회-기업이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기업의 역할을 더욱 확장하는 '공존적 사회공헌'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명사회 개념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투명사회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과 집중화된 미디어에 의해 강요되었던 지배 이데올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기업의 역할을 더욱 확장하는 '공존적 사회공헌'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 시스템이 투명사회에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율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시키는 '실현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기를 벗어버린 다양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투명사회는 한편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교환이 쉽고 빨라졌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으며 또 혼란스러워졌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초점을 둔 바티모의 투명사회 개념을 좀더 포괄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보면 이데올로기와 국가통제의 구속을 벗어난 현대사회에서 욕망과 이익의 표출이 자유로워졌으나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경쟁과 욕구의 표출은 이제 질서의 상실을 드러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탈근대적 해체로 귀결되는 투명사회와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노력으로 바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가별 혹은 지구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약화된 국가의 통치(Government)만으로는 관리의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협치(協治)’의 과정을 부각시킨다. 이 점에서 거버넌스는, 이익과 욕구는 팽창하는 반면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되는 현실에서 복잡성과 이익을 조율하여 새로운 공동성을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거버넌스 시스템이 투명사회에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율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시키는 ‘실현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사회공헌 활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 기업의 핵심적이고도 필수적인 과업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이 분야에서 논의되는 기업 시민정신의 개념 또한 ‘전략적 사회공헌’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공존의 사회공헌’을 지향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현지 NGO와 연계하는 효과적 사회공헌 활동

김혜경 _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최근 북경에서 들은 이야기다. 한국 기업들 중에 A기업에 대한 북경인들의 호감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사스(SARS)가 한창 유행하던 지난해 ‘베이징을 사랑해요(I love Beijing)’라는 광고가 그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인데, 그동안 A기업은 북경에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크고 작은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는 것이다. 가전제품이 주력 상품인 이 기업은 고객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홍보전략으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반면에 B기업에 대한 평가는 낮다. 북경시에 자사 제품인 자동차를 상당수 기증한 이 기업은 아마도 기업 차원의 홍보전략이 없는 것 같다는 게 현지인들의 이야기다. 이렇듯 세계의 고객에게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상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가가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국산품 애용 캠페인을 관(官)이 주도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품질 좋은 외국 제품은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었다. 어쩌다 친척에게서 외제 학용품을 선물로 받게 되면, 친구들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과 애국심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다. 그러나 이젠 어디에서나 쉽게 외국 제품을 구할 수 있다. 제조업 외에 외식업이나 서비

국제 기구나 정부, NGO들이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자체적으로 경영 원칙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스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다. 외국 제품을 구입하면서 애국심과 구매심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듯 과거 우리 기업들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호무역에 힘입어 성장해 왔지만, 이젠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과 세계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원칙

국가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은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하고 상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지나치게 이윤 창출을 추구한 나머지 저임금과 노조 탄압, 아동 노동 착취나 여성 노동자 차별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환경을 치명적으로 훼손시키기도 한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기업이 따라야 할 인권, 노동권, 환경 분야의 아홉 가지 기준을 제시한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을 제안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목록에는 250여 개의 기업경영 규약이 수록되어 있다.

글로벌 리포팅(Global Reporting Initiatives)이라는 NGO는 2,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활동과 이행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기업책임센터(Center for Responsibility in Business)는 기업 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기구와 독자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사회적 책임 8000’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렇게 국제기구나 정부, NGO들이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도 자체적으로 경영 원칙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기업과 기업가에게는 한 사회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기업과 시민의 관계가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국가(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나가는 시장 영역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과 국가의 관계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시장 영역이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시민들은 소비자운동, 기업감시운동, 소액주주운동, 공정거래감시운동 등으로 시장 영역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 행동은 언뜻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투명하게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에 손색이 없는 기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오늘날 세계에서 기업과 기업가가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사회공헌이다. 국가가 한정된 자원으로 사회복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던 시절, 선진국의 기업과 기업가들은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매만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공헌해 왔다. 철강왕 카네기(Andrew Carnegie)가 미국에 1,946개의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영국, 캐나다 등에 2,811개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카네기멜론대학을 설립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애국심 강한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진 빚을 갚겠다며 아기 돌반지와 결혼 패물까지 들고 나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순진한 우리 국민들이 좀 잘살게 되었다고 해이해졌던 자세를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외환위기를 몰고 온 것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공략한 국제 투기자본이다.

당시 이런 원인 제공의 주범으로 주목받았던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소로스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조지 소로스는 정보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세계 벽 촌과 오지에 인터넷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열린사회연구소(Open Society Institute)를 만들어서 민주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향인 헝가리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에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가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민주주의 공동체회의에서 기조 강연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 동남아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 바로 이러한 그의 사회공헌 활동에 힘입은 것이다.

세계의 최대 부호인 빌 게이츠는 2000년 제3세계 빈민 구호와 질병 퇴치를 위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 지난 4년간 27조 원을 출연하였다. 1998년에는 국제백신연구소에 개도국 어린이를 위한 백신 개발연구 기금으로 1억 달러를 희사하였다. 1994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빌 게이츠의 아내가 된 멜린다의 설득으로, 독점 시비와 기업 사냥꾼으로 손가락질받던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로 변신한 것이다.

해직판 소프트웨어 사용에 익숙했던 내가 MS사의 비싼 정품을 구입해 사용하면서 투덜거리지 않은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존중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이유는 빌 게이츠가 번 돈의 일부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MS사에 대한 신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첫째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둘째, 지역에 적합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의 사회공헌은 언뜻 생각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 같아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은 정부의 해외 원조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활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현지에서 신망 있는 NGO들을 통해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NGO들은 현지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지원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지원 규모보다 몇 배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이다. 정부는 인도적,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으로 해외 원조를 제공한다. 기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첫째,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시장 영역의 축으로 자신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지역사회와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가진다.

둘째, 사업국에서 교섭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현지에서 신망 있는 NGO들을 통해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지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NGO들은 현지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지원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지원 규모보다 몇 배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와 세계인에 대한 공헌

지구촌나눔운동에서는 해마다 캠프와 포럼을 통해 대학생들의 안목과 관심을 세계로 넓히고, 그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일하든지 세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고민하고 세계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정부든 기업이든, 사고(思考)가 국경 안에 갇혀 있는 직원들은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일하기 어렵다. 기업의 첫째 존립 이유는 이윤 창출이지만, 세계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이윤 창출의 가능성과 기업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기부 활동이나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은 물론, 생산과 판매 활동까지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힘이 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세계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는 반드시 세계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어쩌면 강조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다.

나는 SK텔레콤의 사회공헌 자문위원을 하면서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다. 기업의 임원들을 비롯하여 사회공현팀이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이웃을 찾는 일에 부지런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할까 궁리하고,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마다 어떻게 그 사회를 도울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나온다면, 세계에 대한 공헌으로 후대에 길이길이 기억될 기업이나 기업가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 SK텔레콤이 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에 도전한다면, 사회공헌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꿈을 갖고 뛰어야 할 것이다.



기업 사회공헌 활동, 건강한 사회로 가는 상생의 길

문진영_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1. 머리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기업 378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 중 76%가 이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 2003). 특히 활동의 내용도 기존의 장학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사업, 문예진흥 사업, 지역사회 개발 및 의료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필자와 같은 사람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사실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와 지역을 막론하고 국가의 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급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적절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길도 성큼 당겨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듯 기업의 사회공헌이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이에 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사회적·윤리적인 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아직까지도 일반의 인식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오해는 ‘기업은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여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은 세금 받는 국가가 하면 된다’ 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최선의 길은 바로 기업을 발전시켜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치창출을 극대화하여 사회적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에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을 물고기에 비유해 보자. 제 아무리 튼튼한 물고기라도 매일매일 호흡하고 영양을 섭취하는 물이 메마르고 혼탁해진다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듯이, 기업 역시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은 ‘나 홀로 1등’ 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첫 번째 오해와 연결된 두 번째 오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예전의 불우이웃 돋기 나수재의연금과 같이 관행적으로 거두는 준조세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는 것이다. 사실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독점적 이윤을 보장받았던 시절, 사회공헌 활동은 이들의 체면치레 사업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은 그야말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 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얼마 전 아름다운재단에서 상장기업 55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공헌 활동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매출액과 순이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름다운재단, 2003). 즉 경영을 잘 하는 기업일수록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많이 한다는 것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 역도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시장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기업의 제품만을 보고 구매하기보다 그 기업의 이미지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공헌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기업의 소프트한 무형자산으로서 장기적인 이윤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봉사와 이윤환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우광, 1997.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과제」).

따라서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강압적인 준조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 이 아니라, 기업과 그 기업의 활동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와 호흡을 맞추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 대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 |

구분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함	모름
사회봉사	1.9	8.9	88.2	1.0
이윤환원	3.8	14.9	79.6	1.9

3.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나아갈 길

(1) 기업재단(Corporate Foundation)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방식은 첫째 기업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 둘째 개별 기업 혹은 연합의 형태로 기부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경우, 셋째 기업이 기금을 출연한 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황창순, 1998: 155; 홍경준, 2000: 36-38).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이 중에서 세 번째 방식, 즉 기업출연 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업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다른 방식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인적·물적 자원을 풍족히 가지고 있는 甲(여기서는 기업)이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乙(여기서는 취약계층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甲과 乙은 결코 평등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더욱이 이러한 공여(供與) 행위가 개인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관계의 불평등을 넘어서 乙은 甲에게 종속당하게 되고 중국에는 인격적으로 지배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 물질적으로 결핍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일인데,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인 자선사업과 근대 사회복지 사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수혜자의 자아 존중감(Self-Respect) 보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입장이 더 강조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말이 바로 수혜자의 스티그마(Stigma: 수혜자로서의 치욕감)를 유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티그마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적절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에 공익성을 표방하는 재단과 같은 형태의 매개 조직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할 경우, 더욱 충실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甲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乙에 대한 지원을 끊을 경우 甲이야 안주면 그만이지만 乙은 갑자기 생활의 방도를 잃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한 마음에서 시작한 甲의 乙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공헌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기업의 소프트한 무형자산으로서 장기적인 이윤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은 다른 방식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제화, 정보화, 그리고 지역화되어 있는 기업이 풍부한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금압박이 극심한 기업에 대해 당장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출연한 자산의 과실금으로 실시할 경우, 즉 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경우에는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2) 개척적인(Pioneering) 프로그램의 개발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로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적인 현상은 국가의 관장능력(Governance)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욕구가 개별화, 다양화, 복합화, 중충화, 그리고 미세화(微細化)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획일적 운영원리에 입각한 경직적인 국가체제로는 해결은 고사하고 문제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사회문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변화에 대한 파악과 적용능력이 어떠한 조직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업(재단)이 국가가 안 하거나 하지 못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개척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리 증진에 매우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당장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정부의 정보·능력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특정한 유형의 서비스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종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자각한 기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그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맡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요한 복지제도, 예를 들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부분도 시장 부분이나 시민사회에서 먼저 실시되다가 사회적 적실성을 획득한 이후 국가 부문으로 흡수되어 복지국가의 구성 요소가 되는 단계를 밟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어떠한 기관보다 국제화, 정보화, 그리고 지역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 풍부한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공헌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길을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산학연계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우리나라 기업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특징으로, 황창순(1998: 161-164)은 재단 운영의 비전문성, 연고주의적 경향, 가부장주의, 만성적인 재정 부족,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 부족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문성의 부족 문제는 기업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국내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위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있어도 매우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데 더 큰 책임이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에서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학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통일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기업재단의 역사가 미국과 매우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학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대학과 재단이 협력하여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하여 산학연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공헌 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결론

기업이 직접 사업을 실시하건 아니면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건,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주력 업종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적 사회공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한킴벌리의 자연보호 운동이다. 즉 유한킴벌리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강산 푸르게’ 운동은 우리나라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일반인의 자연보호 의식도 제고하는 한편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에 따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원-원(win-win) 계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한킴벌리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 자신도 간접 적이니마 자연보호(사회공헌)에 기여하게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상생(相生)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다른 기업도 자신의 주력 업종에 적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기업경영에도 도움을 받는 한편,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이룸다운재단. 2003. 기업 사회공헌 활동 실태 조사. 제3회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엄 「Giving Korea」 자료집.
- 이우광. 1997.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과제」 「CEO Information」 제100호, 삼성경제연구소.
- 전경련. 2003. 사회공헌 현황 실태 조사.
- 한동우. 1998. 「기업 사회복지 활동의 방향: 직접기부를 중심으로」,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제3권 제2호.
- 홍경준. 2000. 「민간기업의 지역사회복지 참여 방안」, 「지역사회복지운동」 제8집.
- 황창순. 1998. 「한국 공익법인의 성격과 기능: 기업재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10권 제2호.
- 황창순. 1999. 「기업과 사회복지: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의 관점」,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제4권 제2호, 제5권 제1호.

1부

참여하는 기업문화

SK텔레콤은 우리의 이웃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의 기쁨을 공유할 때
비로소 세상이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의 이념과 방향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역사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의 이념과 방향

기업의 아름다운 책임, 사회공헌

고객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바로미터, 사회공헌 활동

‘기업의 사회공헌은 시민사회와 모유와 같은 것이다.’

미국의 경제사상가 마이클 노박이 그의 유명한 저서 「소명으로서의 기업(Business as a calling)」에서 밝힌 말이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윤 추구에 있다. 원활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통한 경영으로 건실한 기업을 만들고 최고의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도 기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요즘처럼 세계적 불황이 계속되고 예측이 불가능한 무한경쟁 시대에는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미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윤 추구가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기업을 존재하게 하는 사회에 경제적 성과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기업시민’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이미 사회 속에서 하나의 역할과 책임을 가진 유기체로 인정받고 있다. 즉,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사회 각 분야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진퇴를 거듭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시민 정신(Corporate Citizenship)’의 근본 의미다. 기업이 사회 속에서 역할과 책임을 가진 유기체로 인정받는 이상,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패러다임은 ‘자선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이러한 역할과 형태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시민 정신의 당위적 발현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기울여온 노력의 대부분이 기업 자체의 규모와 능력을 키워 나가는 일 이었다면, 21세기 기업의 발전은 사회와 횡적 연대를 확장,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의 발전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기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기여를 통해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로운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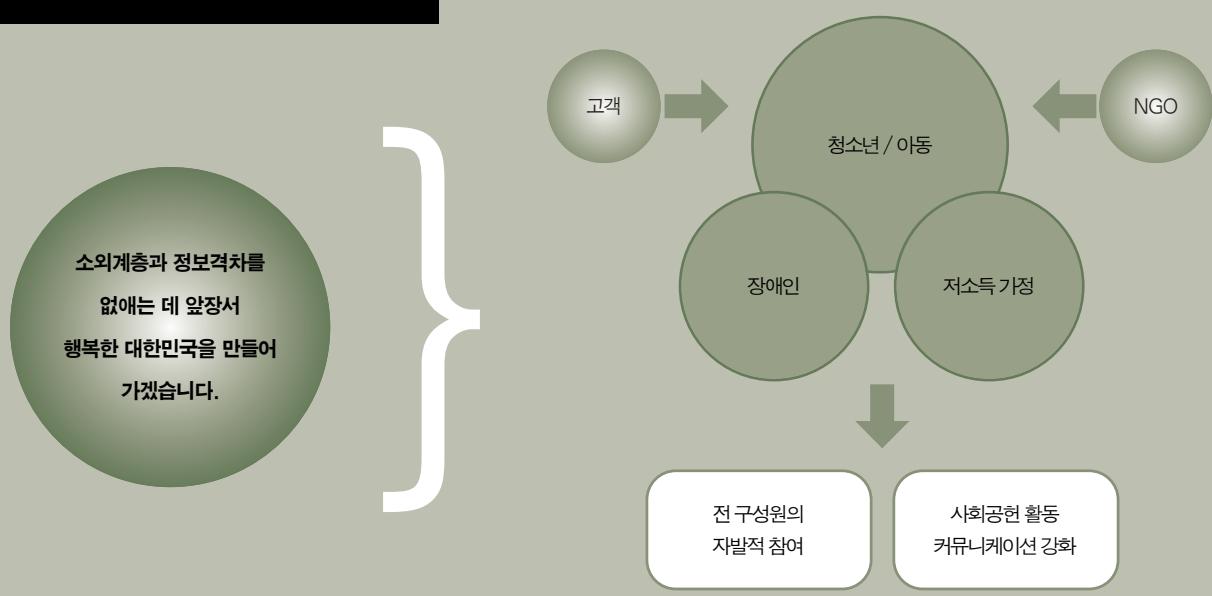
자선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투자로

사회 속에서 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패러다임은 ‘자선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산발적이고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나 참여 등의 형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차원을 극복, 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이러한 역할과 형태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초기부터 SK텔레콤은 다양하고 산발적인 소규모의 일회성 이벤트를 지향하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돌출된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의 해결을 선도하는 진일보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해외 선진 기업들의 사

|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VISION |



례를 분석하여 당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고,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거쳐 회사의 사업 특성에 맞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활동 분야를 찾아냈다.

SK텔레콤이 주목한 것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확대에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회공헌 활동도 단순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전략적 투자의 개념에서 행해져야 하며, 참여가 배제된 경제적 지원의 형태보다 기업 및 내부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업 활동은 한마디로 '휴먼 경영'이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다. 휴먼 경영은 기업이 수익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웃 및 고객들과 함께 어우러져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이웃사촌 같은 친근함을 심어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업 본래의 모습인 이윤 추구 활동과 함께 기업이 소속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기업 이미지는 고객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때문에 휴먼 경영은 이제 기업의 봉사활동 차원을 뛰어넘어 경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해답은 기업 자신에게 있다. 영국이나 북유럽과는 달리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 광역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민간 영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아지고, 노령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 격차와 소외계층 문제는 이제 공공 부문의 정책만으



이제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지는 새로운 관계 설정 즉, 아름다운 동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동 목욕 서비스부터 이라크 어린이 지원까지 SK 텔레콤의 행보는 국내외를 넘나들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지는 새로운 관계 설정 즉, 아름다운 동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 일류 기업일수록 기부 활동에 적극적

최근 세계 주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한발 앞선 투자로 인식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일류 기업들은 사회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일류 기업들은 ‘기업과 사회의 상생’이라는 의식을 갖고 기업이 가진 물적·인적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경영의 중요한 구성 요인 및 전략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전통적 사회공헌 활동과 구분되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Strategic Philanthropy)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경영 전문가들이 이미 사회공헌 활동의 경영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투자자나 종업원만이 아닌 고객,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한경쟁 시대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는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필립스(Philips)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112년 전 네덜란드의 애인트호벤에서 창립될 당시부터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필립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사내에 지속가능위원회

회, 지속가능전담그룹본부를 설치하고 지속가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윤리규범에 따른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3년 2월 최근 수년간의 다양한 활동에 관한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발표했다. 2003년 9월에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평가(DJSI)에서 최우수 지속가능성 기업에 선정됐다. 이 평가에서 필립스는 환경과 제품에 관한 책임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역할과 자선 활동, 노동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필립스는 사회, 환경, 경제 등 세 가지 책임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필립스는 종업원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전 세계에 걸친 윤리적,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해 인종, 국적, 나이,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는 인사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립스는 향후 5년간 고위 경영진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중을 현재의 4%에서 10%까지 확대하고, 아시아 출신 고위 경영진 수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필립스는 세계 각 지역의 공동체 및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의료 등의 봉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999년부터는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립스 이미지 진단 트럭(Philips Image Diagnosis Truck)’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리핀 교육부와 협력하여 2004년까지 10곳의 필립스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필립스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 지난해 기준으로 30억7,200만 유로(한화 4조여 원)의 대규모 투자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3,000여 건의 특허를 획득했다.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세계적인 제약회사 머크(Merck)의 사례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이 얼마나 큰 경영학적 가치를 가지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예다.

세계 최대의 항공사인 보잉(Boeing)도 사회공헌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할 때마다 ‘지역에 맞게 활동하기(Acting Local)’를 가장 중시한다. 보잉사는 회사 비전 및 리더십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이야말로 임직원들이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이유 있는 투자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의 기부 문화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돋는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선 활동이 주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기부 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예술, 스포츠 등 기업 외적인 활동에 대한 스폰서 비용을 대폭 축소했고, 기업의 기부는 단순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으로 기부금 총액은 늘지 않았지만 기부 문화는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은 기업이 가진 물적·인적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경영의 중요한 구성 요인 및 전략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전통적 사회공헌 활동과 구분되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STRATEGIC Philanthropy)을 이끌어내고 있다.



세계 일류 기업일수록 기부 활동에 적극적이다. 필립스, 머크, 보잉 등의 기업 등이 좋은 예다.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오히려 이 기간 동안 기부 문화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



정부도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손쉽게 제도적으로 보장한 NPO(Non Profit Organization)법을 만들어 기업과 NPO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일본 기업들은 최근 사회공헌 활동의 폭을 넓혀 외국 NPO와 연계된 해외지원 사업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NPO를 바라보는 시각은 2002년 7월 1,26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60.1%가 NPO를 '다양한 시민사회 구축의 담당자'라고 평가했으며 46.6%가 '사회공헌 활동 추진의 파트너'라고 답했다. 또 다른 기업들은 NPO를 기업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눈, 사업 활동의 파트너로 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경단련의 사회공헌추진위원회는 60개 회원사 임원들이 매월 두 차례씩 모여 어떻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NPO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있다.

많은 기업이 NPO를 단순히 기부나 물품, 시설을 제공받는 단체가 아니라 사업을 함께 하고 사원을 파견해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하는 관계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 제언을 하는 NPO와 대화를 하고 이들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일본 최대 주류회사인 아사ヒ 맥주는 연평균 경상이익 100억 엔 가운데 2%를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년 1억 엔을 NPO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4,100여 명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파트너를 스스로 골라 기부하는 추세에 따라 단순한 기부보다는 자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03년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은 '차별화된 전략적 사회공헌', '외부단체와의 협력 강화', '임직원들의 참여 확대'로 촉약된다.

기부 프로그램에 돈을 지출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단련이 폐낸 2001년 사회공헌 활동 실적 조사에 따르면 2001년 일본 대기업들은 평균 3억4,200만 엔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

기업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우리나라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전문 조사평가 컨설팅 기관인 P&P리서치(www.pandp.co.k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투자나 참여 정도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답이 반수 이상이었다.

전경련이 193개 회원사와 71개 기업재단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2년 2월 발표한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활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지출액은 7,060억6,000만 원으로 기업 당 평균 36억5,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사회공헌 관련 비용으로 경상이익의 1~2%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5% 이상인 기업도 30여 개 사나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1999년 같은 조사의 기업당 평균 집행액 22억6,300만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닐 뿐 아니라,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활동비 지출 비율로 환산하면 오히려 일본을 앞선 액수다.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테마가 있는 지속적 활동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모든 기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며 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는 '투철한 책임의식을 지닌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SK텔레콤의 신념이 이 모든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다.

2003년 전경련은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분야와 방법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58.9%)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향후 추진 분야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역사회 및 사업 발전(32.2%)에 대한 관심이었다. 아울러 정보화 격차 해소(4.4%)는 현재까지는 낮은 비중이지만 꾸준히 지속될 분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특성에 맞춘 주제와 개념 속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임직원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본적으로 현재의 활동 상황들은 당분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조금씩 모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그것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조사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공헌 활동에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SK텔레콤은 그 동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한발 앞서 테마형 사회공헌 활동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체계화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 경영의 관

|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MISSION |

기업의 특성을 살린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적 사회공헌

비영리단체와
연계 강화

임직원들의
참여 확대

고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 참여적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하는 기업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기업
- NGO·NPO와 협력하는 기업

- NGO·NPO가 영향력을 갖춘 자립적 단체로 성장하여 효율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이동통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고객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점 이전에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기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며 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는 ‘투철한 책임의식을 지닌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SK텔레콤의 신념이 이 모든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시민 정신을 실천하여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이웃 같은 기업이 되고자 하였다.

2003년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은 ‘차별화된 전략적 사회공헌’, ‘외부단체와 협력 강화’, ‘임직원들의 참여 확대’로 축약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은 사회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화의 혜택과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SK텔레콤 의지의 표현이며 ‘함께하는 마음’이 모이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장애인들의 정보화 세상을 앞당기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오랜 노하우를 지닌 사회봉사 단체와 적극적인 연대 및 협력 지원 관계를 통해 더욱 전문적인 사회공헌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사내의 사회봉사단을 활성화하여 사회공헌 활동 전문 인프라 강화에도 남다른 정성을 기울였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SK텔레콤의 2003년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무엇보다 SK텔레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참여적 사회공헌 활동’을 선

SK텔레콤은 사회공헌 활동의 기본 철학인 '나눔'의 원리를 실제 사업 진행에서도 실천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물적·인적 지원은 물론 NGO·NPO 등 관련 단체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함께함은 물론, 다양한 NGO·NPO 등 사회공헌 관련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고자 하였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 강화

SK텔레콤은 사회공헌 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으로 실질적 수혜를 확대하고자 했다.

소년소녀 가장 및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마다 7월에 개최해 오던 '소년소녀 가장 사랑희망 캠프'를 '사랑나눔 캠프'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혜 대상을 기존의 소년소녀 가장에서 자폐장애 아동으로 확

대하였다. '2003 사랑나눔 캠프'는 수혜자의 확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국복지재단, 원광대 등과 연계하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눔'의 의미를 강조하는 행사로 승화되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은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무료 이동진료, 결식아동 돋기, 희귀난치병 환자 돋기 등 더 많은 저소득 가정의 구성원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SK텔레콤은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정보화의 혜택과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다. 2003년 5회째를 맞은 '장애인 청소년 정보겸색 대회' 등은 이미 SK텔레콤이 꾸준히 실천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연계와 참여, 생활 속의 사회공헌

SK텔레콤은 사회공헌 활동의 기본 철학인 '나눔'의 원리를 실질적인 사업 진행에서도 실천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NGO·NPO 등 관련 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글로벌케어, 월드비전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활동 지정사업으로, '무료 이동진료'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등의 사업을 연계하여 펼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특수학급 장애아동 보조교사 파견' 등의 사업을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 국제기아대책기구, 지역나눔운동, 봉런티어(Volunteer)21,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등 주요 NGO·NPO 단체와 연계 사업도 추진해 나갔다.



아울러 사회공헌 관련 NGO·NPO 및 학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멤버로 한 사회공헌 자문위원회를 구성,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기부 활동을 상시화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소액 기부 서비스인 ‘아름다운 통화’와 무선 인터넷을 통해 자선냄비에 기부할 수 있는 ‘NATE 자선 냄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이벤트 성격에 머물러 있는 일반인들의 기부 활동이 생활 속의 기부 활동으로 승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고객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정보통신기업 본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발적 기부를 통한 고객의 사회 참여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고객이 기부를 할 때마다 회사도 같이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분배’라는 사회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이미지 증진 효과도 높였다.

경영이익의 사회 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으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새로운 테마의 설정과 이를 위한 효과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고, SK텔레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SK텔레콤의 실천은 쉼 없이 계속될 것이다.

경영이익의 사회 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으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역사

모두 행복한 사회를 위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

21세기의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이 획득한 경제적 성과를 다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에 환원하는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기업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용 창출, 이윤 추구, 사회 발전 같은 것만을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달라졌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에만 충실하면 되지, 왜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하느냐 하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결국 기업의 경제 활동과 사회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었고, 이것이 중요한 경영 과제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경제 성장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경제 성장 초기의 사회공헌은 주로 장학사업에 치중했다. 이 장학사업은 야간학교 학습이나 장학금 지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활동 지원이나 주거 환경 개선 등 직접적인 생계활동 지원의 형태를 띠었다. 지원 대상자 역시 기업의 근로자나 직계 가족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은 전반적인 사회복지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 부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은 SK그룹의 '장학퀴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 초기 장학사업에 치중했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오늘날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 대상 분야와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문을 중심으로 의료복지 사업, 문예진흥사업, 지역사회 지원사업, 사회개발사업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기업의 참여도와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90년대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봇물이 터졌다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활동은 복지국가로서의 기틀을 한발 앞서 다지는 기폭제가 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한풀 꺾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1990년대 말부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부서가 신설되어 이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활동이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업들이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대상 분야와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기업의 특성에 맞으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1996 - 2003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1996년 베트남 어린이에게 웃음을

SK그룹 ‘장학퀴즈’의 맥을 이어온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은 1996년 사회공헌 활동의 실천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는 바로 ‘베트남 어린이에게 웃음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민얼굴기형돕기회’와 함께 전개한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들의 무료 성형수술 사업이었다.

베트남어로 ‘도안’, 이른바 ‘언청이’라 불리는 얼굴기형 어린이는 당시 베트남에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부족한 재정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전 세계 인도주의 단체와 기업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단법인 ‘세민얼굴기형돕기회’는 1989년 ‘얼굴기형돕기회’로 출범하여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지원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얼굴기형 환자들을 진료하고 기형 교정 수술을 시행해 온 법인이다. 이 단체는 1996년 ‘세민얼굴기형돕기회’로 재출범한 뒤 국내 순회 진료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얼굴기형 무료 수술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경을 넘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 사업의 취지에 크게 공감한 SK텔레콤은 베트남의 ‘Operation Smile Vietnam’과 ‘세민얼굴기형돕기회’의 백세민 박사 이하 그의 의료팀들, 그리고 평소 사회봉사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 인제대학교 백병원 등을 적극 후원하였다.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들의 무료 수술은 물론, 현지에서 사용한 수술 장비 및 소모품, 의약품 등을 전부 베트남 현지 병원에 기증하였다. 베트남 의사의 한국 연수, 복잡 얼굴기형 환자의 초청 수술 등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행사는 8년째를 맞이한 2003년까지 총 1,736명의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에게 새 삶과 밝은 웃음을 찾아주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 일을 계기로 국경을 초월한 인류에 구현은 물론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민간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1997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1997년은 SK텔레콤 회사명을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고 본격적인 이동통신 사업을 펼친 해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 또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이슈 환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 ‘왕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펼쳐 우리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운동은 크나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학원 폭력과 왕따 현상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8년 소년소녀 가장 지원

1998년에는 사회공헌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전과 무주에서 ‘98 SK텔레콤 사랑희망 캠프’를 개최하였다. 초청된 110여 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은 야외 캠프를 통하여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SK텔레콤은 교실 밖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하여 캠프의 테마를 생생한 과학탐험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중앙연구원 견학과 엑스포 과학공원 관람 등의 일정을 통해 경이로운 과학의 세계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또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의료봉사 기구인 글로벌케어 전문 의료진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1999년 세계적인 사회공헌 활동 전개

1999년은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본 골격을 갖추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한 해다. SK텔레콤은 한 해 동안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활동을 펼쳤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제1회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다. 이 대회는 정보화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대표적인 정보화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 청소년에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제1회 대회는 1999년 6월 1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총 22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본격적인 정보화 이벤트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 1999년에는 글로벌케어에 엑스레이 장비와 차량을 지원하여 이동진료 사업을 실시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기증 사업도 활발히 펼쳤다.

2000년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사업 본격 확대

정보검색 대회가 시작된 1999년이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의 전환기였다면 ‘열려라 더 큰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2000년은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2회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는 2000년 7월 21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참석하여 장애 청소년을 격려하였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더욱 개선된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하고 장애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함양하기 위해 200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제1회 장애 청소년 유무선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를 개최했다. 그 밖에도 SK텔레콤은 ‘전국 특수학교 정보화 순회 교육’ ‘전국 특수학교 홈페이지 무료 구축사업’ 등을 통해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 사업은 2000년에 더욱 확대하였다. 2000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이천 SK텔레콤 인재연구원에서 ‘제2회 소년소녀 가장 사랑희망 캠프’가 개최되었다.

정보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소년소녀 가장 PC 지원 사업’ ‘제2회 소년소녀 가장 정보화 교육’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PC 지원 사업 및 무료 순회 교육’ ‘서민층 5만 명 PC 교육’ 등의 정보화 사업도 활발히 시행해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산에 힘썼다.

이외에 사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2001년 NGO·NPO와 활발한 연계 활동

장애인 정보화 지원 사업은 2001년에도 계속되었다.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와 유무선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 전국 특수학교 정보화 순회 교육도 활발히 펼쳤다. 이 순회 교육은 1999년부터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SK텔레콤과 사단법인 장애인정보화협회가 함께 실시해 왔다. 장애인 지식 기반 학중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 교육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은 재활과 자립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장애 유형별로 각 학교에 보급된 특수 장비를 통해 고급 정보화 기술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130개 초등학교 전산실에서 결식 아동을 대상으로 '2001 SK텔레콤 사랑의 교실'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방학 중 결식 아동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정보화 교육을 병행하였다.

정보 혜택의 지역차 극복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친 SK텔레콤은 2000년에 PC를 지원한 전국 580여 개의 농어촌 초등학교 중 250개 수혜 학교를 대상으로 PC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무료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전담 강사가 전국을 순회하며 새로 제작한 전문 교재를 이용하여 컴퓨터 활용,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였다.

총 6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SK텔레콤 자원봉사단은 전국의 각 지사별로 총 11개 봉사 그룹과 이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2001년 7월 7일에는 경영지원팀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목욕탕과 옥상 등 센터 내부를 청소하고, 복지센터 회원들의 전산 입력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SK텔레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글로벌케어의 이동진료를 지원해 왔다. 2001년에는 글로벌케어에 최첨단 의료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기증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국제지원 분야에서는 선천성 손가락 기형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몽골 소년 제치크(9세)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제치크의 가족은 수술을 받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접한 SK텔레콤은 글로벌케어를 통해 수술비를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불의의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 난민들에게 구호금을 지원하여, 재난 극복의 용기를 심어주었다.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SK텔레콤은 '011 행복 펀드' 행사를 펼쳤다. 011 행복 펀드는 고객 1통화당 1원씩 적립하는 011 해피콜과 고객이 휴대폰 줄을 구입하면 금액의 2배를 적립하는 행복 줄 판매, 전 국민이 연예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행복 러닝 페스티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011 행복 펀드 행사를 통해 모인 약 10억 원의 적립금으로 소외계층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과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 기지촌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진료 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를 지원하였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불우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지원으로 아산 주 사업지와 군산 위성 사업지에 2세대의 집이 건축되었고, 나머지는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저개발국의 건축 지원 사업에 활용하였다.

배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농민의 시름을 덜기 위해김장배추 이웃





돕기 행사도 펼쳤다. 1996년에 시작해 매년 이어온 이 행사는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불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2002년 전문적인 사회공헌 활동 실시

SK텔레콤은 2002년 4회째를 맞은 '사랑희망 캠프'를 2002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미래경영연구원에서 개최하였다. 이 캠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복지재단의 추천을 받은 전국 소년소녀 가장 100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정보화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소년소녀 가장들의 사이버 시대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새로운 문화와 정보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는 알찬 배움의 장이 되었다.

소년소녀 가장 PC 지원 사업도 계속하였다. 2002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년소녀 가장 830세대에 PC를 보급하였다. PC의 보급과 함께 정보화 교육도 더불어 실시하였다. 제4회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는 장애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DNN 꿈샘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어 화제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과 참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뉴스 및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제3회 장애 청소년 유무선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는 인터넷에 대한 장애 청소년들의 관심과 성취도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대회의 모든 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 소외 현상을 공론화함으로써 진일보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와 SK텔레콤이 2001년 9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 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관이 2002년 8월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관되었다. '오픈 디지털' (www.opendigital.or.kr)로 명명된 이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겪는 이동상의 불편함과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

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정보화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용 음성 인식 프로그램 ‘이브(EVE)’를 전국의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기증하였다. 이브는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윈도 상에서 음성 인식 방식으로 지원하는 스크린 리더(화면 읽기)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기능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브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고 교육·문화 생활이 향상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1999년에 이어 2002년에도 2억 원을 지원하여 최첨단 의료기기가 탑재된 이동진료 차량을 제작, 의료 전문 NGO인 글로벌케어에 기증했다.

베트남 어린이를 위한 의료 지원도 계속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1996년부터 7년 동안 총 1,400여 명의 얼굴기형 어린이가 의료 혜택을 받았다.

2002년 연말을 맞아 진행한 리더스클럽의 ‘사랑 나누기’ 행사는 불우한 이웃에게 훈훈한 온정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랑 나누기’ 행사는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신청 받아 진행하는 ‘스페셜 리더스 체험’의 일환으로 기획하였다. 이 행사에 참가한 가족과 연인들이 손수 케이크와 테디베어를 만들어 고아원에 전달했다.

2001년에 이어 ‘사랑의 쌀’ 행사를 011, 017 사용 고객의 통화료를 적립한 포인트로 불우 이웃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불우 이웃 돋기를 신청한 2,200여 명 고객의 정성에 SK텔레콤의 기부금을 합하여 마련한 총 2,200 포대(20kg들이)의 사랑의 쌀을 소외계층에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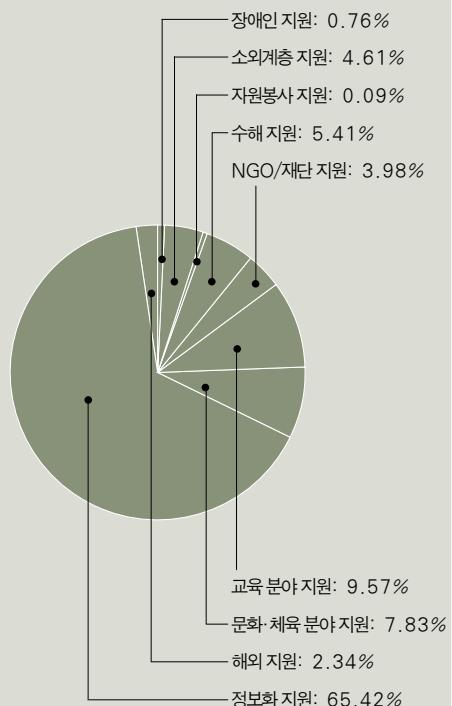
아울러 수해지역에 연합 구호대를 파견하여 생필품 전달, 의료지원 활동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 SK텔레콤 사원들과 동해시 월드비전 봉사자들은 김장김치 1,500 포기를 손수 담가 동해시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전해 주었다.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왜곡되는 한글을 바르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 ‘바른 국어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캠페인은 잘못 알고 있는, 그러나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퀴즈를 구성하여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네티즌이 올바른 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달마다 테마를 정해 올바른 국어 표기법, 아름다운 글 등을 실어 청소년들이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2003년 기업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 전개

SK텔레콤은 2003년 기업의 특성을 살린 전문화되고 조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차별화된 전략적 사회공헌, 비영리단체와 연계 강화, 임직원 참여 확대, 고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참여적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하고, NGO·NPO와 협력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였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소외계층과 정보격차를 없애는 데 앞장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어갈 것이다.

| 2003년 사회공헌 비용 지출 구성 |



| 2003년 사회공헌 관련 사용 예산 추이 변화 |



1999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 전개

| 장애인 정보화 지원 사업 |

- 제1회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 전국 특수학교 정보화 순회 교육

| 소년소녀 가장 지원 사업 |

- 제1회 소년소녀 가장 정보화 교육

| 국제 사회공헌 |

-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251명)

| 주요 활동 |

- 이동진료 사업 지원(글로벌케어 X-ray 기계, 차량 지원)
- 이동통신단말기 기증 사업
- 김장배추 이웃돕기: 저소득 가족 김장 제공

2000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사업 본격 확대

| 장애인 정보화 지원 사업 |

- 제2회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 제1회 장애 청소년 유무선 인터넷 서버이별 대회
- 장애 청소년 홈페이지 경진 대회
- 전국 특수학교 정보시스템 구축 활동
- 전국 특수학교 정보화 순회 교육

| 소년소녀 가장 지원 사업 |

- 소년소녀 가장 PC 지원 사업
- 제2회 소년소녀 가장 정보화 교육
- 제2회 소년소녀 가장 사랑희망 캠프
- 농어촌 초등학교 정보화 지원 사업

| 국제 사회공헌 |

-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197명)

| 주요 활동 |

- 전국 인터넷 무료 교육장 확충
- 이동전화 접자 매뉴얼 발간
- 김장배추 이웃돕기: 저소득 가족 김장 제공



2001

NGO·NPO와 활발한 연계 활동

| 장애인 정보화 지원 사업 |

- 제3회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 제2회 장애 청소년 유무선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 전국 특수학교 정보화 순회 교육

| 소년소녀 가장 지원 사업 |

- 소년소녀 가장 PC 지원 사업
- 제3회 소년소녀 가장 사랑희망 캠프
- 소년소녀 가장 사랑의 교실: 결식아동 하계 방학 컴퓨터 교실 개최

| 국제 사회공헌 |

-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250명)
- 몽골 소년 수술비 지원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 후원

| 주요 활동 |

- 소외계층 무료 이동진료 지원: 글로벌케어 의료활동비 지원
- 011행복펀드 조성 및 집행: 고객 1통화당 1원씩 적립 이벤트 시행
- 한국복지재단 모금액 10억 원 기탁
- 장애인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
- 김장배추 이웃돕기: 저소득 가족 김장을 제공

(총 5만 3,900 포기)

2002

전문적인 사회공헌 활동 실시

| 장애인 정보화 지원 사업 |

- 제4회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 제3회 장애 청소년 유무선 인터넷 서바이벌 대회
- 시각장애인용 음성인식 스크린 리더 '이브' 기증

| 소년소녀 가장 지원 사업 |

- 제4회 소년소녀 가장 사랑희망 캠프

| 국제 사회공헌 |

-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240명)

| 주요 활동 |

- '사랑의 쌀' 기증 사업
- 리더스클럽 '사랑 나누기 체험'
- 수해지역 구호 활동
- 이동진료 차량 기증(글로벌케어 이동진료 서비스)
-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강릉 지역 200가구)
- 바른 국어 사용 캠페인



2부

함께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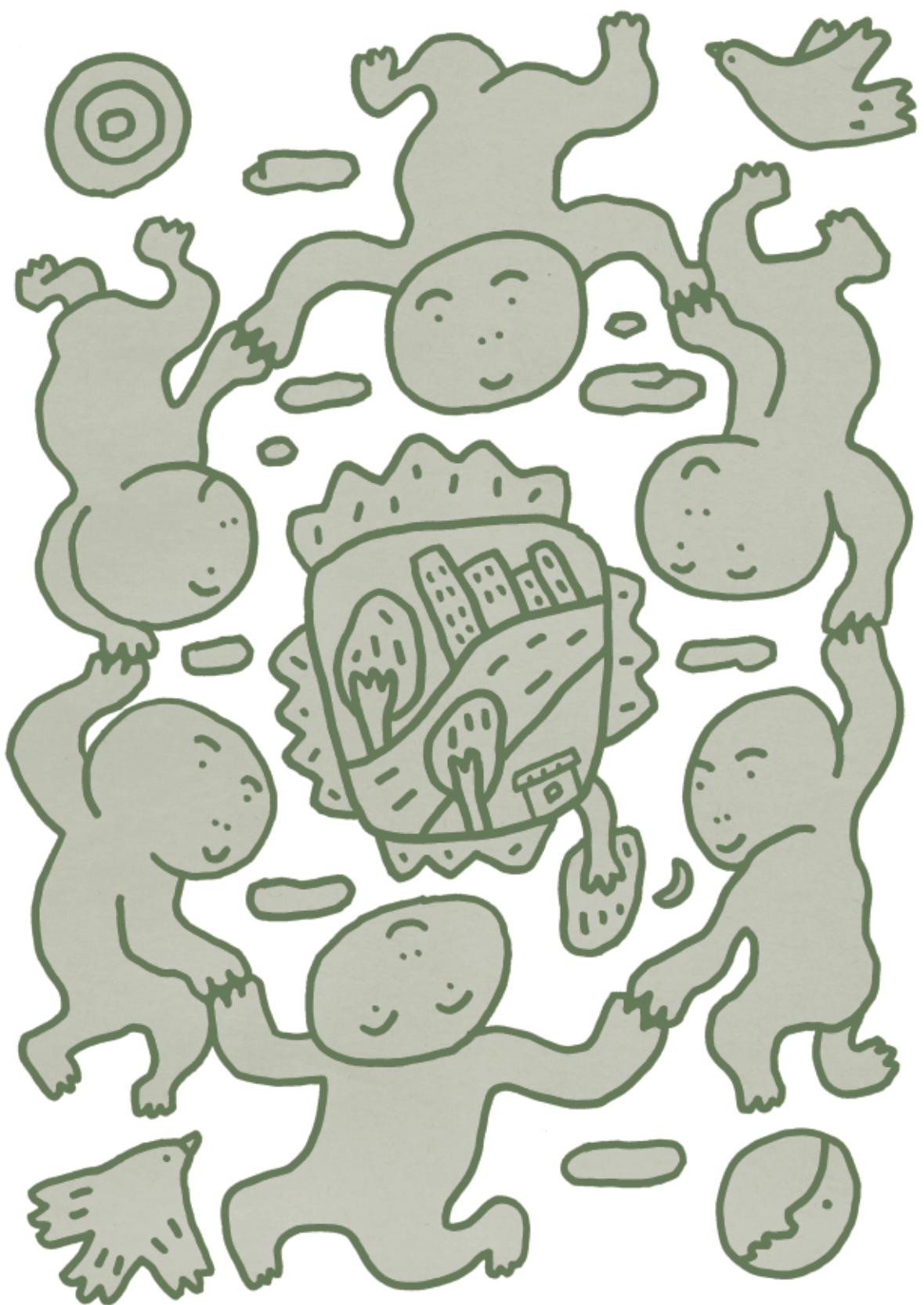
|
함께 나누는 마음은 희망입니다.

함께 나누는 사랑은 미래입니다.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은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
|
|
화보1 - 사진으로 보는 2003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
화보2 - 광고로 보는 SK텔레콤 '행복한 세상 만들기'



● 함께 하는 나눔 _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 가정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함께 하는 세상 _ 정보의 바다에 장애는 없습니다. 100만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함께하는 실천 _ 전문 자원봉사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 함께 하는 네트워크 _ NGO·NPO와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서비스 _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SK텔레콤은 고객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 함께 하는 내일 _ 잘 자란 나무가 모여 아름다운 숲을 이룹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해외·교육과 문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나눌수록 더 큰 하나가 됩니다



● 함께하는 나눔

이웃의 아픔을 마음 속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나눔의 기쁨은 커집니다.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 2003 사랑나눔 캠프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SK텔레콤의 진정이 담긴 사랑의 실천입니다.



● 함께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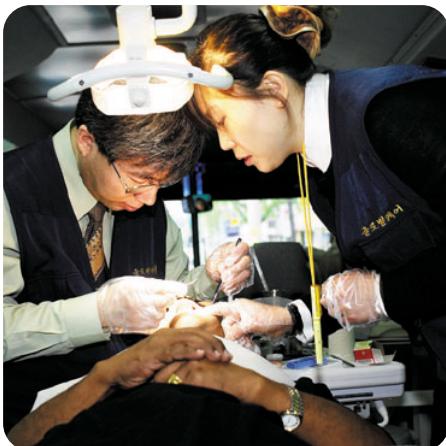
신체의 불편함이 정신의 자유로움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SK텔레콤은 장애인들이 꿈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화가 그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2003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 NGO·NPO와 함께 전문적인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만들어갑니다



● 함께하는 실천

행동으로 옮기면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사랑의 실천을 고객, 이웃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 흘렸던 사회봉사단, 고객봉사단.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실천해 옮기는 SK텔레콤의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은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 참여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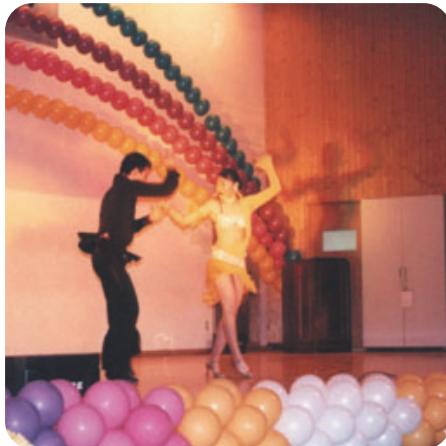
보다 많은 이웃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SK텔레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사업, Giving Expo 2003 지원, 아름다운 바자 참여, 사회공헌 자문위원회 운영, NGO·NPO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 문화를 실현합니다



● 함께하는 서비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기부 방식이 아름다운 통화, 무선인터넷 자선냄비 서비스, 콜플러스 사랑 플러스, 어린 천사링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장애인과 스포츠 스타와 함께 한 '레저 버디' 역시 새로운 나눔의 방법입니다.



● 함께하는 내일

세계의 모든 어린이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그것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라크와 베트남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부서진 학교를 다시 세우고, 무료 수술로 웃음을 되찾아 주고,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투자인 기업 메세나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고로 보는 SK텔레콤 ‘행복한 세상 만들기’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됩니다.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용인대 농구단은 휠체어 농구로 장애인과 농구 경기를 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사랑도 쌓여갑니다.

눈이 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사랑과 웃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사랑도 쌓여갑니다.



글씨에 주인의 얼굴이 보인다. 이사오고 싶은 동네다.

"주차하세요. 제 차는 저녁 8시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깁니다.



글씨에 주인의 얼굴이 보인다
이사오고 싶은 동네다

우리끼리 미리 예봉을 '행여봉500'
마음의 분위기 맑아놓는 시대,

우린 왜 혼인율이низ?

거울에 몇 걸어간 허기증이었지,

세상은 그려워 놀고자고 어른들이나리는 의율,

진심이 담은 메세지가 오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텁텁이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향도,

집과 함께 차운데 따뜻한 기분나에게나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SK Telecom

좋은 생각이 나거든 망설이지 마세요.

새 꼬마주인에게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안전모도 드릴게요.



좋은 생각이 나거든
망설이지 마세요

이 자전거에는 지금 뒤엔장을 찾고 있다는데,

어제는 그걸 차운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한 스트라이프

사랑방울을 통해 찾아온다. 아름다워요,

이런 사랑사를 가지고하고 있는 것인가요,

누구나 예쁜자전거를 찾고 있어요

6~7년 내 사랑방울 찾기

어린 좋은 생각들을 만날수있어요!

사랑방울에 꾸려온 53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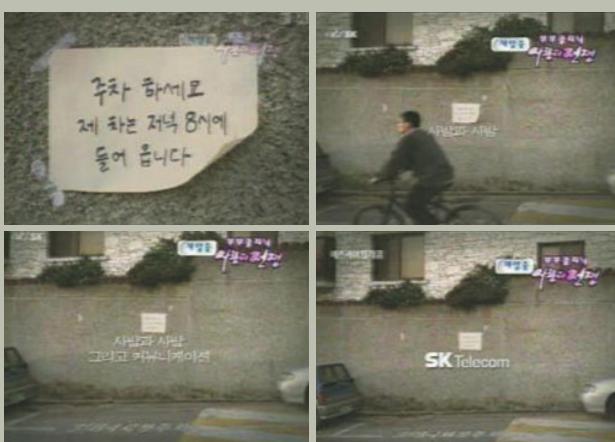
예상은 꿈인 사랑방울로 차운다

어제는 그걸 찾았습니다. 30~40년

예상은 차운로 예상방울로는요.

대한민국은 이미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



광고로 보는 SK텔레콤 ‘행복한 세상 만들기’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공부도 여행도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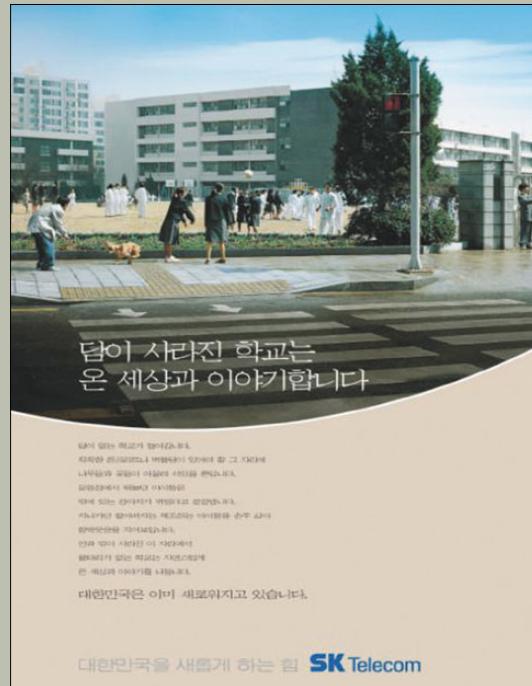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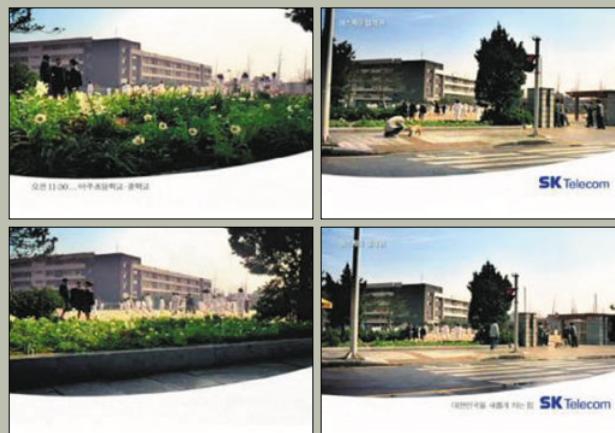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담이 사라진 학교는

온 세상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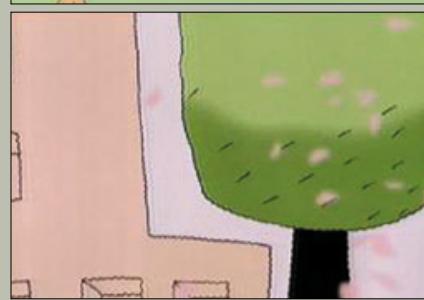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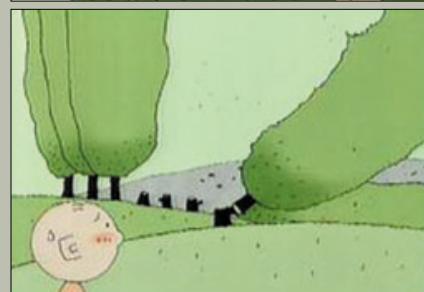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기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느티나무



어릴 적 우리동네엔
키 큰 느티나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나무는
깰려 나갔고 그 자리엔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그루를
지켜준 그 마음이
오랫동안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새로워진
대한민국에서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3부

아름다운 실천

SK텔레콤은 기업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봉사 단체와 활발한 연계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2003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개관

함께하는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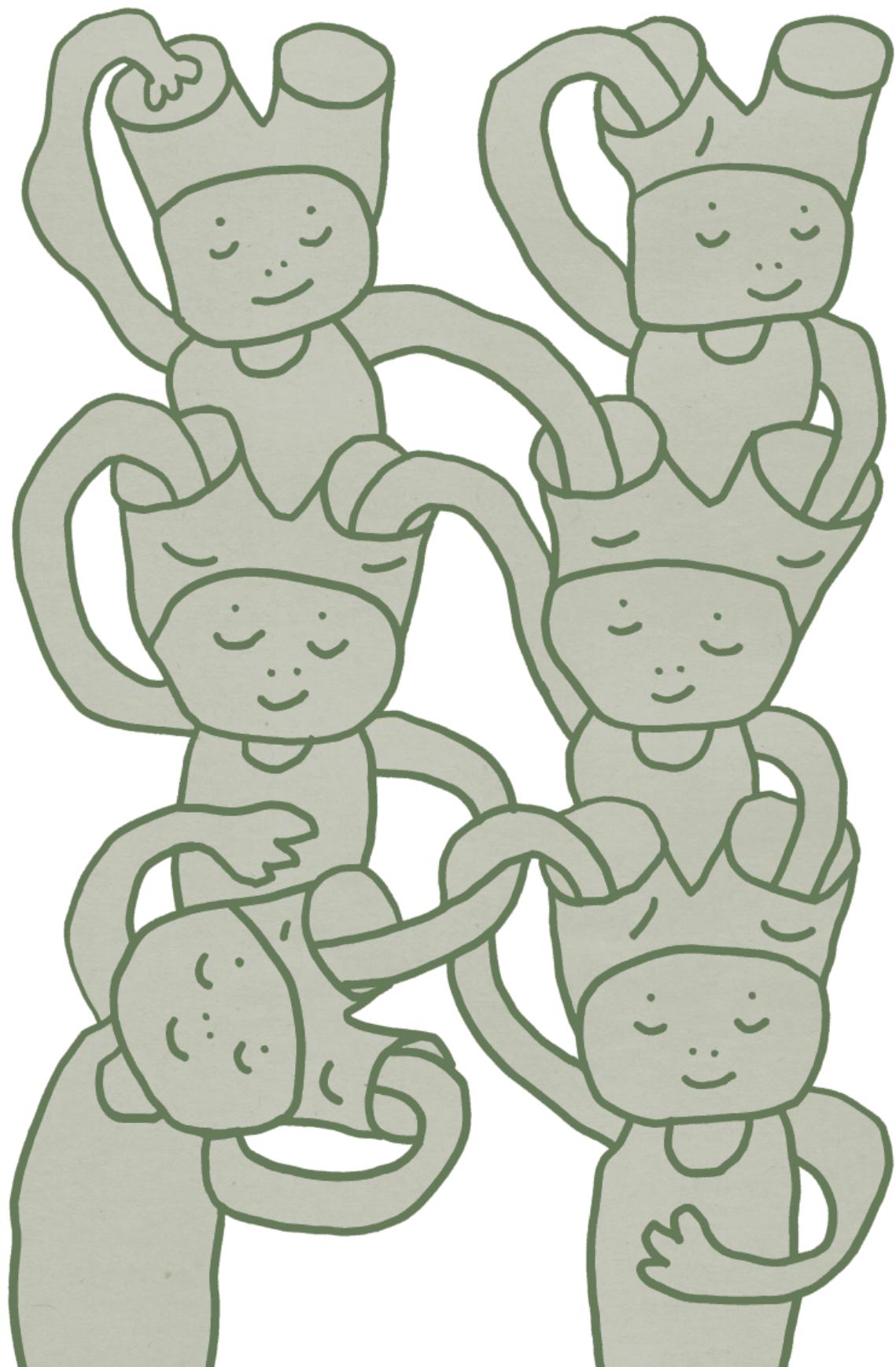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실천

함께하는 네트워크

함께하는 서비스

함께하는 내일



2003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개관

- 21세기 기업의 최대 화두는 자유무역과 글로벌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윤리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살아남느냐’ 와 기업이 획득한 이윤을 ‘사회 구성원과 함께 어떻게 나누느냐’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성장과 분배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SK텔레콤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이러한 역할과 형태의 변화를 인지하고, 2003년 7월 변화경영(Change Management) 추진과 함께, 사회공현팀을 신설,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더욱 전문적이고도 장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기업시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이웃 같은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질적 성장을 꾀한 2003년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은 '전문성 강화'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활동' '외부 단체와의 협력 강화' '전 임직원들의 참여 확대'라는 목표 아래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전개되었습니다.

임직원, 고객, NGO·NPO 참여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주력



사회공헌 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

SK텔레콤은 기업시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이웃 같은 기업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은 '전문성 강화'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활동' '외부 단체와의 협력 강화' '전 임직원들의 참여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전문성 측면에 있어서는 조직 내에 사회공헌 전담팀을 두고 팀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 사회공헌 마인드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공헌 활동 전반에 걸친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수행을 평가·심사하며 세부 프로그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동통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차별 없는 정보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의 일환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고, 올해로 5회째를 맞은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NGO·NPO는 기업이 할 수 없는 활동들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인력들을 활용해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은 그 특성상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SK텔레콤은 2003년에도 NGO·NPO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http://www.chest.or.kr>), 아름다운재단(<http://www.beautifulfund.org>), 국제기아대책기구(<http://www.kfhi.or.kr>), 구세군(<http://salvationarmy.or.kr>), 한국복지재단(<http://www.kwf.or.kr>), 월드비전(<http://www.worldvision.or.kr>), 성동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시설협의체, 글로벌케어(<http://www.globalcare.or.kr>) 등의 단체들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직원은 물론 고객까지 함께한 활동

SK텔레콤은 2003년 한 해 동안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사회봉사단은 태풍 매미가 쓸고 간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연말연시 봉사 활동, 아름다운 바자회 참여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이 관심 있는 특정 소수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주었다. 또한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 결연 후원 사업을 전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대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03년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SK텔레콤은 주고객이 이동전화 사용자임을 감안해 이들이 일상적으로 기부 행위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액 기부 서비스인 ‘아름다운 통화’와 무선 인터넷을 통해 자선냄비에 기부할 수 있는 ‘NATE 자선냄비’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또한 고객이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기부하는 ‘콜 플러스 사랑 플러스’ 프로그램과 고아원 어린이들의 연주를 컬러링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 수익을 다시 기부하는 ‘어린천사령’ 서비스 등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 고객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펼친 결과 5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참여했으며 기부를 일상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양한 임직원, 고객, NGO·NPO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소외계층 지원 및 NGO 연계 프로그램

기존의 핵심 활동 영역인 장애인 정보화 사업과 저소득 지원 사업에 대한 실질적 수혜자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 사랑나눔 캠프, 희귀난치병 환자 돋기 등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단 구성과 활동, 고객 봉사단, 경제교사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JA(Junior Achievement)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각종 NGO·NPO 단체와 연계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주요 NGO·NPO 등이 참여한 ‘기빙 엑스포(Giving Expo) 2003’에 단독 협찬사로 참여했으며, 문화·예술·청소년 관련 NGO·NPO의 다양한 사업을 후원 협찬했다. 해외·교육·문화 사업으로 이라크 SK텔레콤 평화학교(Peace School) 건립을 지원하였고, 1996년부터 추진해온 얼굴기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들에 대한 무료 성형수술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메세나 지원 사업도 전개하였다. 현재 SK텔레콤은 이런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홈페이지



(<http://withheart.sktelecom.com>)를 구축, 운영중이다.

6개 분야별 전문·집중화된 활동 전개

2003년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은 '함께하는 나눔'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실천' '함께하는 네트워크' '함께하는 서비스' '함께하는 내일' 등 모두 6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함께하는 나눔'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 사랑나눔 캠프, 희귀난치병 환자 돋기 등이 펼쳐졌다.

'함께하는 세상'은 장애인 지원 사업이다. 이 분야의 활동으로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대회,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함께하는 실천'은 자원봉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봉사단 구성과 활동, 고객봉사단, Junior Achievement 프로그램, 결연 후원 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함께하는 네트워크'는 각종 NGO·NPO 단체와 연계를 통한 활동이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글로벌케어, 월드비전, 성동자활후견기관 등과 실질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Giving Expo 2003에 참가했으며, 여러 NGO·NPO 를 후원 협찬했다.

'함께하는 서비스'는 이동통신을 이용해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 SK텔레콤만의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고객과 함께 아름다운 통화, 사랑의 자선냄비, 콜 플러스 사랑플러스, 어린친사링 등을 실시하였다.

'함께하는 내일'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해외·교육과 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들로 이라크 평화학교 재건 사업, 메세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SK텔레콤은 2003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개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04년에는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 및 NGO·NPO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함께하는 나눔

저소득 가정 지원

- 잘사는 사회란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저소득 가정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소득 격차는 나날이 벌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5만 명에 이르고 있고, 빈곤층이 무려 23%나 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 저소득 가정의 기초 생활이 보장되고 복지 시설이 마련되어 더는 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삶의 질이 갖춰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 SK텔레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들을 지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 가정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목욕을 시켜 드립니다.'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는 척수마비 중증 장애인과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직접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사랑의 목욕



부산 연제복지관 벤치마킹

SK텔레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3년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텔레콤 본사에서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Clean Service)’ 사업 출범식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할 월드비전에 기탁금 전액과 이동 목욕차량 4대를 전달했다.

SK텔레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부터다.

이후 2월에는 부산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목욕 서비스 활동 현장을 견학했다. 연제복지관이 목욕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진료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척수마비 중증 장애인, 뇌졸중 환자, 노환으로 고생하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다. 이들은 가정에 목욕 시설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 가족 대부분이 생업 전선에 나서야 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다. 정상적인 간병조차 힘든 상황에서 목욕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 환자의 고통은 극심했고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다. 특히 연제구는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달동네가 많아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 연제복지관은 2002년 4월부터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정방문 목욕 프로그램은 국내의 몇몇 사회복지 기관에서 실시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으나, 목욕차량내 보일러 설치 등에 시설 투자가 필요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다수의 인력이 동원되는 사업이다. 또한 계절과 대상자의 주거 위치에 따라 많은 한계가 있다.

연제복지관은 이런 점을 고민하다 가볍고 값싼 초경량 서비스 장비를 처음으로 개발해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SK텔레콤은 연제복지관의 이러한 성과를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월드비전에 사업을 의뢰, 시범지역 선정 및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전문 차량 제작 작업에 들어갔다.

초경량 목욕 차량 구비, 전국 4곳 시범 실시

이 사업에 투입된 목욕 차량은 한마디로 이동식 목욕탕이다. 이 차량은 연제복지관 재가복지팀이 보일러, 펌프, 철물, 호스, 주방설비회사 전문가들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해서 개발했다. 차량 내부에 물을 데울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을 갖추었고, 기존의 튜브식 환자용 욕조를 개조하여 샤워기와 배수 펌프기를 부착했다. 또한 기존의 목욕 장비가 이동이 불편하고, 가격이 비싼 것을 감안하여 욕조를 휠체어에 싣고 옮길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었다.

이 차량은 긴 호스와 튜브식 욕조를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월드비전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차량의 단점을 보완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



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현재 월드비전이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정선, 경북 감포, 울산시 동구, 부산시 연제구 등 네 곳이다.

강원도 정선의 경우 이 지역 일대가 폐광촌으로 변하면서 진폐 환자, 독거노인, 결손 가정, 장애인 등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회복지 기관이 없고 정부의 지원마저 미약해 질 높은 복지 서비스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산악 지역에 형성된 마을 환경으로 인하여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신속성, 이용률 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중 목욕탕 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 일반인들도 목욕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 돌아오는데 한나절이 걸릴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예 목욕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형편을 감안해 면사무소, 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목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 감포 일대인 경주시 감포, 양부, 양남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이곳 역시 질병, 장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면사무소와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를 선정했다. 목욕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수혜자 추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는 공단 지역으로 전체적인 소득 수준은 높은 편이나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바로 소외계층이 되는 약점에 노출되어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도시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 여성 취업률 증가 등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 능력



이 점점 감퇴하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동사무소 등의 추천을 받아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각 지역 수혜자는 정선 28세대, 강포 38세대, 울산 23세대, 부산 29세대 등이다. 목욕은 주 1회, 또는 월 2회 단위로 전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이·미용, 도시락 배달, 방문 간호, 병원 동행, 가사 도우미 파견, 물품 지원 등의 연계 서비스도 함께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혜자 호응 커 서비스 확대할 예정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대상자의 대부분은 혼자 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이들은 장기간의 병치료로 인해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가족들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조사해 보니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목욕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유는 거동이 불편해 대중 목욕탕 이용 불가, 가정 내 목욕 시설의 미비, 가족의 보살핌 부족 등이었다.

서비스를 이용한 수혜자들의 반응은 아주 놀라웠다.

“요즘엔 이런 시설 기구가 있으니 참으로 편리하다.”

“매번 와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니 호강하는 기분이다.”

“자원봉사자 새댁들이 참으로 고맙다.”

“외롭고 심심한데 목욕하는 날이 기다려진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한편으로는

“온천처럼 몸을 푹 담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날이 추울 때는 목욕하기에 조금 춥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가 실시되자 처음에는 많은 수혜자들이 부끄러워하며 거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되고 자원봉사자들의 따스한 정이 전달되자 일행을 반기며 목욕하는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주위에 목욕이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 주는 수혜자들도 있어 전반적인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정보 부족으로 대상자 모집과 선정에 한계가 있다. 이는 홍보와 이웃간의 정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좀 더 원활한 목욕 서비스를 위해서 장비의 개선도 필요하다. 체격이 큰 대상자의 경우 욕조가 비좁아 불편이 따르므로 더 긴 튜브 욕조의 개발이 요청되었다.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수급과 참여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또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의 문제, 질병 관리 및 연계 치료, 장비의 확충, 대상 지역의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 월드비전은?

1950년 6·25전쟁 중에 겪은 인연으로 한국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던 미국인 밥 피얼스 목사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피난지 부산에서 전쟁 아와 미망인을 돋는 사업을 하면서 비롯되었다.

1950년대에 인도와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구호 사업을 시작하여 1960, 70년대에는 아시아 외의 다른 대륙으로 확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월드비전은 UN, Unicef, WHO 등의 국제기관과 연대하여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돋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월드비전 한국은 1991년부터는 도움을 받는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후원국으로 바뀌어 해외 여러 국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1994년부터는 북한 동포를 돋는 긴급 구호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내외 구호·구제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17개국 38개 사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http://www.worldvision.or.kr>)

::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 부산 | 치매환자, 장애 사례
- 울산 | 장애 사례
- 강포 | 고령, 노환 사례
- 정선 | 장애, 치매환자 사례

● 부산 / 치매환자 사례

유00 씨(84세)는 고령으로 치매 증세가 심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하기 힘든 상황이다. 슬하에 4남 6녀를 두었으며 지금까지 자식들 집을 둑겨다니며 지내다 지금은 이혼하여 혼자 사는 큰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 동안 대상자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딸들이 와서 2개월 간격으로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유급 봉사자에게 목욕을 시켜보기도 했지만 대상자의 치매 증세가 심해 계속되지 못했다.

큰아들이 택시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목욕 차량을 보고 신청을 하여 복지관에서 방문을 했는데 대상자의 육설과 거부 반응으로 인해 첫 방문 목욕은 너무나 힘겹게 끝났다. 첫 목욕 서비스는 힘겨웠지만 지속적으로 목욕 서비스가 이어짐에 따라 지금은 대상자가 목욕하는 날만 기다릴 정도로 호전되었다. 큰아들은 “방문 목욕으로 인해 딸들의 수고를 덜어주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항상 몸에서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 목욕을 시켜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며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 부산 / 장애 사례

의문사한 아들로 인해 충격을 받아 쓰러지신 이 할머니. 이 할머니는 슬하에 아들을 둘 두었으나, 작은아들이 2년 전에 의문의 죽임을 당해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 되었다. 큰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의식이 불분명하여 부양을 책임질 자녀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병 수발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였다. 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있어 얼마간의 의료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할아버지가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할머니가 퇴원한 후 목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할아버지는 교회 전도사로부터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를 소개받았고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였고, 재활 치료를 하지 못해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침대에서 누워 지냈다. 머리는 너무 많이 자라 있었고 세면 및 목욕을 오랫동안 못한 상태라 참으로 촉은해 보였다.

목욕 서비스를 하는 동안 여러 번 말을 건네보았는데 할머니는 의식은 있으나 전혀 대답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아들의 죽음으로 상심이 커서 명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목욕 서비스를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서비스를 받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따스한 시선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할머니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변함없이 목욕 서비스가 진행되었고 5개월 후 대상자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



겼다.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고 봉사자들과 대화도 잘 하시고 때론 농담을 건네시곤 하셨다. 목욕이 끝나면 자원봉사자에게 웃으시며 ‘고마워요’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 “나를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봉사자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딸이 생긴 것 같다면 마냥 좋아하신다.

할머니에게 웃음을 준 봉사자들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 지금까지 목욕을 시켜 드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대상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한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정성이 할머니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목욕 서비스는 대상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환자 및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대상자의 목욕 문제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은 가족 혹은 일부 가족이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목욕은 너무 큰 부담감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렇게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는 가족들이 겪게 되는 부담감도 덜어주고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과 외형적 변화, 심리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 울산 / 장애 사례

강00 씨(52세, 지체장애1급, 수급권자)는 1952년 전북에서 4녀 중 차녀로 태어나 농사꾼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초등학교를 다

니다가 자퇴하였으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해 왔다.

스물네 살에 결혼하여 슬하에 딸들을 두었다. 그러나 큰딸이 세 살이 되던 해에 성격이 맞지 않는 이유로 남편이 기출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혼자서 다방을 운영하다 1989년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그후 2~3년을 주기로 수차례 쓰러졌다.

현재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고 자가 치료가 불가능해 주위의 도움이 있어야만 의식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강00 씨가 처음 발병한 후 작은딸은 강00 씨의 막내 여동생에게 맡겨졌고, 큰딸(1989년 당시 초등학생)이 대상을 돌보며 생활을 꾸려왔다.

그러나 점차 병이 진행되면서 식사, 대소변 돋기, 기저귀 교환 등 부양이 늘어나자 1994년 큰딸은 기출을 했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2년 후 작은 딸도 막내 여동생 집에서 기출한 이후 소식이 없다.

현재 강00 씨는 셋째 여동생 집 근처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1일 2회 여동생이 직접 방문하여 식사를 챙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간신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근처 복지관의 의뢰로 2003년 3월 4일 첫 면담을 하였는데, 대상자가 신체 처리 능력이 전혀 없어서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하루 종일 혼자 누워 지내다 보니 사회적 교류가 없어 무표정한

::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 부산 | 치매환자, 장애 사례
- 울산 | 장애 사례
- 감포 | 고령, 노환 사례
- 정선 | 장애, 치매환자 사례

모습이었다. 셋째 여동생은 오랜 간병으로 인해 심리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보호자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2주 1회 목욕 서비스 및 1회의 방문 조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강00 씨는 처음에는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점차 신체적 청결을 물론, 자원봉사자들과 교류를 통하여 웃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며 의사를 표현하는 등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 감포 / 고령, 노환 사례

고령의 최00 씨는 노환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는 거동을 하지 못한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어 목욕을 시켜 드리기 힘든 형편이라 그 동안 목욕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 할아버지를 목욕시킬 때, 약간의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몇 차례 목욕 서비스를 받은 뒤에는 전담 직원과 봉사자들의 정성이 통하였는지 지금은 목욕을 마친 후 “왜 이제 왔노?” 하시며 좋아하신다.

할아버지는 다음에 또 와서 목욕을 시켜달라는 말을 하시곤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며느리도 목욕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자신을 대신해 시아버지에게 목욕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를 보면서 받은 만큼 베풀기 위해 지금

도 열심히 봉사를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 정선 / 장애 사례

안00 씨(여, 69세, 뇌병변장애)는 14년 전 중풍으로 오른쪽 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몇 년 전 뇌 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왼쪽이 마비된 상태다. 이로 인해 왼쪽 발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 밖에 나가지 못해 방 안에서 대소변을 해결하고 있다.

대상자는 2남 1녀를 두었으나 1남 1녀는 결혼하여 외지에서 살고 있다. 현재는 남편과 막내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직업이 없어 고정 수입이 없고 남편도 73세로 탄광 근무 중의 사고로 늑막염이 발병하여 거동이 불편하며,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는 공적 부조와 월드비전에서 제공하는 가정 결연 생계비로 꾸려나가고 있다.

대상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안씨의 신체적인 청결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한옥의 불편한 구조로 인해 가족이 할머니를 목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씨는 원래 깔끔한 성격으로 씻기를 좋아하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거동이 불가능하여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목욕 서비스를 받고서부터 대상자는 신체 청결과 함께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남편 역시 목욕 서비스로 인해 아내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하였다며 기뻐했다.

● 정선 / 치매환자 사례

정씨는 결혼하여 자녀를 다섯 두었다. 그러나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정신 장애를 얻어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처음 가정방문을 했을 때 정씨는 골방에 갇힌 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다. 24시간 갇힌 채로 대소변을 방안에서 해결하고 있을 지경으로 그 증세가 심각하였다. 정씨의 보호자는 70세가 훨씬 넘은 노모였다. 정씨의 어머니는 정씨뿐 아니라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은 큰아들과 교통사고로 정신 장애를 갖게 된 작은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으로 무척이나 지쳐 있었다.

정씨는 목욕을 받아보기는커녕 옷도 몇 년 동안 갈아입지 않은 듯이 보였으며, 집안 가득 악취가 풍겼다. 첫 목욕은 강제로 이루어졌다. 목욕 서비스의 원칙은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만,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이 좋다는 점과 목욕을 반드시 시켜야만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제로 목욕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목욕 후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주고 방을 깨끗이 치워주자 다른 세상 사람이 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목욕 서비스를 여러 번 받은 후에도 정씨는 봉사자들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목욕을 할 때마다 소리소리 지르며 목욕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봉사자들이 찾아가면 욕실에 가서 목욕도 하고 암전하게 앓아서 미용 서비스도 받는다.

노모는 자녀를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에 보낼 형편도 못되고 자식이라 보살펴야 하지만 경제적 여력도, 기력도 없어서 포기한 상태였는데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를 통해 목욕뿐 아니라 가사 서비스까지 받게 되어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며 기뻐하셨다.

가끔씩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정씨네 집에 가져다 주었다. 깨끗하게 청소된 방안에 새 이불을 사용하고 새 옷을 입으면서 집안에 악취가 점점 사라졌다. 봉사자들의 끊임없는 교육과 설득으로 정씨는 요즘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서 대변을 해결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제는 정씨의 방문이 밖으로 잠기는 일도 줄었다. 무엇보다 정씨의 성격이 많이 온순해졌다. 목욕 서비스는 단순히 신체상의 청결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깨끗해지면 대상자들의 성격도 온순해지는 것을 정씨뿐 아니라 많은 가정들을 돌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정씨네 가족은 봉사자들에게 우리의 작은 힘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 ••

SK텔레콤은 그 동안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의료 전문 NPO인 글로벌케어와 함께 하고 있는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도 그 중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의료 혜택





2003년 한 해 동안 5,300여 명 수혜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보건 정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노숙자 등 많은 이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비록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방이 미흡하여 무방비 상태로 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지난 1999년부터 SK텔레콤이 의료 전문 NPO인 글로벌케어와 함께 전개하고 있는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는 바로 이런 소외계층,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로, 전문 이동 진료팀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진료 대상자들의 육체적인 건강 증진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케어의 구체적인 활동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전문 진료팀을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소외계층과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경제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충을 상담해 주고,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다. 이때 개별적인 진료 일지를 만들어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병행한다.

특히 2003년 7월부터는 한의사들이 참여하여 양·한방 협진을 통한 전문적인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에는 노인 526명, 아동 94명, 기지촌 여성 528명, 외국인 노동자 356명, 건강검진센터 등 2,666명, 노숙자 1,216명 등 총 5,386명이 혜택을 받았다.

SK텔레콤은 2003년 무료 이동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케어에 1억 원을 기탁하였다. 글로벌케어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국내 사업으로는 기지촌 여성, 장애인,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이동진료를 들 수 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지촌 여성들은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단체는 극소수이며, 이들에게 무료 이



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는 글로벌케어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다.

전국 120여 개 회원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글로벌케어는 전문 이동 진료팀을 구성,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정밀 검사, 진단,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들의 건강 회복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심리적·사회적 재활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1회에 35명씩, 월 3회의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장애인들은 몸에 질병이 있어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기 쉽다. 글로벌케어는 2000년부터 '더불어 사는 집' '희망맹아원' '작은 자리' '해뜨는 집' '한우리' 등의 비인가 장애인 시설 의탁자에 대한 진료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무의탁 노인들 역시 신체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글로벌케어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인천 선학동 등지에서 독거노인 및 영세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1회 10~15 가정을 방문 진료하고 있다. 2001년 3월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재가 무의탁 노인을 위한 치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소년소녀 가장들도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케어는 무료 진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다. 지금까지 총 300여 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했고 치과, 소아과 등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100여 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회원 병원을 연결하여 계속해서 무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터, 일산 세기성교회 등에서 1회당 2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진료한다. 인천에서는 동남아시아인, 일산에서는 태국과 아프리카인들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 을지로 입구 역과 신도림 역에 '무료 건강검진 센터'를 열어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 역에 설치된 이 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서 6



시 사이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혈당 검사, 체성분 검사, 혈압 측정, 의료 상담, 교육 등 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결핵 퇴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에는 전국적으로 60 개의 결핵 요양소와 13개의 도단위 결핵 병원이 있지만, 식량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결핵 약을 자체적으로 보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글로벌케어는 유진 벨 재단과 협력하여 결핵 치료 장비 및 기기, 이동 엑스레이 검진차 등의 의료 기구, 북한 육아원 의약품 보급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해외 사업으로는 베트남, 몽골, 아프가니스탄 등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으며, 전쟁과 자연 재해로 고통 받는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에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999년부터 지원해 온 소외계층 대상 이동진료 서비스는 2003년 들어 그 수혜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양·한방 협진 도입 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글로벌케어는 ?

198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기독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기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1997년 2월에 설립한 의료봉사 민간 단체다.

글로벌케어는 현재 독거노인, 기지촌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 및 방문 진료 사업, 무의탁 노인 의치 사업, 소년소녀 가장 무료 진료, 수해 및 산불 지역의 긴급 구호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국내 사업뿐 아니라 북한 동포를 위한 결핵 약 기증 사업, 무의탁 노인과 해외 아동(베트남)의 결연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이 대부분 선진국의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 받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PO 인 것과는 달리 글로벌케어는 한국에서 태동한 자생적인 의료 NPO로 한국으로부터 국제 사회를 향해 나아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http://www.globalcare.or.kr>)

:: 국내 봉사 사례

병원보다 글로벌케어가 더 좋아요

조인영 _ 인천 송현샘교회 목사

의료봉사 단체 글로벌케어와 우리 지역의 첫 만남이 있었던 것은 2000년 9월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송림 3·5동 지역과 송현동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진료와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오후에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이 작고 평범한 만남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진료 날이면 반기운 얼굴로 찾아오는 분들과의 만남으로 사랑방 모임 같이 훈훈하다. 주로 찾아오는 30여 분 중 절반은 일반 병원에 가도 약값이 무료인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인데도 이들은 아날을 기다린다. 왜일까? 서로 웃고 사탕과 음료수를 들면서 이야기 꽂을 피우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어느새 자기 차례가 오고… 이 곳의 진료 풍경은 일반 병원의 사무적인 분위기와는 매우 다르다.

진료팀은 모두 신앙인이라서 이 분들의 가슴과 눈과 손, 말투에는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에 어르신들은 벌써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매우 흐뭇해한다. 외로운 분들이 어디서 이런 사랑을 느끼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의료 혜택을 누리겠는가. 이미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은지라 특별한 약효를 볼 수 없는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약이 좋다는 기분 좋은 말을 자주 한다.

오후 방문 진료 후에는 증세의 경중에 따라 글로벌케어의 소개로 치과, 일반외과, 내과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다. 의료보험증이 있으나 병원비 부담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보험증의 효력 상실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들을 계속 심어나간다.

몇 년 동안 누워 계시던 C할아버지께서, 거동이 자유로워질 정도로 회복된 것은 모두 글로벌케어 덕분이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셋방을 얻어 사시는 G씨도 골다공증으로 하반신을 못 썼지만 글로벌케어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L씨는 등에 생긴 종양으로 7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S씨는 치료를 받으려고 의정부치과에까지 기기도 했다.

언제나 조용한 언행과 잔잔한 미소와 있는 듯 없는 듯한 글로벌케어의 의료진 뒤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느낀다. 우리 지역을 기랑비처럼 적시고 어루만지는 그 분들의 손길은 우리 마음과 우리 지역을 사랑으로, 희망으로 채워주고 있다. 함께 가는 길벗인 글로벌케어 모든 분들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기득하기를 빈다.

:: 해외 봉사 사례

베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던 이라크 의료봉사

김 경 석 _ 동수원한방병원 전공의

내가 만난 그들 대부분은 분노의 화신도, 성전을 외치는 자살 테러단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디기 전에
는 몰랐다. 그곳에도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많은 보통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이 사는 이상 한국이나 이라크에나
고단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생활인의 일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단한 일상에서 찾아오는 만성 피로, 소화 불량, 불면, 두통, 유통 심지어 알코올 남용까지, 사람 사는 데
서는 어디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증상을 호소하며 나를 찾아왔다.

이라크 의료 봉사를 결심하면서 나는 전쟁 중에 부상한 환자들,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한의사로서 무
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라크에서의 봉사 활동은 그런 일련의 내 생각들이 얼마나 이곳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했다.

한편으론 그 동안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현실들을 외면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역을 불문하고 이 세상 어딘가에는 한의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지만 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훨씬 많으리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평가를 하던 어느 날 밤 현지의 한 선교사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와서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 무엇을 배워갈 것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거라고.

이라크에서의 의료 봉사의 경험은 내게 미처 갈무리하지도 못할 정도의 많은 질문과 교훈을 던져주었다. 그 중에
서도 가장 기슴속에 남는 교훈은 오르단의 한 목사님이 떠나는 나의 손에 선물로 쥐어준 사진첩에 쓰인 글귀다.

“너는 내가 안일한 일상을 꿈꿀 때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잊고 싶어도 자꾸 애틋한 피불
이처럼 끝내 너는 나의 부끄러움을 일깨워준다.”

•• 2003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 ••

SK텔레콤은 2003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캠퍼스에서 '2003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년소녀 가장은 물론 자폐아 등의 장애 아동까지 한데 어울린 열린 캠프였습니다. 특히 원광대학교, 한국예술치료학회와 함께 진행하여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의 한가족 만들기



예술치료 프로그램 도입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사랑나눔 캠프는 과거 대회의 참가 대상자를 소년소녀 가장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자폐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 실시했다. 또한 작년까지 행사 명칭이 '사랑희망 캠프' 였으나 올해는 '사랑나눔 캠프'로 바꾸었다.

장애 청소년과 소년소녀 가장들이 서로 사랑을 배풀고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마련한 이 캠프는 원광대학교, 한국예술치료학회와 함께 산학협동으로 진행하여 사회복지 사업의 새로운 행사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사랑나눔 캠프는 전국 복지기관에 소속된 장애 청소년 120명과 소년소녀 가장 120명, 이들과 한가족을 이루어 행사를 같이 한 사회복지사, 예술치료사, 자원봉사자 등 총 700여 명이 참가했다.

개막 축하공연과 원광대학교 총장 주최의 만찬으로 시작된 첫날에 이어 둘쨋날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장애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사회복지사, 예술치료사 등으로 4인 한가족을 이루어 가족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로써 늘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는 장애 청소년과 소년소녀 가장 등 두 계층이 서로 돋고 이해하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공동 예술활동으로 그림 그리기, 재활용품 활용 작품 만들기, 점토바닥에서 무용하기 등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 의료진이 종합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게 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개별 상담과 성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미술, 도예, 음악, 연극, 풍물 등 다양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예술치료란 예술 각 분야를 통해 심리학적인 분석 과정과 창작 과정을 병행하여 각기 다른 방법의 다양한 치료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신 치료는 물론 재활 및 특수교육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대체 의학이다.

이 밖에 행사 종료 전날에는 예술활동 발표회 및 환송의 밤 행사로 촛불 의식, 연극, 무용, 캠프파이어가 펼쳐졌다. 마지막 날은 시상식과 각 대표자의 인사말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한데 어울린 이색 프로그램

2003 사랑나눔 캠프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평등권을 몸소 느끼게 해줌으로써 장애·비장애인의 한가족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하였다. 이와 함께 역경에 처해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스포츠댄스, 연기, 요리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2003 사랑나눔 캠프 사진전이 사진영상 그룹 '종이거울'의 협조로 2003년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서울 중구 충정로 문화일보사 2층 문화일보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행사 관련 사진 65점이 전시되었다.

:: 사랑나눔 캠프 인터뷰

사랑나눔의 한마당, 더 크게 키울 겁니다

정동훈 _ 2003 SK텔레콤 사랑나눔캠프 본부장, 원광대 예술치료학과 교수

'매회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사랑나눔 캠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의 본부장으로 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진두 지휘한 정동훈(54) 원광대 예술치료학과 주임교수를 예술치료로 이끈 사람은 바로 어머니다. 7년 전 도에 작품 활동을 하던 그는 14년 전 뇌출증으로 반신불구가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작품 구경을 하던 중, 움직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흙을 빚으려 애쓰시는 모습을 보았다.

뭔가 하려는 의지를 갖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신 어머니의 행동을 발견, 예술을 통해 재활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 1998년 도미, 발전된 예술치료 자료를 탐구·수집했고, 1999년 원광대에 건의해 2000년 예술치료학과를 개설했다.

현재 익산시 힘라면 함열리에는 1998년 설립한 정동훈 미술치료연구소가 있다. 이곳에서 정교수는 한 달에 한 번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이 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음악회를 열고 도에 작업기회를 마련해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특히 그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원광대 부속병원이 2002년 설립한 예술치료센터에서 장애인을 직접 치료했다. 이때 장애 아동과 부모들을 위한 피서지가 마땅치 않고 일반 아동 캠프에 서는 장애 아동과 같이하는 것을 꺼려해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장애 아동이 즐길 수 있는 캠프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모금을 시작, 지난 해부터 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전문가가 접근해 치료하는 것보다 일반 아동들과 직접 접촉, 통합된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큰 치료 효과가 있다"며 "전국의 장애인과 소외된 계층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Ablenews 장미형 기자 |

:: 사랑나눔 캠프 참가 후기

열린 교육을 위한 소중한 씨앗

박미숙 _ 인천시 연수구 동심원 생활재활 교사

사실 캠프가 열리는 익산으로 떠나는 아침까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5박 6일이라는 긴 일정이 마음을 억압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잘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익산 원광대학교에 짐을 풀었다. 그런데 막상 교육에 임해 보니 주입식 교육이 아닌, 너무나 완벽한 체계와 몸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로서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번 사랑나눔 캠프는 장애 아동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장애 아동은 나눔이반, 소년소녀 기장은 사랑이반, 복지사들은 배움이반, 예술치료사들은 한마음반으로 구분되었다. 다양한 예술치료를 통해 정신적 안정과 자기 계발 및 기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심상치료, 동작치료 등 많은 치료법 중에서 연극치료를 선택하였다. 즉흥 연기를 통해 대사와 각본 없이 즉석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표현이 거리낌없이 이어졌고,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빠듯하고 힘들었지만, 어쩌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 기보다는 나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사실 우리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 타전에서 너무나도 억압된 교육을 실행하고 있지 않나 싶다.

쉽게 순간적으로 "안돼!"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우리 아이들을 정해진 시각에 맞춰 저울질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무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이들도 움츠린 채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번 교육은 무엇보다도 나를, 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상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기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이 캠프를 통해 동심원 장애 아동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동심원 파이팅!

:: 사랑나눔 캠프 참가 후기

자유로운 교감 나눈 값진 시간

권혜진_SK텔레콤 재무관리실 구매팀 사원

학교 다닐 때 '인터랙트'라는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면서부터는 봉사 활동에 나서기가 어려웠다. 우선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아른이 되어가면서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번 사랑나눔 캠프도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었다. 요즘 늘 어나는 장애 아동들을 길거리에서나 차 안에서 만났을 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 아동들과 생활하면서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서였다.

사랑나눔 캠프는 장애 아동, 소년소녀 가장, 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가족을 이뤄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치료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생활하는 캠프다. 보조교사는 가족을 도와주고 자원봉사자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활동했다. SK텔레콤 직원들도 이번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은 원광대학교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캠프 시작 전날 모여서 행사를 준비했으나, 주최측의 척오로 뒤늦게 도착한 우리들은 마땅히 배정된 일이 없었다. 다들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할 일이 없어 어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 휴가까지 내면서 왔는데 막상 할 일을 찾지 못하자 불평이 산만큼 쌓여갔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둘쨋 날 행사가 끝나고 자원봉사자들과 뒤풀이를 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봉사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하는 활동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부터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캠프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오후 무렵 진행 본부에서 한 가족이 장애 아동을 돌보기 힘들다며 자원봉사자를 요청했고 그 가족에 합류하게 되었다. 나를 좋아했을까? 치료사도 다루기 힘든 아동이라 많은 도움은 줄 수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들과 함께 음악치료, 미술치료, 진흙놀이 등 행사를 하면서 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캠프가 끝날 무렵 나는 마지막에 헤어질 때 서로 섭섭해하고 우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출발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참으로 후회스러운 행동이 아니었나 싶다. 헤어짐이 아쉬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결국 나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우리 집은 원광대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나는 캠프가 끝난 뒤 남은 휴가 기간을 이용해 가족들과 휴양림에 다녀왔다. 마침 그곳에서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와 엄마를 만났다.

캠프에 다녀온 덕분인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빙거운 마음에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다행히 엄마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잡고 “참 예쁘네!” 하고 이야기를 해주니 옆에서 웃어주는 아이 엄마와 아이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번 캠프가 아니었다면 아마 생각지도 못할 그런 행동이었다.

평소 장애 아동과 부모를 보면 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할까 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고 모르는 척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함께 미주하며 웃어주고 마음의 장벽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교감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이다.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을 구성할 때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행사가 끝난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사회공헌이란 물질적 후원도 필요하지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신적인 후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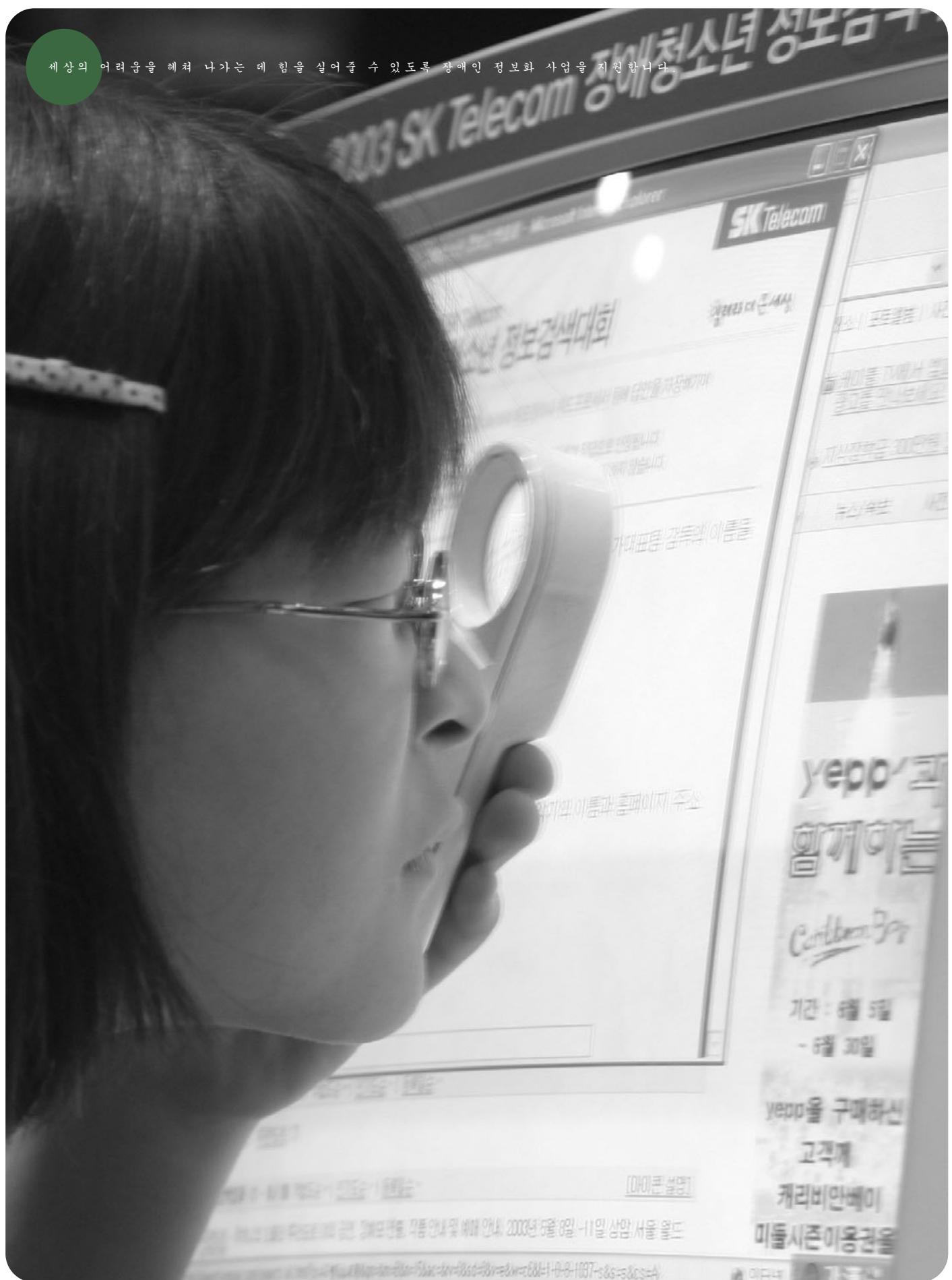
다른 회사에서 한 행사도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라서 더 좋은 캠프가 된 것 같다. 다음에 이런 캠프가 있다면 다시 참여할 것이다. 참여해 많이 사랑해 주고 행사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고 싶다. 봉사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참여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며 행복하게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함께하는 세상

장애인 지원

- 보물섬을 찾아갈 때 보물지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세상 속에서 누구나 누리고 있는 정보화에서 비켜난 이웃이 있습니다.
- 2003년 현재 전국의 장애인들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누리는 정보화 생활의 질은 너무나 열악하기만 합니다.
- 현대 사회에서 정보 수준의 차이는 곧 삶의 질의 차이로 이어질 만큼 정보화는 생활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보화야말로 일반인보다 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습니다.
- SK텔레콤은 장애인들이 정보화를 통해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야말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해쳐 나가는 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장애인 정보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2003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

열려라, 더 큰 세상!

1999년 처음 시작하여 5회째를 맞는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가 2003년 6월 '열려라 더 큰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되었습니다. 여느 청소년 못지않게 사이버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이 행사는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열려라, 더 큰 세상!



정보의 바다에는 장애가 없다

SK텔레콤은 장애인 정보화 사업에 그 어떤 기업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전국 특수학교에 장애 유형별로 특수 장비를 보급하고,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립의 용기를 심어왔다.

그 중에서도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는 장애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길러 자신감을 갖고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지난 5년간 대회를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왔다.

장애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축제의 장 2003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가 2003년 6월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 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렸다.

대회에 앞서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책임은 정부와 기업뿐만이 아닌 바로 청소년 여러분에게 있다”며, “전국의 137 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청소년 모두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경쟁력을 키워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들을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그리고 움직일 수 없지만, 정보의 바다에 장애가 없듯이 희망과 도전에도 장애는 없다.’는 취지로 개최된 이 행사는 본선 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 137개 특수학교의 장애 청소년들이 2회의 온라인 예선을 치렀다.

이를 통해 최종 선발된 123팀 246명의 본선 진출자는 장애 분야에 따라 정신지체(60 팀), 지체부자유(26팀), 청각장애(21팀), 시각장애(16팀)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열띤 경쟁 속에서 기량을 펼쳤다.

이 대회는 정보검색 대회 전문가가 출제한 단답형 20문제를 1시간 안에 풀어내는데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얻는 팀에게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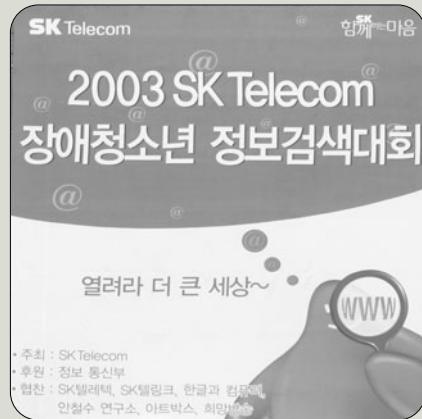
청각장애팀에겐 수화로, 시각장애팀에게는 특수 점자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암시인 시각장애팀을 위한 대형 LCD 모니터를 설치했다. 80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모든 참가자들이 장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행사는 2002년 설립된 최초의 장애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DNN 꿈샘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행사 전반에 대한 장애 청소년들의 직·간접 참여 과정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 방송되었다.

검색대회 식후 행사에서는 오은영의 ‘마술 퍼포먼스’, 손가락 장애를 극복하고 피아니스트로 활동중인 이희아 양의 연주, 장애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댄스 그룹 새하 HOT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이 열띤 호응 속에 펼쳐졌다.

총 2,340만 원의 장학금 수여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상인 대상 수상팀과 4개 장애 분야별로 금·은·동상 각 1 팀씩 총 13개 팀이 선정돼 총 2,34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 대상과 각 장애 분야별 금상 수상자 및 지도교사에게 선진 문화 체험을 위한 해외 연수 기회를 주었으며, 해





당 학교에는 최고급 사양의 PC를 제공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는 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로 지정되는 등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장애 청소년 정보화 지원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회는 장애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보화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경진대회로 그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참여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병행하여 장애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성 행사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를 통해 장애 청소년들은 정보화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들이 사회 진출시 필요한 도전정신과 패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장애가 가로막지 못하는 열린 사이버 세상을 꿈꾸며, SK텔레콤의 장애 청소년 정보화 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수상 내역 |

구분		지도교사	학생	비고
대상	1팀	상파/상금 100만 원/해외연수	상장/상금 200만 원/해외연수	대상학교에 PC 지원
금상	각 영역별 1팀(총4팀)	상파/상금 50만 원/해외연수	상장/상금 100만 원/해외연수	금상학교에 PC 지원
은상	각 영역별 1팀(총4팀)	상파/상금 30만 원	상장/상금 50만 원	
동상	각 영역별 1팀(총4팀)	상파/상금 20만 원	상장/상금 30만 원	
계	총 13팀	13명/500만 원	26명/1,840만 원	총 39명/총 2,340만 원

| 수상자 명단 |

장애 내역	수상	학교명	학생명
대상		광주세광학교	윤은진, 류난희
지체장애	금상	동암재활학교	한지훈, 정재원
	은상	주몽학교	박건희, 유상희
	동상	승덕학교	김준환, 한희규
정신장애	금상	구미혜당학교	김양우, 서호진
	은상	동암재활학교	이다빈, 김연하
	동상	한국선진학교	정다운, 김영재
청각장애	금상	서울삼성학교	박하나, 김형건
	은상	서울야학학교	배진주, 송민영
	동상	광주인화학교	김미연, 고성연
시각장애	금상	서울맹아학교	김혜일, 이상영
	은상	대전맹아학교	양진석, 임수연
	동상	은광학교	이 일, 구제염

:: 대상 수상자 인터뷰

장애 딛고 세상 속으로 훨훨

2003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대상 윤은진 양

2004년 2월 청와대로부터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에 선정된 윤은진 양(18). 그는 'SK텔레콤 2003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대상 수상의 주인공이다. 선천성 약시라 는 장애를 겪고 있는 탓에 정보검색 대회 내내 컴퓨터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고 문제를 풀어야 했다. 손놀림이 불편한 지체장애의 경우나 화면을 보고 읽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은 인터넷의 세계에서도 장애를 겪는다는 얘기다.

2001~2002년 지방장애인대회 컴퓨터 속기부문 금상, 제

14회 전국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우수상, 제6회 광주학생

학부모 사이버 독후감대회 금상 등 신체의 장애를 '세상과의 벽'으로 여기지 않는 은진 양의 진면목이 보이는 기록들이다.

"어렵게 자라면서도 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으로 항상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어요. 그에 못지않게 솔선수범 정신과 독립심도 남다르고요. 학생회 회장의 책임까지 성실히 수행하도록 은진이는 스스로 밀고 또 당겼습니다."

'21세기 우수인재' 선발에 은진 양을 추천한 광주세광학교 서성연 선생님의 얘기다.

장학금 300만 원과 대통령 메달이 수여된 고등학교 졸업식, 그에 이어 청와대 리셉션에까지 초대받은 즐거움.

그런데 알고 보니 은진 양이 정작 소중하게 여길만한 기쁨이 또 하나 있었다.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광주 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수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

"앞으로 훌륭한 특수교사가 되어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돋고 싶어요."

대학생 은진 양이 첫순기락에 꿇는 소망이다.

은진 양이 정말 선생님이 되는 그 날, 우리는 분명 또 한 명의 은진 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스승을 빼닮은 아름다운 제자를 말이다.



• •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 • •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을 도와주는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을 지원합니다. 서울 성동지활후견기관의 주관으로 서울 성동교육청 산하 16개 초등학교, 31개 학급에 특수학급 보조교사를 파견해 장애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장을 위한 따뜻한 손길





특수학급 보조교사 14명 파견

장애 아동은 학교 생활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장애 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 활동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SK텔레콤은 지난 2003년 3월 12일

성동구청에서 '특수학급 보조교사 사업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어 3월 24일에는 무학·옥수·옥정·경수 초교와 광희중학교에 6명의 특수학급 보조교사를 1차로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4월 7일에는 무학·옥정 초교에서 장애 아동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4월 8일에서 11일까지는 서울 성동자활후견기관에서 특수교육 보조원 10명에 대해 2차 교육을 실시했다. 4월 12일에는 경수·옥수 초교에서 장애 아동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수학급 보조교사 사업단은 총 3차에 걸쳐 22명의 특수학급 보조교사 교육을 실시했으며 신자·무학·사근·금북·지양·금호 초교 등에 3차에 걸쳐 14명의 보조교사를 파견했다. 6월 5일과 12일에는 28명의 특수학급 보조교사가 강서, 관악·봉천, 마포, 성동 등의 지역에서 2회에 걸쳐 연합으로 장애 아동 성교육을 진행하였다.

현재 SK텔레콤은 총 9개 초등학교에 13명의 특수학급 보조교사를, 1개 중학교에 1명의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저소득 실직 여성 가장들도 특수학급 보조교사로 선발해 이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돋고 있다.



비장애인 아동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에 주력

SK텔레콤의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은 보조교사 교육, 사례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학부모, 담임교사, 특수교사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실시하며, 이때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 사업은 장애 아동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비장애인 아동 및 일반 교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 장애 아동이 비장애인 아동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장애 아동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실직 여성 가정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자활 자립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장애 아동 착석 지도(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기), 장애 아동 수업 보조(집중하기, 책 펴기) 등의 원적학급 보조가 있다. 특수학급 수업 보조, 특수교사 장애 아동 개별 학습 보조 등의 특수학급 보조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장애 아동 신변처리 지원, 예절 지도 등의 생활 지원, 장애 아동 급식 지원, 통학 지원, 방과후 음악 및 미술 치료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장애 아동들의 학교 생활 적응력이 높아지게 향상되었으며, 사회에 대한 연대 의식도 고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친화력이 높아져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얻는 등 장애 아동들의 적응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003년의 사업 수행 평가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을 2004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 운영 후기

더 많은 특수학급이 보조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민정_서울 성동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에서 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실직 여성들의 일자

리 창출과 전문성 강화이고, 둘째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습 지원과 자원 인력의 확보다.

장애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교육 현장은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특수교사를 증원해야겠지만 중·단기적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의 경우, 2003년 4월부터 강서·관악·마포·성동 지역의 3개 통합 어린이집, 2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특수학교에서

40여 명의 통합교육 보조원들이 장애 아동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우선 통합교육 보조원의 밀착된 1:1 지도를 통해 장애 아동들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

아동들은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체육 시간과 미술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학습의 질이 높아졌다. 또한 상호 작용

을 통하여 일반 학급 아동들이 장애 친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이 또래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보조원이 적절하게 중재함으로써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나아가 부모, 특수교사, 통합교사, 치료교사들이 장애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애 아동들의 학습

효과가 훨씬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조원은 좀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중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애 아동의 부모는 아동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전반적인 정보를 보조원을 통

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상시적인 의사 소통은 장애 아동들의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성과는 2003년 11월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81.3%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

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75%가 보조원 배치에 찬성하였다.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9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라운 성과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합교육 보조원의 활동은 장애 아동들이 일반 학교에서 똑같이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통합교육 보조원이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장애 아동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아동들의 학습권도 동시

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 실직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소득 증대와 자긍심 부여라는 두 가지

열매를 안겨주게 되었다. 앞으로 통합교육 보조원의 운영에 대하여 정교한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특수 학급 보조교사 체험기

미주야, 언젠가는 혼자서 할 수 있겠지?

방효숙_공덕초등학교 통합교육 보조원

미주는 아홉 살의 발달 지체아다. 말을 하지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 엄마와 함께 등교를 해서 1교시는 원반에서 수업을 하고 2교시에 특수반으로 온다. 많은 원반 친구들이 미주를 데리고 온다. 미주가 오면 가장 먼저 선생님께 인사를 하도록 한 다음 책가방을 의자에 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쉬는 시간에는 특수반의 다른 아이들과 놀게 한다. 노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

2교시가 되면 회장실에 가야 하기 때문에 회장실 그림 카드와 기저귀를 꺼내라고 말한다. 아직은 대소변 감각이 있지만 언젠가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림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내 밑에 미주는 사물함을 열어서 기저귀를 꺼내고 놀이터와 회장실, 두 종류의 카드 중 회장실 카드를 집어들고 혼자 문을 열고 회장실로 간다. 이 미 기저귀에 대소변을 본 상태지만 배변 훈련을 위해서 하루 두 번씩 변기에 앉는 연습을 한다. 15분 정도 앉아 있어야 하므로 그 동안 동요를 불러주면 아주 좋아하면서 같이 흥얼거린다. 배변이 끝나면 기저귀를 채워주고 옷도 입혀 주어야 한다.

실외활동을 할 차례다. 미주의 실내화를 운동화로 갈아신기고 놀이터 카드를 들고 운동장으로 나간다. 미주는 실내화를 벗을 수는 있지만 신지는 못한다. 운동장에서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게 한다. 다른 학생들이 운동하는 모습도 본다. 미주가 좋아하는 시간이다. 두 명의 동생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3교시에는 소근육 발달을 위해 선긋기와 색칠하기를 한다. 사물함에서 책과 크레파스 꺼내오는 것을 도와준다. 그 동안 배운 것을 설명해 준다. 또한 사물 카드를 이용해 이름 익히기를 수시로 한다. 어느 날 미주가 말을하게 되었을 때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계속해서 들려준다.

4교시에는 만들기와 교구를 이용해서 가위질 하기, 풀칠해 보기, 고리 던지기, 자리 옮기기, 소꿉장난 가지고 놀기 등을 번갈아 여러 번 한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언젠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계속하는 것이다.

모든 수업이 끝나면 손을 씻기고 앞치마를 입혀서 국그릇을 들고 식당으로 가게 한다. 미주가 뛰기 때문에 미리 일찍 가서 점심을 가져온다. 식판을 함께 들고 교실로 온다. 수저통과 수건을 가져오게 한 후 반찬은 포크로 찍어주고 국물을 혼자서 떠먹게 하면서 점심식사를 한다.

아홉 살 미주는 말도 할 수 없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2학년 4반 친구들은 미주가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든다. 그들은 미주를 좋아한다. 그들을 보면서 진정한 통합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조금씩 변하는 미주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본다. 머지않아 미주가 “선생님, 사랑해요!”하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빌면서.

함께하는 실천

구성원 참여 및 자원봉사

-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공존하고 성장해 나가는 기업, SK텔레콤은 이것이 21세기가 원하는 기업의 참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사회와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해야 사회 속에 진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SK텔레콤은 더욱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차별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수는 채 3%도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30~50%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 SK텔레콤은 전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사회봉사단은 이들의 관심과 열정이 사회 곳곳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원봉사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 SK텔레콤 사회봉사단 ••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의식이 강조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SK텔레콤 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봉사는 경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누다는 대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물결’의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와 함께 나눈다는 대원칙

기업의 사회봉사는 경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눈다는 대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런 경영 이념을 임직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취지로 'SK텔레콤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의 사회봉사가 기부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구성원이 모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전환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했던 이전의 봉사활동 방식에서 탈피해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에 사회봉사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겼다.

SK텔레콤 사회봉사단은 임직원이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증진하고, 구성원의 자긍심을 제고하여 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에 공헌하는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구현하여 우리 사회의 '나눔의 물결'의 초석이 되고자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에 장단기적으로 추진하던 SK텔레콤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봉사활동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6개 봉사단 43개 팀으로 구성

SK텔레콤 사회봉사단은 6개 봉사단과 43개 봉사팀으로 구성되었다. 6개 봉사단은 본사·수도권·부산·대구·서부·중부 봉사단이며, 각 봉사단 내에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였다. 봉사단은 사장을 단장으로 하고 CR전략실 사회공헌팀을 사무국으로 했다. 각 지역 봉사단에는 봉사단장과 선임책임자 1인(과장급)을 임명하고, 봉사팀 리더인 코디네이터 1인(대리급)을 둠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본사에는 각 실, 본부별로 1개 팀씩을 구성, 총 23개의 팀을 만들었다. 지역 봉사단에는 총 20개 팀으로 조직했으며, 이미 활동하고 있는 봉사팀은 사회봉사단으로 흡수하여 맥을 이어가게 했다.

봉사팀은 각 봉사팀 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구성된 인원의 활동 주기를 고려해 배치하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봉사팀을 지원자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봉사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봉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회에 그치는 봉사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야말로 자원봉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 사회복지 단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 사회봉사단의 6개 봉사단과 43개 봉사팀은 각 봉사팀 리더인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활동은 SK텔레콤 사회봉사단 사무국의 조직적인 활동 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각 팀의 구성원은 최소 1일 4시간 기준으로, 연간 총 24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1인당 2개월에 1회 이상 활동하게 했으며, 활동 기간은 최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다.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은 사무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봉사팀의 특성이나 자질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한다. 단, 지사 단위별로 구성된 봉사팀은 관련 NGO·NPO와 연계하여 새로운 봉사처나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각 봉사단의 선임책임자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해당 팀의 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코디네이터와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SK텔레콤 사회봉사단 구성원들은 SK텔레콤 사내 방송인 gbs의 기획 방송을 통해 ‘구성원 마인드 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봉사단 선임책임자와 각 봉사팀 코디네이터들에게는 봉사단 조직 운영과 실무에 관련한 외부 전문 인사 초청 강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참여 기회를 주어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자발적이고도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텔레콤 사회봉사단은 각 봉사팀별 물품비, 교통비 등 월간 봉사활동비를 실비로 지원받는다. 봉사활동을 업무로 인정하여 유급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후에는 적절한 평가와 포상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연말에 대상 1팀, 최우수 2팀, 우수 6팀 등 총 9개 우수 봉사팀을 선정하여 포상금과 해외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사적인 지원 아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봉사단은 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활동 분야도 청소년, 장애인, 환경보호, 지역사회 NGO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활동 프로그램이 각 부서의 특성과 부합되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이끌어 업무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실시

2003년 9월 12일 초특급 태풍 매미가 한반도 남부를 강타했다. 이 태풍으로 인해 120여 명이 사망하고 6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태풍 피해가 발생하자 즉시 대형 재난재양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 우선 각 지사별로 긴급 구호 절차를 점검하고 인력 동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신속한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단체와 연계를 통해 신속한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우선 피해가 심한 지역에 이재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였다.

긴급 구호물품 지원 현황

- 부산지역 | 김해·기장 —— 생수 1,000병/500만 원 상당 취사도구 및 쌀 10kg 200포대(명지초등학교)
 - 안남동·가덕도 —— 생수 800병/컵라면 1,500개/쌀 10kg 720포대(수재민 가구)
 - 마산(거제) —— 쌀 600포대/라면 200박스/생수 300박스(수재민 가구)
 - 고성(당항포) —— 세제류/밀반찬/휴지 등 구호물품 키트 850박스(수재민 가구)
- 대구지역 | 울진·현풍 —— 생수 1,000박스/담요 200장(면사무소)
- 강원지역 | 정선·삼척 —— 500만 원 상당 식수/의복/라면 등(해당 시청 사회복지과)
 - 태백·동해 —— 학용품 및 부식류(해당 시청 사회복지과)

아울러 각 지사 구성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긴급 구호 활동을 지원하였다.

인력 지원 현황

- 부산지역 | 김해 ————— 부산지사 100명, 부산 네트워크본부 20명^(9월 13일)
 안남동·가덕도 ————— 부산지사 30명, 부산 네트워크본부 30명^(9월 14일)
 마산(거제) ————— 부산지사 60명^(9월 16일)
 고성(당항포) ————— 부산지사 30명, 본사 30명^(9월 15일)
- 대구지역 | 울진·현풍 ————— 대구지사 70명, 대구 네트워크본부 70명^(9월 15일~17일)
- 강원지역 | 정선·삼척 ————— 중부지사 70명^(9월 16일)
 태백·동해 ————— 중부 네트워크본부 40명^(9월 16일)
 (총계: 550명)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태풍 매미 피해 고객에게 9월 사용 요금 중 회선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며, A/S 기간 중에는 임대 단말기 5,000대를 무상 지원했다. 피해 지역에 이동 A/S 차량을 운영하고 단말기 충전 서비스도 지원했다. 주민 대피 시설에는 무료 이동전화도 설치해 고객들의 편의를 도왔다.

각 봉사단 활동 내역

본사 봉사단

본사 봉사단은 사장실, 미래경영연구원, 경영경제연구소, CR 부문, 전략기획 부문, 전략기술 부문, 경영지원 부문, 네트워크 부문, 비즈니스 부문, 고객 부문 등 10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사는 그 동안 사회공헌팀이 주관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10개의 본사 봉사팀을 구성한 후에는 각 팀별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팀은 주로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돋거나 팀과 연계된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본사 사회봉사팀은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한 후 성금을 모금하고 긴급 구호 물자를 보내주는 등 피해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연말연시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사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 본사 봉사단 연말연시 사회공헌 활동 내용 |

사장실, 기업문화실	12월 19일 / 한국노년지원봉사회서울지부(광진구 중곡4동) /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 급식 배부 및 도시락 배달
미래경영연구원	12월 19일 / 저소득 가정(경기도 이천) / 독거노인 도배장판 교체
경영경제연구소	12월 12일 / 동대문노인복지관(서울시 청량리동) /김장 담그기
CR 부문 / 차세대 무선인터넷 사업추진단	12월 12일 / 드롭인센터(서대문구 미근동 노숙자 센터) / 새벽 급식
전략기획 부문	12월 11일 / 굿네이버스 서부지부(마포구 상암동) / 저소득 가정 어린이와 크리스마스 함께 보내기
전략기술 부문	12월 11일 / 관악사회복지 / 무허가 일집촌 연탄 배달
경영지원 부문	12월 19일 / 연세보육원(구로구 천왕동) / 환경 정리(청소 및 빨래)
네트워크 부문	12월 4일 / 과천양로원 /김장 담그기
비즈니스 부문	12월 19일 / 종묘공원 / 공원 내 미급식 노인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 운영 지원
고객 부문	12월 16일 / 강북종합복지관(강북구 미아2동) / 이동 목욕 서비스, 자선냄비 모금 활동



수도권 봉사단

수도권 봉사단은 수도권 지사와 수도권 네트워크 본부 등 5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수도권 봉사단은 지사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인구 밀집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장 배추 기부 및 김장 담그기	녹번종합복지관 외 21개 복지관 (11월 5일~21일)
겨울 솜이불 기부 행사	대한적십자사 (11월 14일~12월 5일)
강동영업센터 불우노인 점심식사 제공	한국복지재단 (12월)
강동영업센터 학용품 지원 및 일일 자원봉사	만남집 고아원 (12월)
강남영업센터 생필품 지원 및 일일 자원봉사	새빛맹인재활원 (12월)
강서영업센터 생필품 지원 및 일일 자원봉사	노인복지센터 (12월)
중부영업센터 생필품 지원 및 일일 자원봉사	성우회 노인시설 (12월)
동부영업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연계 캠페인	동대문구 복지관 (12월)
북부영업센터 생필품 지원 및 일일 자원봉사	한빛맹아원 (12월)
인천영업센터 괜이부리말(인천 만석동) 불우이웃 돋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월)
수원영업센터 아동복지시설 일일 자원봉사	동광원 효행원 (12월)
부천영업센터 소년소녀 기장 후원의 밤 지원	부천시 소사구청 (12월)

부산 봉사단

부산 봉사단은 부산지사와 부산 네트워크본부의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 봉사단의 올해 활동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원이다. 이 지원 활동에는 총 300여 명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어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많은 구호물품을 모아 수재민에게 전달했으며 연말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일일장터 및 체중감량 펀드 생활보호대상자 기부	부산진구청 (12월)
본부 임직원 대상 불우이웃 돋기 성금 모금	부산진구청 (12월)
연말 불우시설 기부금 전달	천성재활원, BBS중구지회 등 5개소 (12월)
임직원 가족 불우시설 자원 봉사	대한적십자사 (12월)
소년소녀 기장 우유급식 행사 외	한국복지재단 (12월)

대구 봉사단

대구 봉사단은 대구지사와 대구 네트워크본부의 2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구 봉사단 역시 태풍 매미 강타 후 1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피해 복구를 긴급 지원했다. 대구 봉사단은 봉사단을 구성하기 이전에도 2003년 5월 지역 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 활동을 했다. 또한 성서가족복지회를 후원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독거노인의 장보기 비용 등을 지원했다. 경북지역 오지의 분교 생 초청 행사를 매월 1회씩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김치 잔치	대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12월 5일)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봉사 활동	애망원 (12월 19일)
사랑의 쌀 나눠주기 행사	생활보호대상자 (12월 15일~16일)
지사 임직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12월)	

서부 봉사단

서부 봉사단은 서부지사와 서부 네트워크본부의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 봉사단의 활동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사랑나눔이’ 활동이다. 사랑나눔이는 매달 소화성가정에 거주하는 20~30명의 가족을 초청하여 이들을 돌보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역 내의 결식 학생에 대한 후원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후원 활동에는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2개 학교의 결식 학생 120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부 봉사단은 광주천의 존재 의의와 생태적 특성 및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광주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웃으며 걸을 수 있는 광주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으며 ‘광주천 가이드북’ 제작을 적극 후원했다.

결식학생 후원 연말 특별 집행	지역내 22개 학교 (12월)
소화성 가정 짐장 담그기	소화성가정 (12월)
성요셉의 집(무료급식소) 연말 특별 지원	성요셉의 집 (12월)
영아일시보호소 연말 기부	영아보호소 (12월)
광주 환경운동연합 연말연시 불우이웃 돋기	광주 환경운동연합 (12월)
광주 환경운동연합 광주천 가이드 북 제작 지원	광주 환경운동연합 (12월)
광산구 지원봉사센터 연계 짐장 담그기	구내 독거노인 200세대 (12월)
전주영업센터 성암복지원 연말 기부	성암복지원 (12월)
전주영업센터 금암2동 동시무소 연말 기부	금암2동내 저소득 가정 (12월)
전주영업센터 삼성원 연말 기부	삼성원 (12월)
제주영업센터 자체장애인협회 연말 기부	자체장애인협회 (12월)
제주영업센터 신원복지재단 연말 기부	신원복지재단 (12월)



중부 봉사단

중부 봉사단은 중부지사와 중부 네트워크본부 6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부 봉사단 역시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많은 땀을 쏟았다. 기간 중 총 14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지역 내 수재민을 도왔다. 중부 봉사단은 연말에 총 18건의 봉사활동을 펼쳐 다른 봉사단을 놀라게 했다.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12월 8일)
장애인 학교 지원	모두사랑장애인학교 (12월 8일)
독거노인 돋기	둔산종합복지관 (12월 8일)
사회복지단체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12월 8일)
믿음의 집 연말 성금 기부 및 봉사	믿음의 집 (12월)
소망의 집 연말 성금 기부 및 봉사	소망의 집 (12월)
대전 가톨릭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지원 및 봉사	대전 가톨릭가정봉사원 파견센터 (12월)
은혜복지원 봉사활동	은혜복지원 (12월 15일)
고객봉사단 대리점 모금행사 추진 (12월)	
천안영업센터 결손가정 결식아동 지원	미래를 여는 아이들 (12월)
천안영업센터 연말 성금 기부	한국복지재단 (12월)
천안영업센터 연말 성금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지회 (12월)
천안영업센터 연말 성금 기부	새한감리교회 사론의집 (12월)
충북영업센터 장애우 목욕 및 지원봉사	사랑의 집 (12월 5일)
충북영업센터 성금모금 및 원내 활동	에덴고아원 (12월 19일)
원주영업센터 연말 이웃돕기 행사	천사들의 집 (12월 23일)
강릉영업센터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방문	강릉종합사회복지관 (12월)
강릉영업센터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속초종합사회복지관 (12월)
강릉영업센터 태백 사랑의 집 방문	태백 사랑의 집 (12월)

:: 사회봉사단 참가 후기

작은 수고가 만든 잊지 못할 생일 잔치

진상훈_서부지사 마케팅지원팀 사원

2003년 4월 12일. 사내 봉사단체인 '사랑나눔이' 활동을 위해 나눔이 회원들이 속속 사무실로 모여들었다. 첫 활동인 만큼 다들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생일 잔치를 위한 케이크가 들어오고, 2부 행사인 주름종이 공예를 위해 미처 연습하지 못한 회원들은 행사 때 만들 해바라기를 미리 만들어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곳은 소화성가정이라는 시설로 정신 자체가 있는 이들과 알코올 환자들 약 40여 명이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연령대도 다양해 70세가 넘는 할머니부터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소화성가정의 귀염동이 막내 성녀까지 모두 한가족처럼 어우러져 지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설이라고 하면 으레 낡고, 냄새나는 환경부터 떠올리지만 소화성가정은 이와 전혀 달랐다. 소화성가정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지은 지 2년도 채 안 되어 보이는 건물과 마당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꽃나무가 맑은 하늘과 잘 어울렸다.

생일 잔치를 위해 준비해 온 풍선을 불고 있자니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헬륨통에서 풍선이 부풀어지는 모습을 재미있는 듯 바라보았다.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커다란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주었더니 둥둥 또는 풍선이 신기한지 건네주는 족족 하늘로 띠워 보낸다.

준비를 끝내고 4월에 생일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으로 생일 잔치를 시작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폭죽도 터뜨렸다. 수너님 말씀이 한번도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모두들 무척 즐거워하는 분위기였다. 준비해 간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날 가장 인기는 끌었던 것은 근시한 케이크나 신기한 폭죽이 아닌 카메라였다. 처음에 카메라를 들고 행사 모습을 찍을 때는 대부분 멋쩍어하더니 어느 정도 분위기에 익숙해지자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특히 고마들은 사진을 찍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재미있는 모양인지 연신 내 꿈무니를 졸졸 따라다녔다. 저 누나랑 사진 찍고 싶다며 같이 간 여사원을 가리키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 앞에서 사진 찍어야 한다고 손을 끌던 녀석도 있었다.

생일상을 정리하고 준비한 2부 행사인 주름종이 공예를 시작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다들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손에 들린 종이가 차츰 해바라기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나 둘씩 해바라기가 완성되어 비구니에 한 송이, 한 송이 꽂이 늘어갈수록 이번 활동이 그 꽃들처럼 활짝 필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모두들 처음 우리가 걱정한 것과 달리 많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해졌다. 오늘 하루 재미있게 보냈다는 말을 들으며 이번 활동은 조금 서툴렀지만 다음에 조금만 더 철저히 준비한다면 훨씬 나아진 모습을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옥에 돌아와서 같이 갔던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오늘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봉시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자칫 하루를 버리는 일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들 만족하는 것을 보니 오늘의 활동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이번 행사의 기억 때문에 참가했던 모든 분들이 다음달에도 참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그곳에 계신 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2부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회원들이 하니같이 가진 생각이었다. 아예 모든 분을 포함하지 못할 바에야 연령대별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생일상 치려주기를 통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무엇인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이제 5월에 그곳에 다시 가게 된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그분들에게, 또 우리들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나눔이' 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덕분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게 되었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던 할머니와 우리를 반갑게 맞이준,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귀여운 꼬마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 사회봉사단 참가 후기

쓸쓸한 노후를 위로하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주 은정_시장실 혁장경영팀 과장

'한국 노년자원봉사회 서울지부.' 이름도 매우 낯선 곳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소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다른 부서에서 가는 곳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서 하는 일이 급식보조, 도시락 배달이라니 너무 간단할 것 같다는 등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장소는 성북구 장위동. 금요일이 제일 바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날이라고 해서 12월 19일, 금요일로 봉사활동 일정이 잡혔다. 우리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급식 보조와 김치 배달이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에는 기껏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기관 쪽의 사정을 고려하여 13명으로 제한하였다. 당일 기증할 물품은 이를 전에 미리 구입하여 택배로 보내놓고 차량과 인원을 그룹별로 편성하여 아침 9시 20분에 출발했다.

날씨가 영하 7~8°C까지 내려가 몹시 추웠지만 우리는 미리 내복과 두꺼운 옷으로 대비를 하고 조끼에 장갑까지 끼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오전 10시에 도착하여 지부장님으로부터 오늘의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우리는 조별로 활동에 돌입했다. 우리가 방문해야 할 곳은 석관 1,2동, 장위 3동의 세 동네였고 경로당과 가구 방문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우리 조는 우선 경로당을 찾아갔는데 공교롭게도 김치를 받으실 할머니들이 모두 경로당에 오셔서 김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치 배달은 경로당에서 한번에 끝나버리고 그 중 몸이 가장 약하신 할머니의 김치를 댁까지 배달해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찾아간 할머니댁은 매우 좁아서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가서 앉으니 꽉 차서 오도가도 못할 정도였다. 방안은 할머니께서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아 그냥 발길을 돌렸다. 내심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다는데, 고기는 어디다 보관하고 밥은 어떻게 해서 드시는 건지 걱정되었다.

배달을 끝내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급식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설거지도 거의 끝난 상태였다. 급식은 절에 서 자원봉사 나오신 네 분이 계셔서 우리 팀원들은 주로 설거지와 서빙을 도와드렸는데, 정신없이 바빴다고 한다. 할머니들 중에는 무료 급식이 없는 날은 짖는 분들도 계신다고 한다. 디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밥도 많이 드신다. 우리도 거기에서 식사를 했다. 밥이 어찌나 맛있는지 꿀맛이었다.

이번 활동으로 노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젊은 사람도 모두 언젠가 늙게 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노인들에게 무관심하고 홀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회적으로 노인 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개인들도 자신의 부모님, 할머님, 그리고 주변의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 사회봉사단 참가 후기

손을 내밀면 가슴으로 되돌아오는 나눔이라는 마술

김 광 훈 _ 경영전략실 경영전략팀 과장

2003년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진 방과후 교실.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란다. 처음 나는 남루한 옷차림

에 땃국이 흐르는 얼굴에 의기소침한 아이들을 상상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을 만나 보니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

다. 방과후 우리를 향해 힘차게 뛰어든 아이들 때문에 추운 날씨로 스산했던 버스 안은 순간 따뜻해졌다. 아이들

은 얘기도 잘하고 저희들끼리 키득거리고 장난도 쳤다. 상암동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내내 잠만 청했는데.

〈거지의 죽음〉이라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혜화동 한일 소극장으로 갔다. 소극장 안은 배우들 땀 냄새, 아이들 빨

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거북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저희들만의 놀이터에 온 것마냥 공연 내내 즐거워하

였다. 옆에 앉아 있던 내 짹 동찬이(4학년)가 슬며시 팔짱을 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웠다.

공연 관람 후에 근처 중국 음식점으로 향했다. 음식을 먹는 가운데도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느라 웅성댄다. 자

장면을 열심히 먹던 동찬이는 문득 이번 주말에 아저씨 또 볼 수 있느냐고 묻는다. 선뜻 대답을 못했다. 우리 아

이도 생각나고 아내 생각도 났다.

이별의 시간은 빨리 왔다. 우리는 처음 아이들을 만났던 상암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갔다. 밤 10시가 넘어 깊은

데도 아이들은 졸려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피곤하다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작

은 선물을 나눠주었다. 동찬이가 집까지 바래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를 태우고 갈 버스가 지금 떠난단다.

동찬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오며 동찬이를 바래다주지 않은 것이 내내 후회되었다.

우리의 봉사활동은 '소외된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였다.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잘 대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기우였을 뿐이라는

걸 알았다.

〈거지의 죽음〉이라는 연극은 아이들과 우리에게 복잡하고 이기적인 도시에서 소외된 한 인간의 고뇌와 번민을 보

여주었다. 나도 어느새 그 딱딱한 도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 내내 즐

겁고 유쾌한 하루를 보냈다. 우리 역시 아이들 덕분에 단조로운 회사 생활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진한 정과 순수

함을 맛보았다. 결국 지내고 보니 행복해야 할 대상은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었던 것이다.

:: 사회봉사단 수혜 지역 감사의 글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안병해_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 구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신 봉사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해일과 강풍을 동반한 '매미'는 우리 구민들의 보금자리와 생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등
4,000여 명의 이재민들에게 밀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모두 삶이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물심양면에 걸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태풍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신속히 치유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안정을 빠른 시간 내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훈훈한 마음과 배려가 우리 구와 태풍 피해 주민들에게 진정 큰 힘이 되었으며, 이번 태풍 피해
현장에서 보여주신 정성과 헌신적인 봉사활동 모습은 모든 우리 구민의 기슴에 오랫동안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땀이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빛과 소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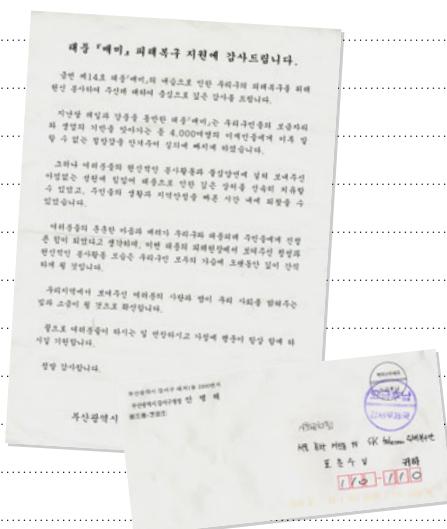
끝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안병해



:: 사회봉사단 수혜 가정 감사의 글

우리를 위한 사랑과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

소화성가정 가족 일동

즐겁고 신나게 놀았던 물놀이의 담례를 이제야 보냅니다.

물놀이를 가기 전 가족들이 따라다니며 날짜를 물어보고, 어떻게 놀 것인가를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어떤 날은 약간 귀찮을 정도의 질문에 찌증도 났었는데, 시원한 계곡물과 함께하는 순간 저희들의 스트레스는 흙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족들과는 달리 수녀님과 저희들은 입을 옷과 준비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쁜 서초의 등장은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SK텔레콤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가족 모두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언제 SK텔레콤 언니 오빠들이 또 오는지 물어보곤 한답니다. 저희
가족들과 생활하다 보면 언어적인 표현은 서툴지 몰라도 느낌은 누구보다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느끼는 가족들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준비해준 것 같았어! 행복하고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더라!”

이 말 속에 SK텔레콤 가족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채워나가며 살맛나는 곳으로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눈뜨면 성가정에 가서 저녁 시간에 돌아오고, 학생으로 또는 가정주부로 생활하다 보니 이제야 감사의 글을
보내게 되어 미안한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고객 봉사단 ••

'젊음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 지원봉사로 사회에 참여하자.'

SK텔레콤 고객으로 이루어진 지원봉사자 'Be sunny be happy' (약칭 Sunny)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지원봉사 모임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자 하는 이들은 최근 새로운 조류가 된
젊은이들의 지원봉사 활동을 확대시키는데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롭다, 신선하다 젊은 고객들의 지원봉사



커뮤니티, 기부, 봉사,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복지와 사회 참여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됨에 따라 과도한 음주 문화와 획일적인 놀이 문화에 식상한 젊은이들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사회공헌 활동의 기본 철학인 '나눔'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011자원봉사자 'Be sunny be happy' (약칭 Sunny)를 모집했다.

Sunny는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시작되었다. Sunny는 TTL 고객을 포함한 2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고객들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 모델이 될 전망이다.

7월 8일 모집 이후 자원봉사단 Sunny에 9,000여 명이 등록하는 놀라운 참여율을 나타냈다.

Sunny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Sunny의 착한 마을'이다. 이 프로그램은 Sunny의 온라인 본부로서 Sunny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착한 마을'은 기부금 모집, 봉사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봉사자들의 상호 교류 및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는 TTL 존(Zone) 및 스트리트(Street) 등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한다. 2003년 9월에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 소년소녀 가장에게 자신의 현책 또는 새책을 기부하는 '책 책 책, 책을 줍시다'라는 이벤트를 벌였다. 이 기부 프로그램은 시기와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셋째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병원' '자아, 하자' 등 상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복한 병원'은 NGO 연계를 통해 병원을 찾아가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Sunny들은 각 지역 병원의 소아병동에서 어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8~9월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쳤다. 매주 실시된 이 '행복한 병원' 프로그램에는 평균 30여 명이 참가했다.

'자아, 하자!'는 고객들이 제안하는 봉사활동을 검토,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객 스스로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객이 주도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8월부터 상시 운영된 '자아, 하자!'에는 8월 한 달 동안에만 97개의 봉사팀이 지원을 펼치는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다.

전국의 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Hi, Teacher!' 프로그램도 실시되었다. 매월 펼치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총 2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해 보육원 어린이들의 학습을 도와주었다.

넷째는 이벤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펼치는 봉사 활동이다. 2003년 8월 13~14일, 8월 19~20일, 두 차례에 걸쳐 'Sunny 가족의 여



름 바캉스'를 실시했다. 소년소녀 가장들과 Sunny가 함께 떠나는 이 여름 여행에는 총 82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충남 안면도에서 펼친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여행의 즐거운 추억을 마련해 주었다.

'SBS의 스타 도네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한 Sunny 격려 행사도 있었다. 이 행사에는 2,000여 명이 참가했다.

2003년의 이벤트 프로그램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Sunny의 수해지역 봉사활동이다. 초특급 태풍 매미가 쓸고 간 수해지역에서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일간 펼친 복구 지원 활동에는 총 293명이 참가하여 수재민들의 아픔을 덜어주었다.

이 밖에 Sunny들이 연말을 불우한 이웃과 함께 보내기 위해 기획한 'Sunny 산타'를 2003년 12월 전국 5개 도시에서 펼쳤다. 'Sunny 산타'들은 구세군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각 지역 봉사팀의 자발적인 이웃돕기 행사와 연계하기도 했다.

늘어나는 Sunny 클럽

젊은이들의 사회 봉사 활동을 확대시키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결성한 SK 텔레콤의 고객 봉사단 Sunny는 참가자와 활동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객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TTL 클럽, 다음, 프리챌 등에 총 24 개의 자생적 커뮤니티가 생겨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온라인 Sunny의 '착한 마을'을 통하여 월 20여 건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봉사 활동에 재참여하는 봉사자가 3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이는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체 봉사 활동 프로그램에서 탈피, 고객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기획의도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고객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은 사랑과 나눔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 자원봉사단 Sunny 참가 후기

푸른꿈이 빛나는 밤에

신민정_ 게시일 : 2003.12.23

지난 12월 19일은 제가 봉사 활동을 나가는
가산복지관 방과후 교실 아이들의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의 반은 복지관 가서
발표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사실 복지관 가려면 차를 몇 번 씩 갈아타야 하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회 날 완성된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아이들의 리허설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힘든 걸음 하신 부모님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연극은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재밌었죠. 평소에 장난스런 아이들도 그 순간만큼은
진지하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운 대사를 또박또박 해내는데 어찌나 대견스럽던지 ^~;

열심히 배운 수화로 노래도 부르고, 사물놀이도 하고, 실로폰 연주도 하고…… 그 동안 방과후 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해보이는데, 제가 손수 가르쳤던 아이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뿌듯했답니다.

아이들의 편지를 통해 그들의 가정환경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겉으로는 한없이 밝지만 참 많은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동안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 조금은 그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었던 생각에 보람찼구요.^~

'Sunny Hi Teacher'를 통해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드려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에게는 더욱이나 뜻깊은 경험이었구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기대되네요
~ 아이들에게 따뜻한 날이 되길, 그리고 저에게도 특별한 날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려구요.^~

• • Junior Achievement 프로그램 • •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인이며 미래 경제의 주체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 교육을 시키는 일은 풍성한 미래를 약속하는 작은 씨앗입니다. SK텔레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 교육을 실시하는 ‘주니어 어치브먼트 (JA: Junior Achievement)’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 주역을 함께 키웁니다



꿈나무를 키우는 단비, 경제 교육

JA(Junior Achievement: 이하 JA)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경제 교육 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19년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JA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에 창의적이며 시장경쟁력을 갖춘 어린이·청소년의 양성을 목적으로 활발한 경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경영에 대한 기본적 이해, 시장경제 체계의 중요성, 직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의 함양, 경영과 기업윤리 고취,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데 따른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고,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교육을 통해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정착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1919년 미국에서 JA가 설립된 이래 80여 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든 운영은 기업, 개인, 재단 등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부금에 의존한다. 수혜자인 학교 및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수업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일체를 무료로 제공한다.

수업은 교외 활동이 아닌 학교 수업 시간 내에 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 담당 교사가 아닌 기업에서 파견한 자원봉사자가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실물경제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자원봉사자들은 사전에 JA로부터 충분한 교육을 받고, 담당 교사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수업에 관한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친다.

초등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생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 이르기까지 경제 및 사업 대한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다. 이들은 '경제란 무엇인가' '가족 경제' '직업 선택' 등을 배우며 '세계의 자원' '경제 체계' '통화와 화폐 교환' 그리고 '무역'에 대해 공부한다.

중등교육 프로그램은 직업 선택에 대해 탐구, 개인 및 가정경제에 대한 관리를 연습한다. 또 국가 경제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과 그 속에서의 기업들의 활동을 배운다.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미시·거시 경제학 및 국제 경제를 배우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체의 구성과 경영 방법, 대인관계 및 문제 해결 전략 등을 공부한다.



경제 전문 선생님 26명 파견

SK텔레콤은 이 프로그램에 2003년 2학기 동안 임직원 26명이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J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 인력은 초등학교에서 '경제 체험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은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1차, 11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2차로 나누어 10개 초등학교, 208학급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전달하여 호응을 얻었다.

본 수업 5회, 오리엔테이션 1회, 사전 방문 1회 등 총 7회의 수업을 진행한 자원봉사자들에게 SK텔레콤은 자원봉사 근무 시간을 인정하고 교통비를 지원하였다.

SK텔레콤 임직원의 JA 프로그램 참여로 학생들과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SK텔레콤에 대해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인프라를 미래 인재 육성에 활용하는 JA 프로그램에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JA(Junior Achievement)란?

JA는 1919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청소년 경제 교육 기관이다. 기업, 재단, 개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현재 미국 151개 도시, 세계 113개국에 자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쟁전략연구원이 청소년들에게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족, 지역, 국가, 나이가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2002년 10월 JA 본부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JA 코리아'를 설립하였다. 특히 시장경제, 기업 경영 및 경제에 관한 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삶의 질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http://www.jakorea.co.kr>)

•• 결연 후원 사업 ••

SK텔레콤은 지난 1998년부터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결연 후원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위로는 대표이사부터 아래는 막내 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뜻으로 쌈짓돈을 헐어 만든 모금액은 해마다 소년소녀 가장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의 버팀목

지원금 월 1,000만 원으로 확대

SK텔레콤은 2003년에도 활발한 결연 후원 사업을 펼쳤다. SK텔레콤은 지난 1998년부터 회사 사보팀 주관으로 불우이웃 돋기 모금 행사를 펼쳤고, 이에 따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였으며, 여기서 조성한 기금으로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소년소녀 가장돕기 캠페인을 펼쳐왔다.

그동안 임직원 각자의 희망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 결과 조정남 부회장 외 491명이 모금한 금액은 매월 760만 원이었다. 1998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의 모금 총액은 3억6,7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전액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했다.

SK텔레콤은 2003년 11월 그동안 실시해 오던 모금행사를 회사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했다. 이는 직접 참여를 통해 구성원 개인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후원 아동과의 연대감 형성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한 이 프로그램은 노조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임직원의 참여율이 향상되고, 저소득 가정 지원 활동의 전사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일방적 금전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후원 아동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후원자들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매월 760만 원이었던 모금액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3년 11월 중순부터 후원금 동참자를 모집한 결과 130여 명이 늘어나 후원자는 총 615명이 되었으며 후원금도 매월 257만 원이 늘어 1,018만 원으로 불어났다.

SK텔레콤은 2004년부터는 후원자와 수혜자간 1:1 결연을 통한 본격적인 후원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결연 후원 사업 공고

누군가의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어느덧 합해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셨던 임직원분들 대다수께서는 나름대로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었던 시간이 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중에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일상 때문에 기습 한편에서 담담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식과 기혼마을 위해 또 회시마을 위해 매진했던

생활이 거조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없었는지…

그렇다면 아직 날아 있는 2003년 막미에 샌다를 벼화를 꿔해 보신시오

특히 누구를 높는다는 게 날의 일처럼 생각됐던 분들이라면 아래의 기회를 절대로

농치지 마세요 ^^

당신의 전설이 소년 소녀 가자들에게 전해지는 최고의 기회!

‘결연 훈련’ 사업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을

누구를 둘는다는 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버거운 소년소녀 가정들의 언니나 누나, 오빠나 형이 되심으로써 당신은 이미

누구가의 인생에 커다란 도움이 되실 수 있단다. 당시의 삶이 후원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려줄 필요로 비춰질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평범해도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게 될 겁니다.

부담을 느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그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메토 프로그램)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시청해 주세요.

아이들을 만나는 데 필수적인 여러 가지 자원들을 기꺼이 지원해 드립니다(분기별 활동비 및 활동 프로그램 등)

직접 활동이 부담스러운가요? 그렇다면 소년소녀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최후의 병법이 낙타 있습니다.

바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모금 작업의 편의를 우

전달하는 후원금 모금에 동참하실 수 있으신다.

이 후원금 모금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5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매월 700만 원을

그러나 100명이나 되는 소년소녀 가엾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

이름과 소속, 후원 금액, 후원 기간을 적어 사회공헌팀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



함께하는 네트워크

NGO·NPO 연계 사업

- NGO·NPO는 기업 및 정부의 역할과 구분되는 비영리 사업 단체로 자발성, 공공성, 사회성을 활동의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공식적인 조직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윤의 분배가 없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가 국가나 시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SK텔레콤은 그 동안 비영리단체가 자발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사회공헌 활동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SK텔레콤은 비영리단체와 연대를 통해 더욱 든든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비영리단체의 현장 사업 수행의 노하우를 통해 전문적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도 유지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단체와 협력 및 지원 활동을 통해 SK텔레콤은 더욱 전문성을 강화해 좀더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협력 및 지원 활동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사업 ••

SK텔레콤은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투자와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함께 가꾸는 사랑의 열매



2003년 지정 사업 실시

연말이 가까워지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TV 프로그램의 아나운서나 주요 사회 인사들이 상의 왼쪽 깃에 빨간 열매를 달고 다닌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는 1960년대부터 결핵 퇴치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웃돕기의 상징이 되어 왔다.

이후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7월 이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고 ‘사랑의 열매’는 이 단체의 상징이 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 문화의 정착 및 확산, 배분 사업을 통한 민간 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민간 모금 및 배분 전문 기관이다. 공익성, 전문성, 형평성 등을 고루 갖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성금을 모금하고, 이를 사회복지 전 분야에 배분하는 일을 한다.

SK텔레콤은 저소득 가정 및 복지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2003년 처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정 사업을 실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사업이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기부자 또는 기부 기업의 기부 의도 및 관심 방향에 따라 지원 지역, 대상자,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2003년 실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사업은 글로벌케어의 무료 이동진료 사업, 월드비전의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성동자활후견기관의 특수학급 보조 교사 파견 사업, 전국 사회복지 시설 협의체의 사회복지 생활 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등이다.

무료 이동진료 사업

SK텔레콤은 1999년부터 의료 전문 NPO인 글로벌케어와 함께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를 펼쳐왔으며, 2003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사업으로 실시하였다. 무료 이동



진료 서비스는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노숙자, 기지촌 여성 등 소외계층,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활동이다.

글로벌케어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소외계층과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부터는 한의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양·한방 협진을 통한 전문적인 진료를 실시해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고 있다.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사업으로 실시하여 한해 동안 노인 526명, 아동 94명, 기지촌 여성 528명, 외국인노동자 356명, 건강검진센터 2,666명, 노숙자 진료 1,216명 등 총 5,386명이 진료혜택을 받았다.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

가정방문 목욕 서비스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SK텔레콤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사업으로 지정되어 2003년 3월 출범식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월드비전에 연간 운영비와 이동 목욕 차량 4대를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부산연제구를 비롯해 강원도 정선, 경북 감포, 울산시 동구, 부산시 등 네 곳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목욕은 주 1회, 또는 월 2회 단위로 전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실시하며, 2003년 한 해 동안 정선 28세대, 감포 38세대, 울산 23세대, 부산 29세대 등이 목욕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이·미용, 도시락 배달, 방문 간호, 병원 동행, 가사 도우미 파견, 물품 지원 등 연계 서비스도 함께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

SK텔레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사업으로 성동자활후견기관과 함께 정상적인 학





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3년 3월 SK텔레콤은 성동구청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3차에 걸쳐 22명의 특수학급 보조교사 교육을 실시했으며, 3차에 걸쳐 14명의 보조교사를 파견했다. 6월에는 28명의 특수학급 보조교사가 강서, 관악·봉천, 마포, 성동 등의 지역에서 연합으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성교육을 진행하였다.

현재 SK텔레콤은 총 9개 초등학교에 13명의 특수학급 보조교사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개 중학교에 1명의 특수학급 보조교사를 파견하였다. 특히 저소득 실직 여성 가장들을 특수학급 보조교사로 선발해 이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돋고 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이들에게 해외 선진 사회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익히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SK텔레콤은 이런 취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연합과 함께 2003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전반기 연수는 75명을 대상으로 6월 중 4차에 걸쳐 호주에서 실시되었으며, 하반기 연수는 78명을 대상으로 11, 12월 중 3차에 걸쳐 일본에서 실시되었다. 연수생들은 우리보다 앞선 이들 나라의 시설과 병원, 연수센터 등 선진 시스템을 둘러보며 업무의 전문성과 근무 의욕을 높였다.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후기 · 호주편

선진 복지 시스템 현장에서 배운 값진 교훈

김 성숙_천사보육원

지난 2003년 6월 10일 SK텔레콤에서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호주 사회복지 6박 7일의 연수를 다녀왔다.

6월 10일 2차 팀으로 출발한 우리는 직능별로 노인시설 사회복지사 5명, 장애시설 사회복지사 4명, 아동시설 사회복지사 5명으로 구성되었다.

11일 새벽 호주에 도착해 이국적인 풍광을 감상할 새 도 없이 스케줄에 따라 캔버러에 있는 호주 연방정부 가정사회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하였다.

호주의 행정 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3단계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지원 협력을 통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국민은 물론 이민자까지 이우르며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호주는 임금생활자(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이념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나는 특히 호주 최고의 시드니 대학에서 호주 사회 정책 입문 및 실무 과정 중 만났던 세 분 여교수들 강의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또 연방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링크를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설립된 호주 정부의 복지 전달 체계도 실제로 견학할 수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배운 값진 교훈은 호주 보건복지국 차관의 말처럼 “무슨 시스템이든 완벽한 것은 없고 무엇이든 개선되어 질 뿐이라는 것, 그리고 항상 변화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의 복지 분야에도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본다.

복지 선진국이라 하여 우리가 견학을 한다고 해도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호주의 성공을 학습하지 말고 실패했던 것을 많이 배



워 가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현장에서 느껴야 하는 체감 온도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복자는 작게 시작하여 크게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가꿔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호주에서 행해지는 많은 복지 서비스의 장점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자연히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다.

연수 기간 내내 그 아름다운 천혜의 낙원이 주는 푸르름보다 계속 나의 마음을 짓누르던 건 시드니 대학 여교수의 말이었다. 그는 자신이 교수가 되기 이전에 공무원으로 아동을 담당했는데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아동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힘들었다”며 눈물 어린 고백을 하였다.

호주가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연결고리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가

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이 잘 보호되게끔 주정부, 보건부 캠페인 조차도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를 내세우고 있었다.

이번 연수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개발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점검해 보았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복지의 측면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호주 연수에서 얻은 것은 그곳 공무원이든, 교수든, 센터링크 복지 서비스자든 모두 한결같이 입을 모아 아동의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했듯이나 또한 어린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연수 기회를 준 SK텔레콤과 공동모금회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후기 · 일본편

장애인, 비장애인의 동등한 사회가 되기를

조영희_평강의집

꼭 합격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을까? 나는 지난 2003년 11월 17일부터 4박 5일 동안 일본의 복지시설 및 기관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얻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해외에 나간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사회복지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인으로서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는 앞서간다는 일본의 사회복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11월 17일 아침 10시, 인천국제공항에 결집한 우리 일행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맨 처음 견학한 곳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기구를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체험해 보는 'ATC Ageless Center'였다.

이곳은 이용하기에 편리한 기구가 전시만 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그러한 기구들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절로 들었다.

다음날부터 고베의 행복촌에서 교토의 수산시설(정신지체 근로작업장), 오사카의 공동작업장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을 견학하는 강행군이 이어졌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다.

그중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일본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이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다



사실을 보면서 이 같은 지역 주민의 인식이 복지국가를 세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빽빽한 연수 일정이지만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도 더 배우고 돌아가려는 우리 팀원들의 열정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SK텔레콤과 공동모금회,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엔씨스콤에 정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일본의 전문 가이드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연수 내내 깜찍하고, 귀여움을 유지하며 이끌어주신 가이드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4년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지금 현재 우송정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이채식 교수님의 훌륭한 통역과 안내에 감사를 드린다. 그 분으로 인해 어느 연수보다도 알차고 일본에 대

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저희 앞에서 모범을 보이며 연수에 임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네 분의 협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내가 배우려 했던 후원자 개발이나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접하지 못해 아쉽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로 장애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날이 올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본다.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지역 주민들이 인식했으면 한다. 또한 일본과 같은 소규모 수산시설이 설립되어 장애인들이 맘껏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터전이 하루 속히 도입되기를 바란다.

•• Giving Expo 2003 ••

'나눔, 사랑, 희망!'

Giving Expo 2003은 바람직하고 성숙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한 국내 최초의 기부 관련 행사입니다. SK텔레콤은 이 행사에 단독 협찬사로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의 기본 철학인 '나눔'의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부와 나눔의 축제 한마당



국내 최초의 기부 엑스포

SK텔레콤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기빙 엑스포(Giving Expo) 2003’을 지원하였다.

기빙 엑스포는 기빙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KBS가 공동 주최하고, KBS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했다. 굿네이버스, 기아대책기구, 아름다운재단,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10개 단체가 주관 단체로 참여했으며, 그린페밀리운동연합, 녹색연합,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70여 개의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가했다. 또 이들 외에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1만 2,000여 명이 참가하고, KBS의 ‘좋은 나라 운동본부’ ‘NGO특강’ ‘사랑의 리퀘스트’ 등의 TV 프로그램이 공동 참여하였다.

기빙 엑스포는 바람직하고 성숙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한 국내 최초의 기부 박람회. 이 대회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재정 확충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한편, 모금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교환하고 각 단체들의 활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일반 시민들과의 상호 소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방문, 재정 기부, 자원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부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기빙 엑스포는 홍보, NGO·NPO, 기업 사회공헌, 시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등으로 셱션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참가 단체들은 홍보 부스를 만들어 홍보 자료 및 사진 전시 등을 통해 활동 상황을 알리고, 구체적인 기부 방법을 소개해 관람객들이 각 단체의 활동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행사장에서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 행사와 바자회도 열었다.

이 행사는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비롯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도 곁들였다. 인기가수 유열, 베이비 복스의 공연과 정은선의 마술, 클래식 연주회, 가족 영화를 시간대별로 진행했고, 한지 공예, 노래방, 석고 뜨기, 페이스 페인팅, 행운권 추첨, 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펼쳤다.

또한 기빙 엑스포 조직위와 시민의 신문 주최로 ‘기업 사회공헌 100인 토론회’와 모금 세미나를 열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의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직위는 오프라인 행사와는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vingexpo.net>)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1백만 명 시민 온라인 서명 운동’과 기부문화 동참을 호소하는 ‘릴레이 메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이 행사에 단독 협찬사로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의 기본 철학인 ‘나눔’의 비전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 아름다운 바자 ••

2003년 12월 서울역 신청사에서 열린 ‘사랑의 바자회’는 KBS와 아름다운가게가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 뜻을 같이하는 SK텔레콤의 직원들은 물품을 기증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으며,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의 힘 보여준 열린 장터



총 2,200여 점 기증

2003년 크리마스 다음날.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꿔놓을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새로 건립된 서울역 신역사. 제각기 발길을 재촉하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난데없는 장이 섰다.

“물건이 아주 쌉니다. 싸요. 좋은 물건도 사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세요.”

어느새 장사꾼으로 변한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가 흥겹다.

서울역 신역사 2층 로비에 마련된 진열대에는 의류, 도서, 음반, 장식품, 완구, 가전

제품에 이르기까지 수천 점의 다양한 물건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오가던 사람들은 흥겨운 음악 소리와 값싼 물건에 끌려 필요한 물건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다. SK텔레콤은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전 임직원에게 이를 공지하고 본부 단위 조직별로 기증품을 모았다. 그 결과 총 2,200여 점의 물품이 수집되었다.

조정남 부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임원들이 그림, 골프 클럽 세트, 가전제품 등을 기증했다. 마케팅 부문에서는 회사 광고를 촬영할 때 모델이 입었던 의상 60점과 사업용 단말기 33대를 기증했으며, SK네트웍스는 카스피와 아이젠 포스트 의류 600여 점을 기증했다.

서영길 부사장은 판매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으며, 프로 야구단 SK와이번스의 이진영, 이호준, 조원우, 조경환 선수 등이 사인볼 240개와 모자 100개를 기증하고 자원봉사에 나섰다. 회사 임직원 46명도 판매 자원봉사자로 직접 참여해 이 행사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보여줬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부로 나누어 벌어진 이 행사는 KBS 1TV로 전국에 중계되어 어려운 이웃을 돋고자 하는 사랑의 열기를 온 나라에 전파했다.

이날 행사 결과 기증한 물품 2,200여 점 가운데 2,000점이 판매돼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다. 판매 금액 총액은 1,192만 1,700원. 판매금 전액과 조정남 부회장이 기증한 그림 그리고 미처 팔지 못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다.

SK텔레콤은 이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이웃돕기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전사 사회봉사단의 참여 열기를 드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 사회공헌 자문위원회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사회와의 친밀한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 질 때 그 깊이와 넓이가 커지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사회복지 분야 및 NGO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그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담긴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춰가는 사회공헌 활동



전반적인 전략 및 전문 지식 제공

SK텔레콤의 사회공헌 자문위원회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 적용에 대한 노하우를 겸비한 8명의 전문가 및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되었다. 구성 멤버는 단장 1명, 사회복지학계 및 비영리학계 3명, 사회복지 및 NPO 분야

3명, 간사 1명 등이며, 단장은 가톨릭대 사회교육원장 겸 사회복지대학원장인 김용일 교수가 맡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연 2회의 평가회의, 연 2회의 정례 자문회의, 제안서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연 2회 이상의 사회공헌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여 장·단기 사회공헌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사회공헌 관련 환경 분석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활동은 크게 자문 기능과 심사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자문 기능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제시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회사의 사회공헌 실천 방법과 현장 적용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수립한 세부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실시 방법에 대한 조언도 자문 기능에 포함된다.

심사 기능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제안에 대한 공모 양식 및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및 평가도 한다.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전반에 관한 평가와 대안도 제시해 주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시

자문위원회는 2003년 5월 9일 상견례 겸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회 출범의 배경과 의의에 대한 간략한 경과 보고를 마친 뒤, 자문위원회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한 해의 사회공헌 활동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7월에 열린 2차 워크숍에서는 호서대 양용희 교수가 ‘외국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삼성, KT 등 국내 기업 및 HP 등의 해외 선진기업들의 최근 사회공헌 활동 분석을 통한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 방향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SK텔레콤의 상반기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활동 방향 및 사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8월 정례회의에서는 변화경영(Change Management) 추진에 따른 사회공헌 전략 방향을 공유하였으며, NGO·NPO 및 고객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에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2003년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자문이 있었다. 각 영역별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기부금 및 협찬 지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과 2004년 회사 사회공헌 활동 전략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마지막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자문위원회와 SK텔레콤 사회공헌팀은 아오모리 현청(縣廳)과 현지 기업체를 방문해 그들의 사회공헌 전략과 활동 사례를 직접 보고 들었다. 아울러 2003년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하고 2004년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SK텔레콤은 2003년의 자문위원회 활동이 회사 사회공헌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이 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에도 이들의 고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더욱 전문성을 강화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NGO·NPO 후원 및 협찬 ••

SK텔레콤은 2003년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의 NGO·NPO들에 대한 다양한 후원 및 협찬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및 문화예술·학술·국제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SK텔레콤은 사회공헌 활동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획득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누는 기쁨, 나누는 힘



사회복지 지원

전국 사랑의 지팡이 운동 협찬

'사랑의 지팡이 운동'은 전국에서 이 운동에 가입한 교회와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경로효친-자원봉사 지원망을 구축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주는 운동이다. 2003년 2월 27일 출범식을 갖고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 운동은 국민일보와 (사)볼런티어크로스가 4개년 계획으로 실천하고 있다.

태풍 매미 수해 복구 지원

엄청난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을 돋고 재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SK텔레콤은 태풍 매미 피해 지역 지사별로 수재의연금 지원과 물품 지원,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9월 13일부터 즉시 각 지사별로 재해 상황을 파악하여 당장 필요한 물품 지원, 긴급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장애인 퍼포먼스 협찬

서울 실험예술제 '장애인 퍼포먼스'를 협찬했다. 이 예술제는 한국실험예술제 운영위원회와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예술치료학과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03년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홍익대학교 일대에서 펼쳤다.

'장애인, 퍼포먼스로 말하다 - 2003 함께 걷는 행복'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이 공연은 장애인에 대한 공연예술 치료, 퍼포먼스 워크숍, 퍼포먼스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다.

사랑나눔 캠프 사진전 협찬

2003년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문화일보 갤러리에서 '사랑의 숲에서'라는 타이틀로 열린 '2003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 사진전'을 협찬했다. 사진영상 그룹 '종이 거울'이 주관한 이 전시회는 사랑나눔 캠프에서 펼친 다양한 활동들을 현장감이 살아 있는 사진으로 담아 많은 감동을 선사했다.



제3회 밀알 전시회 후원

서울 강남구 가정복지센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재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3회 밀알전시회를 후원했다. 이 전시회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0층 에메랄드홀 앞 로비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안인근 한국미술협회 이사 외 백화점 문화센터 회원, 가정복지센터 회원 등 총 30명이 그린 미술작품 60점을 전시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정신지체장애인 재활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문화 지원

건전한 인터넷 에티켓 문화 정착 운동 지원

프레스(Press)25가 주최한 '건전한 인터넷 에티켓 문화 정착 운동'을 지원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표어, 캐릭터 공모전인 이 행사는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오페라 2003 라보엠 공연 협찬

저소득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오페라 2003 라보엠 공연을 협찬했다. 이 공연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다.



기업메세나협의회 지원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를 지원했다.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는 국내 기업 및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단체다.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는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에 공헌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성원을 고조시킴으로써 총체적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NGO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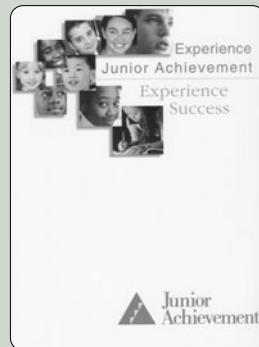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창립 3주년 기념 김군자 할머니 기금 조성 행사 자료집 협찬

아름다운재단이 창립 3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김군자 할머니 기금 조성 행사 자료집에 광고 협찬을 지원했다.

주니어 어치브먼트(Junior Achievement: JA) 후원

SK텔레콤은 2003년 9월부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JA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SK텔레콤은 이 프로그램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2003년 2학기 동안 임직원 26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9월에 이사 회원사로 선임되어 후원을 실시하였다.



참여연대 창립 9주년 행사 후원

2003년 9월 19일 오후 6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참여연대 창립 9주년 행사를 후원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소식지 협찬

국제기아대책기구가 매월 10만 부씩 발행하는 소식지 「섬기는 사람들」 2003년 10월호에 광고를 협찬했다.

월드비전 후원의 밤 협찬

2003년 10월 9일 오후 6시, 많은 NGO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월드비전 후원의 밤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 창립 1주년 기념 잡지 제작 협찬

2003년 10월 16일 「참 재미있는 가게 이야기Ⅱ」라는 제목으로 1만 부가 발행된 아름다운가게 창립 1주년 기념 잡지 제작을 협찬 지원했다.

지구촌나눔운동 이라크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콘서트 협찬

‘지구촌나눔운동 이라크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콘서트’를 지원했다. 2003년 11월 29일 오후 7시,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린 이 콘서트는 지구촌나눔운동, 서울장애인생활체육회, 열린세상국민문화운동본부 등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문화방송, 중앙일보 등이 후원했다.

환경재단 등 NGO·NPO 지원

이와 함께 볼런티어21 사무실 이전 기념식(2003. 10. 15), 사회연대은행 후원의 밤(2003. 11. 18 - 연대동문화관), 환경재단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2003. 11. 28 - 조선호텔), 한국여성재단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후원 행사(2003. 12. 05 - 세종문화회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6주년 후원의 날(2003. 12. 6 - 여의도 유화증권 빌딩) 등을 후원했다.

이 밖에도 한국일보 농어촌 벽지 및 낙도 초등학교, 또는 고향 모교에 소년한국일보 보내기 운동 등에 SK텔레콤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학술 지원
한국 IT 소년단 협찬

한국 IT 소년단 IT 서머 드림 캠프(Summer Dream Camp) 2003' 을 협찬했다. 2003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양평 미리내 캠프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 IT 소년단 대원 180명이 참가했다. 이 캠프는 사단법인 한국 IT 소년단이 주최하고 정부통신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정보통신 주역으로 자라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북아 5개국 학생 초청 세미나 후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국가간 연대를 위한 동북아 5개국 학생 초청 세미나를 후원 했다. 2003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이 행사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대학생 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건국대학교가 후원한 이 행사는 동북아 지역의 현안과 공통 과제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 협찬

동북아시아 자유 무역권과 물류 협력을 주제로 2003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BEXCO 국제 회의장에서 열린 제7회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을 협찬했다.

전국대학사회복지기관협의회 '지역사회 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협찬 전국대학사회복지기관협의회 주최로 2003년 10월 17일, 한국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지역사회 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을 협찬했다.

국제

미국 USC 대학 Asian Leadership Development Center

미국 LA에 소재한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이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으로 한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대학 내에 추진중인 Asian Leadership Development Center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이 센터는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 국가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다민족, 다문화 환경에서 소수민족의 인재 교류 및 교육을 통한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께하는 서비스

공익 마케팅

-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고 사랑은 나누면 더욱 커집니다. 이웃 사랑은 특정 조건을 갖춘 일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할 사회적 덕목입니다. 규모가 크고 사람들의 눈에 띠는 활동만이 이웃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작은 모래알이 모여 산을 이루듯 작은 손길들이 모아질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의 실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 SK텔레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객과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눈에 띠지 않고, 이름 조차 기억해 주는 이 없지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실천이야말로 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 손쉽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런 확신에 따라 SK텔레콤은 고객과 함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통화, 두 통화 작은 사랑이 모이고, 한푼 두푼 작은 정성들이 쌓여가면 우리 앞에 밝은 미래가 더욱 빨리 펼쳐질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고객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 아름다운 통화 ••

SK텔레콤의 ‘아름다운 통화’는 누군가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손쉽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주저 없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눌러주세요



아름다운재단과 제휴

당신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기쁨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누군가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손쉽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바로 SK텔레콤의 ‘아름다운 통화’다. SK텔레콤은 2003년 11월 3일부터 ‘아름다운 통화’ 서비스를 실시했다. SK텔레콤 표문수 사장은 같은 날 오후 본사에서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상임이사와 ‘아름다운 통화’ 프로그램을 통한 적립금 기부 약정식을 가졌다.

이 서비스는 SK텔레콤 고객이 일상 생활에서 합격, 승진, 당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

분 좋은 전화를 받았을 때, 통화 종료 후 *011/017 번호로 ARS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100원)을 기부하고, 상대방에게 SMS 문자 서비스로 기부 사실을 통보하는 프로그램이다.

고객이 기부를 하면 SK텔레콤도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 이를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다.

이 ‘아름다운 통화’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스피드 011 레인보우’ 캠페인 ‘나눔의 약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동통신 본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발적 기부를 통한 고객의 사회 참여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획하였다. 또한 고객이 기부를 할 때마다 SK텔레콤도 같이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분배’라는 사회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 공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름다운 통화’의 기부금은 월 단위로 집계되어 아름다운재단에 전달된다. 2003년 12월까지 적립된 금액은 총 2,468만 원이다. 2004년에는 2003년의 성과를 분석한 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증 장애 이동 재활치료 지원

SK텔레콤은 ‘아름다운 통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빙 엑스포(Giving Expo) 2003 개막일인 10월 10일 ‘아름다운 통화’ 시연회를 실시하였다. 기빙 엑스포 행사장의 SK텔레콤 부스에는 아름다운 통화를 고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홍보 활동은 아름다운재단 부스에서도 동시에 실시됐다.

또 기준 ‘스피드 011 레인보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TV와 신문 광고를 통해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ARS 프로그램을 누르면 “아름다운 통화로 인한 고객님의 기쁨을 많은 사람과 나누어 보십시오. 스피드 011은 고객님의 모든 통화가 아름다운 통화이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온다.

SK텔레콤은 회사 및 지정 기부처인 아름다운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기부금의 사용은 아름다운재단과 협의하여 중증 장애 이동 재활치료 분야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부 고객은 필요할 경우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고객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사랑의 자선냄비 ••

이제 이동전화로도 얼마든지 구세군 자선냄비에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NATE를 통해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랑의 자선냄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NATE’로 전하는 구세군 자선냄비



유·무선 인터넷 NATE로 3,000원까지 기부

연말이면 거리 곳곳에 울려퍼지는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 하지만 어떤 때는 막상 기부를 하려 해도 자선냄비가 보이지 않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런 걱정은 덜게 됐다. 이동전화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세군 자선냄비에 사랑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유무선 인터넷 NATE를 통해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랑의 자선냄비’ 서비스를 2003년 12월 4일부터 실시했다.

‘사랑의 자선냄비’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고객이 손쉽게 기부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과 구세군 강성환 사령관은 2003년 12월

3일 오전 SK텔레콤 본사에서 '사랑의 자선냄비'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기부금 전액을 구세군에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유·무선 인터넷 NATE에 접속 한 후 1,000원, 2,000원, 3,000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기부하

면, SK텔레콤이 적립하여 12월 말 구세군에 전달하고, 고객에게는 다음 달에 같은 금액을 요금과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다.

유선 NATE로 '사랑의 자선냄비'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취지에서 마이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벨은 구세군 군악대에서 녹음한 캐럴, 찬송을 음원으로 사용한 독특한 캐럴 벨소리로 무료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유선 NATE에서 기부한 고객에게는 사랑의 천사 아바타 아이템을 무료로 지급했다. 기부 고객이 원할 경우 구세군에서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전화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기부 문화 확산

SK텔레콤은 이 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이동전화 및 웹의 기부 페이지에 '친구에게 알려 주기 가능'을 구현해 확산을 유도했다.

'사랑의 자선냄비' 서비스는 구세군 자선냄비와 동일하게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운영했으며, SK텔레콤 본사 사옥에도 자선냄비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자연스러운 기부 참여를 유도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SK텔레콤이 모금한 금액은 313만 6,000원이다. 여기에 임직원 모금액 451만 원과 '사랑의 벨'을 통해 모금한 OK캐쉬백 포인트 3,400만 원을 2004년 1월 19일 정동 구세군 본영에서 구세군에 전달하였다.

사랑의 벨은 벨소리 다운로드 비용을 OK캐쉬백이나 콜 플러스에서 차감하여 고객이 정한 자선,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사랑의 자선냄비' 서비스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이동전화가 기부의 새로운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성숙한 기부 문화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콜 플러스 사랑 플러스 ••

고객이 1원을 기부할 때마다 회사도 1원을 기부하는 ‘콜 플러스 사랑 플러스’ 기부 행사를 펼쳤습니다.

모아진 수익금은 이라크 내 학교 시설의 개보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요, 사랑을 더해요



전화를 걸면 커지는 사랑

SK텔레콤은 2003년 6월부터 고객이 1원을 기부할 때마다 회사도 1원을 기부해서 모은 기금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콜 플러스 사랑 플러스’ 기부 행사를 펼쳤다.

2003년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콜 플러스 1차 행사를 펼쳤다. 1차 행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011·017 고객들로부터 ‘콜 플러스’ 포인트 기부를 신청받고, 고객의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SK텔레콤이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모금액은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www.kfhi.or.kr)를 통해 이라크 바그다드 소재 알 모하나드 초등학교의 시설 개보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 대한 학교 급식 지원, 책상·걸상·칠판 등 교육 기자재 확보 등에 쓰여졌다.

콜 플러스는 1,000점 이상의 콜 플러스 포인트를 가진 011·017 고객(법인 고객 제외)이면 누구나 참여해 1,000점 단위로 기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기부 상한액이나 기부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콜 플러스에 참여를 희망한 고객은 SK텔레콤 고객용 웹사이트인 ‘e-station(www.e-station.com)’에 접속해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참여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행사는 고객이 기부를 신청하면 ‘콜 플러스’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고, SK텔레콤도 기부금 1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2원의 기부금을 내는 프로그램으로, 희망 고객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SK텔레콤은 기부에 참여하는 순번이 백 단위별로 11번과 17번인 고객에게 사은의 뜻으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했다.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은 요금고지서, SK텔레콤 홈페이지, e-station 등에 게시했으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홈페이지에도 띠웠다.

두 달간에 걸친 이 행사를 통해 총 6,974명의 기부자가 7,884건을 기부해 5,058만2,318원이 모금됐다.

SK텔레콤은 2003년 8월 25일 이라크 바그다드 소재 알 모하나드 초등학교에 SK텔레콤 사회공헌팀장 및 국제기아대책기구 이라크 지부장, 바그다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금액 전달식을 가졌다.

고객이 1원을 내면 회사도 1원 적립

콜 플러스 2차 행사는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펼쳐졌다. 2차 행사는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영상기록 병원 24시’ (목요일 자정 방영)에 소개된 난치병 및 불치병 환자와 극빈 환경에 처한 환자들 중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김승혁, 오현준, 박모세, 조건희, 남영지, 임수린 등이며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롭게 투병 생활을 하느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행사를 통해 약 2만 명의 고객들이 5,299만8,000원을 기부했으며 SK텔레콤은 자체 적립금을 포함, 총 1억599만6,000원을 1월 8일 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희귀난치병 환자돕기’ 모금액 전달식에 고객 대표로 참가한 김원옥 씨(여·27)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뜻을 모아 좋은 일에 쓰게 돼 기쁘다”며 “힘들게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꽤 차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희귀난치병(뫼비우스&폴란드증후군)을 앓고 있는 박모세 군(남·3)의 아버지 박현규 씨(37)도 “주위 분들이 기도와 도움을 주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아이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로 감사를 표시했다.

•• 어린천사링 ••

당신의 컬러링은 무슨 곡입니까?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인 SK텔레콤의 '어린천사링'으로 바꿔보세요.
무심코 사용하는 컬러링도 얼마든지 이웃사랑의 매개체로 탈바꿈할 수 있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한 기부 문화의 확산

컬러링을 통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SK텔레콤은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물론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다.

2003년 연말연시를 맞아 각급 기관 및 단체의 기부 행사가 잇따랐던 가운데 SK텔레콤은 첨단 IT기술을 활용하는 기부 문화 실천 방법을 새롭게 펼쳐 보였다.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인 '어린천사링'을 통해 컬러링도 얼마든지 이웃사랑의 매개체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컬러링은 휴대전화를 걸었을 때 '뚜~뚜' 하는 기계음 대신 음악이나 소리 등을 들려주는 서비스이며, '어린천사링'은 이 컬러링을 이용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아이템이다. SK텔레콤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피아노를 전달받은 보육원 어린이들이 연주한 음악이 녹음된 컬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을 다른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피아노 기증운동 기금으로 사용하는 '어린천사링'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감성과 자신감

이 사업은 특히 SK텔레콤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8명의 직원들이 연말연시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해 성사되었다. SK텔레콤은 보육원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감성을 키워주고 스스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003년 11월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 제주 홍의보육원 어린이들은 어린천사링에 쓰일 음원을 녹음하고 SK텔레콤 직원들과 함께 놀이공원 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녹음된 어린천사링은 피아노 연주·동요·캐럴·시낭송·코믹 멘트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되었다. 여기서 발생한 판매 수익금은 원곡의 저작권료를 제외한 전액을 다른 고아원과 보육원에 피아노를 보내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사용된다.

•• 스포츠 스타와 함께 ••

이제 딥딥한 실내에서 벗어나 넓은 운동장으로 나와 함께 응원하고 소리쳐 보세요. SK텔레콤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썩을지어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즐기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인 ‘레저 버디(Leisure Buddy)’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레저 버디’



한국시리즈 진출을 축하해요

“와! 야구장이다.”

2003년 10월 19일, 인천 문학야구장에 색다른 관람객들이 들어섰다. 이들은 SK텔레콤의 초청으로 한국시리즈 3차전을 구경하러 온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이었다.

“정말 멋있다.”

“파이팅! 에스케이 와이번스!”

평소 야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은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잘 다
듬어진 잔디구장이 신기한 듯 연신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

“날려라. 날려!”

“이진영 파이팅!”



현대와의 3차전 경기가 시작되자 관람객들은 들뜬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22명과 보호자 22명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12시 30분 선수단으로부터 사인볼과 모자를 선물로 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들은 경기장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경기를 관람했다.

이 행사는 SK텔레콤이 SK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축하하며, 야외 스포츠 행사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선수 사인회 및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SK구단의 연고 지역인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초청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소외계 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행사이기도 했다.

7차전 경기까지 초청 이어져

이 프로그램은 10월 23일 열린 5차전으로 이어졌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벌어진 5차 전 경기에는 SOS 어린이 마을 50명을 초청했다.

10월 2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6차전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연계해 50명의 장애인과 보호자 50명을 초청해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은 사인볼과 모자를 선물로 받고 경기 후에는 저녁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7차전이 벌어진 10월 25일에는 안산에 있는 ‘들꽃피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40명을 초청해 열기 넘치는 최종전을 함께 즐겼고 각종 선물을 안겨주었다.

경기가 열릴 때마다 참가자들은 “텔레비전으로 야구경기를 보면서 야구장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SK텔레콤의 초청으로 야구장에 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시리즈가 끝난 후 들꽃피는 학교의 선생님 한분은 “정말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



다. SK텔레콤의 초청에 매우 감사하며 이런 기회가 좀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K와이번스 선수단들도 “창단 4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나가게 되어 정말 기쁘다. 경기 직전에 장애인들의 응원을 받고 보니 더욱 힘이 난다.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경기를 펼쳐 반드시 이기겠다”고 필승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구단 관계자들도 “SK와이번스가 비록 7차전에서 아깝게 져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승 패를 떠나 선수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행사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짹을 이뤄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즐기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인 ‘레저 버디(Leisure Buddy)’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선진 사회복지 국가에서는 이미 ‘레저 버디’가 중요한 사회적 운동이 되고 있으며 이의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SK와이번스의 이진영, 이호준, 조원우, 조경환 선수는 2003년 12월 26일 서울 역 신역사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바자’ 행사에 참여, 사인볼 240개와 모자 100개를 기증하고 자원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SK텔레콤은 ‘레저 버디’가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2004년에는 스포츠단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함께하는 내일

해외·교육·문화 지원

- 일찌감치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 꿈나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SK텔레콤은 이제 밖으로 눈을 돌려 전쟁과 빈곤으로 인해 꿈을 잃어버린 해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쟁의 상처를 가장 깊이 받은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다시 지어주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자립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교정이 가능한 데도 빈곤으로 인해 남모를 고통을 받고 있는 얼굴기형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수술 지원으로 그들에게 환한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각각 사는 곳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달라도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좋은 친구들입니다. 국경없는 지구촌 세상의 주역인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SK텔레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영역입니다.
- 그런가 하면 국내의 여러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메세나 운동은 지난 2000년부터 SK텔레콤이 추진해 오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SK텔레콤은 윤리경영의 실천적 도구인 기업메세나 지원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21세기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함께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에 대한 투자는 밝은 미래에 위한 약속입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교육 및 문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이라크 평화학교 재건 사업 ••

적과 우방을 떠나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것은 분명 우리 모두 나서야 할 일입니다. SK텔레콤은 이라크 바그다드 라슈드 지역의 알 모하나드 초등학교에서 '평화학교' 축제를 개최해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자립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라크 어린이에게 자립과 희망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처

이번 이라크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이라크 어린이들이다. 전쟁으로 인한 우라늄 노출로 지금 이라크에서는 소아암과 백혈병 등 불치병 발생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남중부 어린이들의 경우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지난 10년간 이라크 내 5세 미만 사망률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불결한 위생 상태, 오염된 식수, 열악한 식단 등이 어린이 영양실조와 사망의 주된 원인이다.

1991년의 걸프 전쟁과 지난 12년간의 경제 제재, 미국과의 전쟁 등으로 인해 이라크의 학교 시설은 크게 낙후되고 파괴되었다. 수많은 초등학생들이 교육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라크 내 공립학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 학교는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현재 70% 이상의 학교는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기초 학용품, 교과서 그리고 교구의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들마저 월급여가 3~5달러에 그쳐 좀더 나은 직업을 찾아 하나둘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의 사회 서비스 지출 금액은 10년 전의 10~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치유되지 않는 상실감과 좌절감, 끊임없는 공포다.

SK텔레콤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와 지역사회를 위해 국제적 규모의 교육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평화학교(Peace School)’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상처받은 알 모하나드 학교를 새로운 평화학교로

이라크 ‘평화학교’ 프로젝트의 첫째 목표는 오랜 독재 체제와 수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무력해진 이라크 알 모하나드 초등학교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파괴되고 약탈당한 학교를 재건하여 아이들이 뛰어 놀고 세상을 배우며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평화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무너진 학교를 보수하고 의료·급식 사업을 진행하며, 교육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라크 어린이들이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SK텔레콤의 이라크 평화학교 재건 사업은 학교 개보수 사업, 급식 사업, 교육 기자재 제공, 평화교육 실시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학교 개보수 사업’은 깨진 유리창 보수와 포탄으로 무너진 담 다시 세우기 등의 작업이다.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 시설과 깨진 변기, 화장실을 수리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 스스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했다.

영양이 결핍된 어린이에게 ‘급식 사업’을 실시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는 학생 200명에게 쌀, 우유, 치즈, 달걀, 참치, 파스타 등의 고단백 영양식을 제공하였다.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급식 교육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자신감을 조성하도록 노력했다.

무너진 학교를 보수해도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걸상, 칠판, 각종 학용품 등 교육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여 평화의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 기자재 제공’ 사업을 실시했다. 기초 교육 기자재를 제공해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학용품을 구입, 분배했다.

아울러 상처받은 이라크 어린이들의 내적 치유를 위한 ‘평화교육’을 전개하였다. 알 모하나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1차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평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동기부여 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사회적 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힘썼다.



자립과 희망의 평화학교 축제

SK텔레콤은 2003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라크 바그다드 라슈드 지역의 알 모하나드 초등학교에서 약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학교’ 축제를 개최했다. 평화학교 축제는 알 모하나드 초등학교 교장의 인사말과 함께 두 명의 이라크 어린이가 나와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두 마리를 날려 올리며 시작되었다. 이날 개회식을 위해 기아대책 이라크 지부장 권혁관 목사는 평화학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알 모하나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평화를 주제로 한 노래를 불렀다.

첫날 평화학교 프로그램은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스토리 텔링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각 반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실시된 스토리 텔링에는 초대받은 학부모가 일일 교사로 봉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오후 SK텔레콤 스태프들은 이라크 교육청과 알 모하나드 초등학교 학생의 다섯 가정을 방문해 식량과 학용품, 옷 등을 나눠주었다. 둘째날에는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시키고, 평화와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 인식에 목표를 두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평화의 깃발 프로젝트(Peace Flag Project)’를 실시, 아이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평화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각 소그룹별로 대표들이 자신의 그룹에서 나왔던 그림들을 전체 반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각자의 의견을 요약, 발표했다.

오후에는 ‘더러움’과 ‘깨끗함’이란 무엇인지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 청소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에게 SK텔레콤 봉투를 나누어주고 쓰레기를 모으도록 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환경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줌으로써 깨끗한 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 날 스태프들은 라쉬드 구청과 가난한 가정 열 곳을 방문해 기본 약품 및 식량을 전달했다.

마지막 날은 아이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어울려 축구를 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날 아이들은 축구 경기를 통해 경쟁이 아닌 평화롭게 협동하는 경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SK텔레콤의 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라크 지역사회에 자립 정신을 불러일으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평화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것은 국적과 종교, 문화를 넘어선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한 나라의 의식과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평화학교 지원 사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젤 어린이 이야기

아홉 살 라젤(Rasel Jabar)은 여섯 남매 중 넷째다. 아버지는 군인이었으나 전쟁 후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여섯 남매 중 넷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라젤이 그 중 한 명이다.

라젤이 다니고 있는 알 모하나드 학교는 지난 전쟁 때 학교 담장에 포탄이 떨어져 큰 구멍이 났다. 전쟁 내내 매일 같이 반복되는 폭격 소리에 잠을 못 이뤘던 라젤은 전쟁이 끝난 지금도 그 포탄 자국을 볼 때마다 그 날의 두려움을 떠올리곤 한다.

학생 750명에 6개 반인 알 모하나드 학교는 전쟁이 끝난 후 전기가 끊겨 오전에 2시간만 수업을 한다. 교과서조차 없는 아이들은 낡은 교실에서 창문 사이로 비치는 햇빛에 의지한 채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라젤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은 편이다. 부모가 없거나 너무나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고 못한 채 길거리에 나가 외국인들에게 “머니, 머니, 달러, 달러”를 외치며 구걸을 하거나,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 빠진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잠이 들곤 한다. 아파도 제대로 약을 쓰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묻지도 않았는데 라젤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을 깨낸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몇 달 전부터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많이 줄었는데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젤과 같은 이라크 어린이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며, 불빌탄이나 지뢰가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땅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의료 지원 ••

SK텔레콤은 얼굴기형의 고통을 겪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사랑의 실천인 이 사업은 단순한 의료지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 증진에도 일조를 함으로써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환한 웃음 되찾아준 사랑의 실천



1996년부터 실시해 온 무료 수술 지원

1990년대 중반 베트남어로 ‘도안’, 이른바 ‘언청이’라 불리는 얼굴기형 어린이는 당시 베트남 내에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부족한 재정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전 세계 인도주의 단체와 기업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이 사업을 ‘오퍼레이션 스마일’ 운동이라 명명하고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였다.

1996년부터 한국의 ‘세민얼굴기형돕기회’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사단법인 ‘세민얼굴기형돕기회’는 1989년 ‘얼굴기형돕기회’로 출범하여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지원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얼굴기형 환자들을 진료하고 기형교정수술을 시술해 온 법인이다. 이 단체는

1996년 '세민얼굴기형돕기회'로 재출범한 뒤 국내 순회진료와 함께 베트남에서 얼굴 기형 무료 수술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경을 넘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취지에 크게 공감한 SK텔레콤은 1996년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베트남 장애아동기금 산하단체인 'Operation Smile Vietnam'과 '세민얼굴기형돕기회'의 백세민 박사와 그의 의료팀들, 그리고 평소 사회봉사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 인제대학교 백병원 등을 적극 후원하였다.

SK텔레콤은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들의 무료 수술은 물론 사용된 수술 장비 및 소모품, 의약품 등을 전부 베트남 현지 병원에 기증하고 이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베트남 의사의 한국 연수, 복잡안면기형 환자의 초청 수술 등도 함께 지원하였다.

2003년, 마이 타오 시에서 200명 시술

'베트남 어린이에게 웃음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은 1996년 5월 하노이에서 193명의 어린이를 수술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3년 수술은 12월 15일부터 27일까지 호치민시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My Tho시의 Tien Giang 병원에서 진행되었다. 시술 대상과 인원은 베트남 측에서 선정하였으며 총 200여 명이 시술 혜택을 받았다.

한편 수술이 끝난 후에는 베트남 정부관계자, SPT(Saigon Posts & Telecommunication)관계자,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한국과 베트남 의료진, 환자 대표, 베트남 및 주 베트남 한국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술기념 만찬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우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2003년 8년째를 맞이한 이 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총 1,736명의 얼굴기형 어린이가 새 삶과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 수술 사업은 SK텔레콤의 대표적인 해외 의료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민간 우호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경없는 사랑의 실천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 시술 내역 |

시기	장소	시술 인원
1996년 5월	하노이	193명
1997년 5월	후에	250명
1998년 6월	하노이	155명
1999년 6월	호치민	251명
2000년 5월	하노이	197명
2001년 5월	호치민	250명
2002년 5월	하노이	40명
2003년 12월	마이타오	200명
총계		1,736명

•• 메세나 지원 ••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문화·예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임을 잘 아는 SK텔레콤은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함께하는 내일



기업 윤리 실천의 한 방법, 문화·예술 지원

본래 메세나란 고대 로마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 등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에서 유래한다.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쓴 이후, 각국의 기업인들이 메세나협의회를 설립하면서 메세나는 기업인들의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메세나 활동은 예술·문화·과학·스포츠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기업 측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국제 기업예술지원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Business Arts Association)가 조직되어 해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의 메세나 현황을 토의하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여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한국의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1994년 4월 발족하였다.

SK텔레콤은 2000년부터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 왔다. 2003년에는 ‘오페라 투란도트’ ‘춘계 학술발표 대회’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6회 청소년보호대상 특별공로상 수상

SK텔레콤은 국무총리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대상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보호대상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8년 제정되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분야에 대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범국민적인 청소년 보호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권위 있는 시상제도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 상은 단체상 1개, 개인상 2개, 특별공로상 1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되고 있다. 수상자는 각계 각층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1, 2차 예심과 본심을 통해 결정된다.

SK텔레콤은 소년소녀 가장돕기, 장애 청소년 돋기 등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자립심, 성취감을 고취시킨 점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식은 2003년 10월 13일,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으며,

MBC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 2003 SK텔레콤 사회공헌 활동 주요 연표 |

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 width: 30%;">3월 12일</td><td>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 발대식</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3월 17일</td><td>2003년도 011·017 점자 매뉴얼 발간</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3월 19일</td><td>기정방문 목욕 서비스 발대식</td></tr> </table>	3월 12일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 발대식	3월 17일	2003년도 011·017 점자 매뉴얼 발간	3월 19일	기정방문 목욕 서비스 발대식						
3월 12일	특수학급 보조교사 파견 사업 발대식												
3월 17일	2003년도 011·017 점자 매뉴얼 발간												
3월 19일	기정방문 목욕 서비스 발대식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 width: 30%;">5월 9일</td><td>사회공헌 자문위원단 1차 워크숍 실시</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5월</td><td>2002 SK텔레콤 사회공헌 백서 발간</td></tr> </table>	5월 9일	사회공헌 자문위원단 1차 워크숍 실시	5월	2002 SK텔레콤 사회공헌 백서 발간								
5월 9일	사회공헌 자문위원단 1차 워크숍 실시												
5월	2002 SK텔레콤 사회공헌 백서 발간												
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 width: 30%;">6월 4일</td><td>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1차 실시-호주, 73명</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6월 10일~8월 10일</td><td>1차 '콜 플러스 사랑 플러스' 이벤트 실시</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6월 17일</td><td>2003 대한 적십자사 후원의 밤 지원</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6월 19일</td><td>2003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개최-센트럴 시티 밀레니엄홀</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6월 21일</td><td>제1회 플래쉬·스위시 애니메이션 창작 경진 대회 협찬</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6월 28일</td><td>유니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 연주회 협찬</td></tr> </table>	6월 4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1차 실시-호주, 73명	6월 10일~8월 10일	1차 '콜 플러스 사랑 플러스' 이벤트 실시	6월 17일	2003 대한 적십자사 후원의 밤 지원	6월 19일	2003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개최-센트럴 시티 밀레니엄홀	6월 21일	제1회 플래쉬·스위시 애니메이션 창작 경진 대회 협찬	6월 28일	유니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 연주회 협찬
6월 4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1차 실시-호주, 73명												
6월 10일~8월 10일	1차 '콜 플러스 사랑 플러스' 이벤트 실시												
6월 17일	2003 대한 적십자사 후원의 밤 지원												
6월 19일	2003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 개최-센트럴 시티 밀레니엄홀												
6월 21일	제1회 플래쉬·스위시 애니메이션 창작 경진 대회 협찬												
6월 28일	유니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 연주회 협찬												
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 width: 30%;">7월 10일</td><td>사회공헌 자문위원단 제2차 워크숍 실시</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7월 25일~7월 30일</td><td>2003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 실시-전북 익산 원광대 캠퍼스</td></tr> </table>	7월 10일	사회공헌 자문위원단 제2차 워크숍 실시	7월 25일~7월 30일	2003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 실시-전북 익산 원광대 캠퍼스								
7월 10일	사회공헌 자문위원단 제2차 워크숍 실시												
7월 25일~7월 30일	2003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 실시-전북 익산 원광대 캠퍼스												
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 width: 30%;">8월 10일~8월 13일</td><td>한국 IT소년단 'IT Summer Dream Camp 2003' 협찬</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8월 13일~8월 19일</td><td>한반도 평화 통일과 동북아 국가 간 연대를 위한 동북아 5개국 학생 초청 세미나 협찬</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8월 27일</td><td>사회공헌 자문위원단 3차 워크숍 실시</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8월 27일~8월 30일</td><td>제7회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 협찬</td></tr> </table>	8월 10일~8월 13일	한국 IT소년단 'IT Summer Dream Camp 2003' 협찬	8월 13일~8월 19일	한반도 평화 통일과 동북아 국가 간 연대를 위한 동북아 5개국 학생 초청 세미나 협찬	8월 27일	사회공헌 자문위원단 3차 워크숍 실시	8월 27일~8월 30일	제7회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 협찬				
8월 10일~8월 13일	한국 IT소년단 'IT Summer Dream Camp 2003' 협찬												
8월 13일~8월 19일	한반도 평화 통일과 동북아 국가 간 연대를 위한 동북아 5개국 학생 초청 세미나 협찬												
8월 27일	사회공헌 자문위원단 3차 워크숍 실시												
8월 27일~8월 30일	제7회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 협찬												
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 width: 30%;">9월 13일~9월 17일</td><td>태풍 매미 수해 지역 물품 지원 및 긴급구호 실시</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9월 13일~9월 30일</td><td>2003 한국 실험예술제 '장애우 퍼포먼스' 협찬</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9월 15일~9월 21일</td><td>2003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 사진전 협찬-문화일보 갤러리</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9월 19일</td><td>창립 9주년 참여연대 후원의 밤 지원</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6d9b4;">9월</td><td>Junior Achievement 임직원 경제교사 자원봉사 실시</td></tr> </table>	9월 13일~9월 17일	태풍 매미 수해 지역 물품 지원 및 긴급구호 실시	9월 13일~9월 30일	2003 한국 실험예술제 '장애우 퍼포먼스' 협찬	9월 15일~9월 21일	2003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 사진전 협찬-문화일보 갤러리	9월 19일	창립 9주년 참여연대 후원의 밤 지원	9월	Junior Achievement 임직원 경제교사 자원봉사 실시		
9월 13일~9월 17일	태풍 매미 수해 지역 물품 지원 및 긴급구호 실시												
9월 13일~9월 30일	2003 한국 실험예술제 '장애우 퍼포먼스' 협찬												
9월 15일~9월 21일	2003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 사진전 협찬-문화일보 갤러리												
9월 19일	창립 9주년 참여연대 후원의 밤 지원												
9월	Junior Achievement 임직원 경제교사 자원봉사 실시												

10

10월 9일	월드비전 후원의 밤 지원
10월 10일~10월 12일	Giving Expo 2003 협찬
10월 16일	아름다운가게 창립1주년 기념 잡지 <참재미있는 가게 이야기 II> 협찬
10월 17일	국제 심포지엄 협찬
10월 18일	사랑의 지팡이 운동 전국 후원대회 협찬
10월	한국시리즈, 장애인·저소득 가정 청소년 초청 관람 행사

11

11월 3일	아름다운 통화 서비스 개시 및 약정식
11월 17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 2차 실시-일본, 79명
11월 26일	사회공헌 자문위원회 4차 워크숍 실시
11월 27일~12월 19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 운동 지원
11월 28일	환경재단 창립1주년 기념 후원의 밤 지원
11월 29일	지구촌나눔운동 이라크 사랑의 훈체어 보내기 콘서트 지원
11월	Junior Achievement Korea 이사회원사 지원
11월~12월	임직원 결연 후원 사업 실시

12

12월 3일	구세군 'NATE 사랑의 자선냄비' 약정식-서비스 시행(12월 4일~12월 24일)
12월 3일~12월 23일	'콜 플러스 사랑 플러스' 2차 실시-희귀난치병 어린이 돋기 실시
12월 5일	한국여성재단 창립 4주년 기념 후원의 밤 지원
12월 18일~12월 24일	저소득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오페라 라보엠 2003 공연 협찬
12월 19일~12월 21일	사회공헌 자문위원회 5차 워크숍 실시
12월 26일~12월 30 일	정신지체 장애인 재활기금 마련 '제3회 밀알 전시회' 후원
12월 26일	<특별 생방송 희망 2004 이웃돕기 함께 나눕시다 사랑의 힘> 바자회 참여
12월	연말연시 임직원 사회봉사 실시
12월	한국기업메세나 협의회 지원
12월	미국 USC Asian Leadership Development Center 지원

연중: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 실시(1월~12월)

2003 사회공헌 활동 백서

발행처 | SK텔레콤

발행일 | 2004년 5월 15일

발행인 | 김신배

편집 | SK텔레콤 CR전략실 사회공헌팀

URL | <http://withheart.sktelecom.com>



SK Telecom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